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26일 수요일(주간) 제410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새 정부의 문화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과학, 복지, 교육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사안들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화관련 정책은 '문화콘텐츠 제작 · 유통 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 등 몇 가지뿐이다. 문화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던 노 당선자의 약속은 어디론가 실종된 것이다.

노 당선자는 후보시절 불교계에 '불교정책10대 공약'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9가지 공약이 불교문화와 관련한 것이었다. 노 당선자가 불교문화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불교문화가 불교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에 깔려있는 '민족문화'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그런 노 당선자의 '문화관'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문화란 시대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영역으로서, 정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더욱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규정되고 있다. '문화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세계무대에서 설 수 없게 됐다. 이런 마당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추진과제에 문화의 비중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교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불교문화재 보존 ·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노 당선자가 제시했던 불교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니다. 진정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문화를 정치 경제의 '도구' 쯤으로 여기는 새 정부의 '문화관'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대구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님과 신도 1백여명이 20일 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에서 희생자 위령 촛불제를 올리고 있다. 대구= 고영배 기자

지하철 참사 불교계 잇단 온정

성금모금 · 염불봉사 · 천도재 등 다양한 활동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충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애도성명, 성금모금, 천도재, 자원봉사 등 아픔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실천승가회 등 주요 종단과 단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애도문을 발표했다.

진각종은 효암 통리원장이 20일 5백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전국 심인당에서도 성금모금을 시작했으며, 3월 9일까지 희생자를 위한 '추념불사'를 봉행한다

동화사, 영남불교대학 등 대구지역 사찰과 단체들도 19일부터 염불봉사, 식사제공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갔으며, 영남불교대는 20일 참사현장에서 위령촛불제를 거행했다. 합동분향소에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후보 종하 · 법장 스님이 유족을 찾아 위로했다. 관련기사 5면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은 23일 사건 현장인 중앙로와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서울 조계사도 21일 대웅전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만간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4일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선거가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 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21명이며 투표가 끝난 후 즉각 개표를 실시, 1시간 이내에 당선자가 확정된다. 당선자는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다.

투표는 종회의원, 교구 선거인단 순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위험물과 촬영도구를 소지하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선거결과 차주상보

한명우 기자

"가족을 부처님처럼"

올 봉축표어 · 캐릭터 확정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표어와 동자승 캐릭터가 확정됐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6일까지 공모한 159개의 표어를 심사한 결과 당선작에 강정윤씨(경기 부천)가 응모한 '가족을 부처님처럼'을 확정했다.



봉축위는 "올해 봉축행사를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행사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대구 지하철 참사 영가의 극락왕생과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사 임직원 일동은 급여의 2%를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토론회 아르바이트생 동원 현금 살포

"차비명목으로 받았다" … 공사재개 노린듯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토론회에서 현금이 살포되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동원되는 등 공사재개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사)한국교통시민협회(회장 김기홍)가 주최하고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추진에 관한 공청회'가 끝난 뒤, 분수공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40~60대 10여명이 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현장이 본지에 의해 포착됐다(사진).

현금을 받은 한 사람은 "서울 성동구에서 왔으며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교통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오게 됐다. 공청회가 끝난 뒤 차비조로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토론회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동원됐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청년 6~7명은 토론회 안내를 보고 있던 20대 여자에게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왔다"고 얘기했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학생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이런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또 토론회가 끝나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30여 명이 안내석에서 참석 확인 서명을 하기도 했다.

돈 살포와 아르바이트생 동원은 19일 경기도 내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낸 성명서에서 최근 관통도로 찬반 논란과 관련 배후세력으로 개발업자와 협력자를 거론한 부분과 궤를 같이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토론회 입구에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통도로 공사 조속재개를 주장하는 유인물 10여점을 펼쳐놓은 점도 강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회장은 "현금 살포와 아르바이트 학생 동원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50여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친화 정책 추진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기도정진'을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교통시민협회 주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추진 공청회'가 끝난 뒤 교통시민협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동원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실태 현황조사

조계종, 효율적 교육 위한 기초자료로

3~4월 두 달동안

조계종이 종단 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불자들에 대한 수행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수행법, 수행시간, 수행장소 등 재가불자들의 수행 전반에 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473개 사찰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 조계종에 등록된 47개 불교대학 수강생들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신도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교구, 사찰신도회의 조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이번 조사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언제,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계종 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승가교육체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종단 수행 ·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사 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애도하며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부족하다. 진종일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떨리는 마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신문을 보기도 두렵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싫다.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볼 수가 없다. 다만 신불(神佛)의 가호함을 탓할 뿐이다. 남이 이러할 진데 참사와 직결되어 있는 대구시민들과 유족들의 슬픔은 오죽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다. 크게 보면 자신의 못남을 남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소아병적 윤리의식이 자아낸 결과다. 작게는 나만 살자고 도망친 기관사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지하철공사의 안전불감증,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중앙통제소 직원, 전원부터 차단하고 도망친 관계자 등의 총체적인 직업의식의 해이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하루 650만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도가 이 정도 밖에 안되면서 그동안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지하철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사고가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하는 관료들이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국가는 지하철의 전체적인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상태라면 지하철 승객들은 매일 죽음의 터널을 왕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왕이라는 의식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뇌리를 점령해야 한다. 재삼 사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성보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성보 문화재보존관리에 때늦었지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오대산 월정사 다층석탑 원위치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관련 자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매장문화재는 국가귀속되는 것을 피하고 당사의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월출산 도갑사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법에 따라 국가귀속 조치를 취하자 사찰측이 강력하게 반발, 끈질긴 노력 끝에 사찰 전시관에 전시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찰에서 도난당한 성보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해당 사찰로 돌려 보내지지 못한 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사리(舍利)마저 단순하게 유물로 다루어져 창고에 갇혀 있다.

국보 제34호인 창녕 술정리 동탑에서 나온 유리사리병 등 유물 14점을 1969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인수받고도 38년간 유물을 소장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문화연대가 술정리 동탑에서 나온 유물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문서보관서에서 관련서류를 찾은 문화재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시하자 부랴부랴 하루만에 유물창고에서 찾아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출토유물을 관리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재 발굴이 급증하면서 향후 매년 출토유물이 3~5만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찰에서 출토된 유물은 종단과 사찰에서 소유권을 갖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큼 문화재 당국의 문화재 소유 및 보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행자교육·승가재교육 강화

조계종 교육원 교구본사 교무국장단회의서 내용·일정 확정

권역별 교육후 행자교육원 입교자격
증급지도자과정 연수 4월12일부터

조계종의 행자교육과 스님들의 재교육이 강화된다. 또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증설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7일 2003년도 제1차 교구본사 교무국장단 회의를 열고 행자교육원 입교 전 지방권역별 행사사전교육 실시 등 행자교육 및 승가 재교육 내용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부터는 '권역별 행자교육'을 마쳐야만 입교할 수 있게 된다. 6개월에서 1년간의 개별 사찰 행자교육과 1개월여의 본사 행자교육을 마친 뒤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었던 3단계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권역별 행자교육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인 습의조차 배우지 못하고 행자교육원에 입교하는 행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통해 행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권역별 행자교육은 직할·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1개 본사에서 최소 3박4일간 실시되며, 25기 행자교육원 대상자의 권역별 행자교육은 7월 한달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기본습의, 예불 등 예식습의, 기초교리, 사미십계, 운력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원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승랍 5년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급 지도자과정 연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균 승랍 10년차 이상의 본말사 주지연수교육과 승랍 20년차 이상의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 25년차 이상의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재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승가 재교육 체계가 보다 강화된다.

첫 중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오는 4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수행점검, 수행인의 자세 및 지도자상 체득, 포교, 복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또 3급 승가고시 대상자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가사회복지양성학교나 성보문화교육기관 등 특수교육기관과 학림이나 율원 등의 전문교육기관, 서울불교전문강당과 같은 교육원 개설기관의 증·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김태복장군 명예회복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구본사 주지회의

조계종은 17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2003년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도 사업성과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한국불교성역화 불사 모연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21개 본사 주지들은 김태복 장군 문제와 관련, 불사금을 뇌물로 간주하는 판결이 날 경우 군불교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 주지들은 또 은해사 법타스님이 제안한 북한방문에 대해 법타스님에게 그 방법과 시기 등을 위임했다. 한명우 기자

신도법복 통일 싸고 논란

의제실무연 황토색수련복 사용 추진
사찰·신도회 "비효율적인 발상" 반발

신도 법복을 통일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합리적인 일일까.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의장 종진)가 19일 회의를 갖고 신도법복 통일을 추진키로 하자 사찰과 신도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현재 대다수의 신도가 법복으로 회색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함에 따라 승가복식과 구분이 곤란하고 △승가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함에 따라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법회 및 수련회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통일된 수련복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도법복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제실무연구회는 조계사나 포교원이 사용하고 있는 황토색의 수련복을 그대로 신도법복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도법복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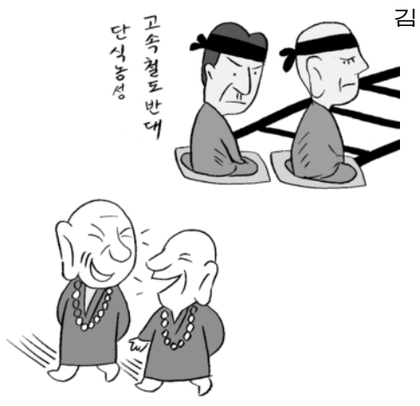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사찰과 신도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ㅈ사찰의 한 관계자는 "신도법복을 통일하자는 목적이 신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냐"며 "이런 비효율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신도회와 경찰불교회의 한 관계자도 "불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법복통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단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천성산·금정산 살리기 '외로운 투쟁'

선운사 새주지 범여스님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새 주지에 범여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는 19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범여스님을 새 주지로 추대했다.

194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범여스님은 1963년 선운사에서 상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4년 내장사 주지, 2001년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을 거쳐 현재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지 임기는 4월5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재무부장직은 자연히 사퇴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27일 개최
31대 총무원장 인준·원로회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7일 오전 10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 인준 건 및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룬다.

조계종 종헌 제28조에는 원로회의가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전례는 없었다.

원로의원 후보에는 지난 15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혜정(법주사) 지혜(범어사) 덕진(통도사) 스님이 후보에 올라 있다. 원로의원 정원은 17~25명이며, 현재는 18명이다.

한명우 기자

고영섭·지창규·신성현씨
동국대 교수로 신규임용

동국학원은 18일 제 190회 이사회를 열고 불교대 고영섭(한국불교사) 지창규(천태학) 신성현(계율학)씨를 비롯 총 28명의 동국대 신규교수 임용의 건을 승인했다. 3월 1일자로 임명되는 신규교수 28명은 서울 12명, 경주캠퍼스 16명이다. 또한 총 예산 3120여억원중 병원 예산을 보류키로 하고, 99억원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김원우 기자

동대 일산병원 12월 개원, 재원확보 총력

개원준비위원장 영배 스님 "장비 · 비품 구입 등 300여 억원 필요"

영안실 추가 · 병원 자동화 등 부담 240억 늘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을 위해 200~300억원의 자금이 충당돼야 한다는 현황파악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원회 위원장 영배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병원 재정, 건설부문,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가 및 별도공사로 인해 지난해 12월 개원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건립시 시행자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가 통상 사업비의 10%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병원은 31%나 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불교병원 총사업비는 총 770억원이었다. 이중 무균실, 중수도, 영안실 확장 등 추가공사 비용이 100억원 소요됐고, 병원자동화 시스템에 60억등 총 24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총 사업비는 1,0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동국학원이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자금 총 270억원을 모두 사용해도 개원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IH설비(자동항온항습시스템), 비품구입 비용 200~3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병원개원준비위는 조사결과서에서 불교병원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을 하지 않아 재원조달이 미흡했고, 건축이나 설비부분에 과잉투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원의 경우 한정된 학교재정 운영원칙을 어겼으며, 장비구입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설비부분에도 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무균실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일산 불교병원에만 집중한 결과 경주나 포항 등의 부속병원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약해 경쟁력을 상실케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총체적 문제는 학교가 2002년말 병원개원의 어려움을 예상했음에도,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원준비위는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200~300억원에 이르는 개원소요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대학의 병원 관련 예산편성에 나서고, 의료장비 리스확대, 기금모금이나 후원조직 활성화, 종단 협조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MBC '10 · 27법난' 진상규명 미흡

조계종 자료공개 거부 "과거 회상에 그쳤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0 · 27법난의 진실'이 16일 방영된 후 대부분의 국민들과 불자들은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과거 회상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45계획'으로 알려진 10 · 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아래 전국 3천개 사찰에 군화발로 법당을 부수고 들어와 스님을 비롯 불자 1,700명을 연행한 전대미문의 종교탄압 사건이다.

불교계는 이번 방송을 앞두고 10 · 27법난의 실상과 책임자가 낱낱이 밝혀져 당시 상처와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10 · 27법난 동기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이미 대불련 등 불교청년들의 자체노력으로 규명된 법난의 성격을 반복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자료부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MBC측은 10 · 27법난과 관련한 자료를 전두환 노태우씨 등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공문서나 종회의 회의록을 갖고 있는 종단에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 종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교계의 치욕적인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자료협조 거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피해당사자인 조계종이 쉬쉬하는 태도라면 10 · 27법난은 계속 불교계의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 · 27법난을 다시 되돌아본 계기를 통해 불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평불협)는 북한 사찰 단청 지원과 관련 3월 중 안료 5톤(약 2천만원 상당)을 북송하고 평양 법운암의 단청과 개금, 사리원 성불사 개금불사를 올부처님오신날 이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평불협은 17일 서울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베이징 평양관에서 열린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평불협은 이를 위해 김성룡 단청전문가와 김성호 불교미술전시관장 등 5~6명의 기술자와 방문단 10여명이 불사 시작 때 방북해 단청불사 입재법회를 조불련과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해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1998년 합의를 했으나, 조계종이 현대와 사안에 대해

내달 단청안료 5톤 북한 지원

평불협, 법운암 · 성불사 봉축일 후 개금 · 단청

협의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해 조계종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산 마하연 선방 복원은 조건이 구비되는 대로 시행한다. 또 올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인천에서 평양순안공항 직항로로 방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기자회견에서 법타스님은 "이번 단청지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민추본과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추본 한 관계자는 "민추본으로의 창구단일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하면 평불협과 논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통일부의 승인도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두 단체 모두 아직 방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불교계 내부에서 서로 조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터뷰 I

"전문인재 양성 종합대학 만들 터"

첫 신입생 뽑은 박봉식 금강대 총장



"금강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을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보활용능력과 능란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첫 신입생을 모집해 17일부터 21일까지 논산 캠퍼스와 중국 북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박봉식 초대총장은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와 원만한 성품을 갖춘 전문적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 기숙사 24시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를 위해 박 총장은 "초현대식 교육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와 도서관, 기숙사 등지에서 24시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정신과 천태종의 중창이념을 살려 금강대를 한국불교학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박 총장은 최상의 교육환경 속에서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금강대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 아래 불교문화학부, 통역학부, 사회과학부에서 능력있는 소수 정예학생을 선발해 전인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신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4년후에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부설 불교문화연구소 · 통번역연구소 등을 설립해 학문연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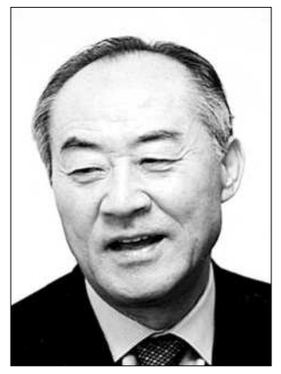
이같은 계획의 실현이 학생들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박 총장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인터뷰 II

"첨단 생명과학대학 지향했으면"

28일 퇴임하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



"8년 동안 외형적 성장과 재정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50년대까지 지켜졌던 한국 3대 사립대의 위상을 다시 확보했으면 합니다."

50년 만에 모교출신 첫 총장으로 선출돼 8년을 재직하고, 28일 퇴임하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새 총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이제는 내적인 발전을 이뤄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교병원 개원 못한 채 떠나 아쉬움

송 총장은 "한국불교의 위대성에 비춰볼 때 종립대 위상이 낮다"며 "동국대가 앞으로 BT(바이오)에 역점을 둔 첨단 생명과학대학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학교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송 총장은 선출된 후 '3대 사립대학 위상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1000억원대의 학교재정을 3000억원대로 늘렸으며, 제 3캠퍼스 건립과 분당, 강남, 경주한방병원, 일산불교병원 건립, 경주병원 증축에 진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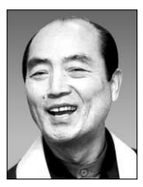
또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학부제를 시행하고 교수연구비를 늘리는 등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일산 제3캠퍼스는 지금 레이아웃까지 완성됐고, 개육개혁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새 총장이 조금만 손질하면 충분히 대학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강조한 송 총장은 "모교총장으로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한 불교병원이 개원하는 것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8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종단의 이사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는 학자로 돌아가 불교사상을 연구하고, 전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송 총장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해중 졸업생 5명 장학금

법공 총지종 통리원장은 20일 종립 동해중학교 제3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5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일주문



나눔의 터 일일주점 열어

황국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22일 카이저호프에서 청년포교를 위한 나눔의 터 일일주점을 열었다.



오계수지 수계식 열어

성열 서울 강남포교원장은 3월 3~7일 3층 수선당에서 오계 수지 대법회를 봉행한다. 수계식은 10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원각선원 개원 대법회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27일 부산 대연동 시민선방 원각선원을 개원하고 고산스님 초청 개원대법회를 연다.(051)638-0116



자비의 전화 정기총회

고경순 대구 자비의전화 대표는 17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원주지역 화합 기원법회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주지역 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애재단 장학금 수여식

서돈각 무애재단 이사장은 8일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제9회 재단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한국여성단체협 이사에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18일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상임위원인 서기이사에 선출됐다.



삼광사 서예실 회원전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24~26일 지관전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제2회 삼광사 서예실 회원전을 열었다.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

조우영 조계종국제포교사회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연다.(02)722-2206



보건학 박사학위 받아

김태곤 아미타예술단 회장은 20일 경북 경산대에서 '음악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논문으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

성중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주지는 3월 6~15일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를 봉행한다.(02)732-3327



서울시 재향군인 회장에

김병관 전 강동구 재향군인회장은 12일 국방회관에서 실시된 서울시 제25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외국노동자협 공동대표

정진우 경불련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부장은 10일 천안에서 열린 외국노동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⑦

손정현 (부산 중구 청소년의집 원장)

청년불교조직 활성화에 주력
청소년 흙사랑 자원봉사단 결성



"대한불교산악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가 산행과 불교를 접목시킨 자연스러운 포교로 효과를 거두었듯 앞으로 청년 불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초의 전국단위 불교산악회 조직이었던 대한불교산악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산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손정현 원장(39 · 법명 무수)은 '불교의 밑바닥'인 청년 불교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 불교 조직이 와해 위기에 처했다며 활동중인 사람들을 문제삼지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한 손 원장은 "어린이, 청소년, 장년 불자 등의 연계를 통해 청년 불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신도대표기구인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장을 7년 동안 지낸 손 원장이 신도회 산하에 '청소년 흙사랑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가족 산행을 불교와 접목시킨 것은 연령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장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 원장은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포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불청 산하에 상설연구팀을 만들 계획이다. 3월 구체화되는 상설연구팀은 천주교, 기독교 등의 청년 활동과 재정 조달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서 불교에 적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또한 몇 가지 청년회 조직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불교계 어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도위원단 구성, 청년회 지회 확대를 위한 파라미타 직할 청년회 구성, 회원확보를 위한 인터넷 전법단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불교만화 그리기 모임, 불교동화 구연 모임, 문화답사회, 사찰순례회, 불교 발명가 아카데미 등도 구상 중이다.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 부산불교신도회를 그만두었던 그가 다시 불교 활동 속으로 돌아온 것은 불교와의 첫 인연과 무관하지 않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학생 운동을 할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로 불교를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산재한 불교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수행과 전법에 능한 청년 불교 조직을 만드는 것, 손 원장의 최대 수행 과제이자 원력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올해 지역 · 직능별 동문회 조직

제11대 대불련 동문회장 성기태 교수

"올해로 마흔살인 장년 대불련의 총동문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만큼 불교계 안팎에서 제대로 역할하는 동문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성기태(충주대 총장) 교수.

성 회장은 "올 한해 대학 · 지역 · 직능별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들 모임의 본부 등록을 유도해, 총동문회 조직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침체된 대불련 후배들의 활동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지난 40년간 정치 · 경제 · 문화 ·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재를 배출했지만, 정작 동문들이 함께 하는 사업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성기태 회장은 "사무국 기능을 극대화해 동문회 홍보와 재정 확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소그룹 차원의 동문 모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중앙과 지회간의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깐수 정수일 씨 고대 강단에
시민방송서 이슬람 특강도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북한 공작원임이 밝혀져 복역했던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69)씨가 고려대 강단에 선다. 정씨는 20일부터 이번 학기 고려대 서양사학과에 처음 개설된 '서양사특강II' 과목을 맡아 본인의 저서 <이슬람 문명>을 교재로 1주일에 3시간 학생들에게 이슬람 문명사를 강의한다. 정씨는 이날부터 위성방송 채널인 '시민방송'에서 '정수일의 이슬람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특강도 진행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직 개편 · 캠퍼스에 불교바람"

제41대 대불련 회장 박종찬 군

"최근 대불련 지회 지부가 감소하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활기차게 신행하는 대불련으로 바꾸겠습니다."

22일 대전 광해사에서 열린 확대전국지부장단회의에서 제41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박종찬(원광대 전기공학 3년) 씨. 박 회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 조직을 개편, 캠퍼스 내 불교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본부 조직 내에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포교팀을 배치하고 새 시대에 맞게 인터넷 포교팀도 꾸릴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3월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대불련 지회 지부가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신행단체들과 연계한 회원 확보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박 회장은 2002년 대불련 익산지부장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제4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가 16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열렸다. 학생과 자원봉사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성덕스님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제불교진흥회 창립법회

김제불교진흥회 창립법회가 12일 김제 흥국사에서 개최됐다. 권두삼 김제 부시장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김재승(전 시위원) 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도법사로 선임된 우진 스님(흥국사 주지)은 "김제불교진흥회 불자들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사찰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엄불교대 · 대학원 졸업식

화엄불교대학(학장 평상) 14기와 화엄불교대학원(학림원) 12기 졸업식이 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화엄불교대학생 40명과 대학원생 27명이 수료했다. 89년 설립된 화엄불교대학은 1242명 졸업생, 99년 설립된 불교대학원은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출강 · 통신〕 2003학년도 제 12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모집

본 대학의 긍지와 품격은
불교사회적 책무를 담당할
훌륭한 법사양성의
교육적 체계화로부터
그 면모가 입증됩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제1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도량
7. 원서교부 및 접수: 2003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권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

월정사 출토유물 소유권 논란

월정사 사찰경내서 나온 유물 보유는 당연

문화재청 국가귀속절차 이미 끝나 반환곤란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사찰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국가 귀속 절차를 밟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월정사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국가 귀속 처리된 유물 13점은 월정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이므로 월정사에 소유권이 있다"며 "국가귀속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12세기 동전, 양녕 · 효령 대군의 이름이 새겨진 암막새 기와 등 유물 13점은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2001년 11월과 2002년 5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주변을 시 · 발굴해 출토한 유물들이다.

월정사가 속해 있는 평창군은 '문화재보호법 46조 2항'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인 평창경찰서가 지난해 10월 16~29일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내도록 했고, 그 후 유물을 국가귀속 조치한다는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뒤늦게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월정사는 "관할 경찰서는 물론 평창군으로부터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사전 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월정사 발굴 유물의 경우 월정사에 전래되어 온, 월정사 소유가 분명함으로 국가 귀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해당 사찰에서 보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미 국가 귀속 절차가 끝난 만큼 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매장문화재 소유권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은 건 처음이다"며 "공고 전 발굴기관이나 해당 관청이 이를 사찰에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46 · 47 · 48조에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은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를 해당 시 · 군 · 구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고 조치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구경북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합동분향소에서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영남불교대 자원봉사 모습.



◇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 발족

대법원 공명정대하게 매듭을

석탑 현물 시주가 현금수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4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태복 소장' 구명운동에 마지막 불을 당겼다.

18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는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발족식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종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전도돼 자칫 군대내 불교활동이 일순간에 위축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시는 군대내에서 군불사와 관련된 소송건이 무고하게 재판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며, 김태복 소장 사건과 같은 유형의 종교편향성이 짙은 사건이 발생할 시 불교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불교대책위는 또한 △대법원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 △기소를 주도했던 관련자는 불교계에 사죄할 것 △국방부는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등 종단 지도자급 스님 30여명이 대책위에 포함됐다.

한편 28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태복 장군 재판이 열린다.

남동우 기자

새만금서 조계사까지 3보1배

수경스님 · 문규현신부 3월21일부터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3월 21일부터 새만금에서 조계사(약 250km)까지 한달 보름 동안 3보 1배 한다.

수경스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북한산이나 새만금 문제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라며 "노무현 당선자에게 공약이행 등을 촉구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참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과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등은 '새만금 유랑단'을 결성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새만금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2박 13일 동안 도보 행진을 한 적이 있다.

남동우 기자

동국·위덕대 학위수여식

산악인 박영석 씨가 동국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및 공로패를 받았다.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 14좌를 완등한 박영석 씨는 14일 중강당에서 열린 동국대(총장 송석구)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등반에서의 고도에 따른 체력 및 생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히말라야 산맥의 K2 봉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을 받았다.

이번 동국대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2명, 석사 645명, 학사 2천569명 등 총 3천276명이 학위를 받고 사회로 진출했다.

한편 위덕대(총장 손제석)도 18일 교내 야외공연장에서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4회째 맞는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학위 수여자 388명, 석사학위 수여자 46명, 최고경영자과정 30명이 배출됐다.

김원우기자

한국 선지식 37명 삶·사상 조명

가산불교문화연구원, 해인사서 포럼

삼국시대 원효 스님에서 근 · 현대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1600년 한국 불교사를 밝혀온 선지식 37명의 삶과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스님)이 13~15일 해인사에서 개최한 '일천년 한국의 선지식' 제1차 포럼이다.

원장 지관 스님은 "선지식들의 조명을 통해 한국사에서 소외된 1000년 지성사를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포럼은 연구자간 토론과 비평을 통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8월경 또 한 차례의 포럼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짧은 출가 참나를 찾아서"

정토회, 8일간 용맹정진

정토회(대표 유수)가 불기 2547년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이해 8일간 법당에 상주하면서 정진하는 '짧은 출가 참 나를 찾아서'를 진행한다.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정토법당에서 진행되는 '8일 출가용맹정진'은 매일 3회 법문(부처님 일생, 불교와 수행, 불교의 사상, 일문일답), 발우공양, 매일 1000배 정진, 명상 등으로 이뤄진다. 문의: 02)587-8993

남동우 기자

"극락왕생 하시길…" 촛불기원

대구지하철참사 불교계 추도·구호의 손길 잇달아

지난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해 300여명이 사상하는 대참사가 발생,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추도와 구호의 뜻과 손길을 보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이자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인 법장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회장 운성스님, 해인사박물관장 향적스님, 중앙종회의원 장적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 20여명은 20일 대구시민회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하는 등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뒤 지하철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인 종하스님도 21일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대각사 흥교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청량사 지현스님, 심은사 도부스님, 보현사 현장스님등 20여명과 대구 지하철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대구시민회관을 방문,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1층에 있는 유가족대기실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합동분향소에는 계속해서 대구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대구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 대구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스님 등 지역 중진스님들의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날 저녁 7시 30분에는 영남불교대학이 주축이 된 스님과 불자, 시민 200여명은 대구 아카데미 극장 앞 지하철 중앙로역사에서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촛불집회를 1시간에 걸쳐 개최했다.

한편,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시민회관과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곽병원 등에는 사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지금까지 대구불교사회복지회 봉사단,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 대구경북포교사단 등 200여명의 대구지역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은 시름에 빠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힘을 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따듯한 식사제공, 염불봉사, 심리상담 등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의 참사 사상자는 20일 현재 133명 사망, 부상 145명, 실종 380명에 이르렀다.

해인사승가대학(전통강원) 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2.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3.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4.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5. 주민등록초본 2부
6. 호적등본 2부
7. 건강진단서 2부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9. 은사스님 법명,속명(한글 · 한자),당호,주민등록번호,승적번호

준 비 물

1. 사 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2. 입학금
3.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 불기 2547년 2월 10일(양력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7년 2월 14일(양력 2003년 3월 16일) 일요일
  ◆ **입 방 일** : 불기 2547년 2월 15일(양력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 2차 입방 ◆ **제 24기 행자교육원 수료 후 1주일 內 예정**

문 의 처

- 전 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7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

태고종 동방대학원대학 9월 개교

총장 김서봉교수, 6월까지 교수임용 등 준비 마무리

2년과정…3개학과 9개 세부전공 개설

태고종 동방대학원대학이 오는 9월에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태고종은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이사장으로, 부원장 원봉스님과 혜공스님을 이사로 선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사장 변경 승인을 받고 동방대학원대학 운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김서봉 동덕여대 명예교수를 초대 총장에 임명하기로 하고, 9월 개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동방대학원대학은 불교문화와 예술, 동양사상 연구와 체계화를 통한 종단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 · 사회계열 불학원, 서화원, 민속원 등 3개 학과와 불학원 내 불교, 범패, 불교미술 과정과 서화원 내 서법, 회화, 문인화, 민속원 내 역경, 풍수, 명리 등 9개 세부전공과정 석사교육이 실시된다. 정원은 50명이며 2년 과정이다.

태고종은 기존의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동방대학원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편입해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체제 시행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 중이다. 동방불교대를 편입할 경우, 승가과를 신설하고 불교미술과 범패과 등 불교문화를 특성화한 전문대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동방불교대학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등록한 서울 은평구 소재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외 현 총무원 청사의 학사(學舍) 사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학이 동방대학원대학으로 편입될 경우 현 청사를 학사로 사용함에 따라 총무원 청사 이전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고종은 오는 6월까지 교육부 실사와 개교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스님은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의 미래를 이끌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진각종, 등 제작 강습회 열어 진각종의 문화영역 확대와 보급을 위한 등(燈) 제작 강습회가 17~21일 서울 왕십리 밀각심인당에서 열렸다. 진각종은 앞으로 전통등 보급을 위해 강습회 참가자들로 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습회에 참가한 60여 불자들이 21일 '깨침이' 등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교전' · '법어록' 하나로 통합

진각종, 새 교전 편찬위원회 구성 작업 착수

<진각교전>과 <진각성존 법어록>을 한 권의 <진각교전>으로 재구성 편찬하기 위한 (가칭) '진각교전 편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진각교전과 진각성존 법어록의 중복된 부분이 많고, 현재 진각교전에는 회당 대종사의 중요 어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새롭게 편찬하는 연구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정 종학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덕일 위덕대 정교실장, 무외 통리원 포교부장 등 9명의 편찬위원을 선임했다. 3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편찬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편찬위원회는 정기 편찬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각교전 편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진각성존 법어록(채택분)의 원문과 현재 내용에 대한 검열 및 원문표기 △중복문장 삭제 및 단어, 문구 여과 △윤문 및 변환 △진각교전 편제 분류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봉영 기자

조동종, 법계·의제 확정

조동종은 승려들의 법계와, 법계에 따라 의식 복장을 달리하는 의제를 12일 확정했다.

득도한 날로부터 년차에 따라 정해진 법계는, 40년 이상 대선사(大禪師), 30년 이상 선사(禪師), 25년 이상 종덕(宗德), 20년 이상 대덕(大德), 10년 이상 중덕(中德), 5년 이상 선덕(善德) 등이다. 앞으로 조동종 소속 승려들은 법계에 따라 새로 정한 복식과 의제를 착용해야 한다.

조동종 교육원장 대은스님은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전문교육기관 신청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3월 31일까지 신도 전문교육기관 인가 신청을 받는다. 인가요건은 1년 이상의 학제를 갖추고, 교수 4명 · 입학정원 30명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강의실과 자료 열람실을 보유해야 한다. 교과는 교리, 불교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수행과 실천 등 필수과목과 비교종교론 등 선택과목을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 (02)720-7060

중진 · 고급 지도자 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와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는 3월 19~21일 화성 신흥사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79년 출가의 비구(니)와 79년 이전 출가자 가운데 입교에 문제가 없는 비구(니)를 대상으로 열린다. 접수는 3월 1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에 접수해야 한다. 3월 27~29일 화성 신흥사에서 열리는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84년 승랍의 비구(니)를 대상으로 열린다. 접수는 3월 15일까지다. (02)732-4923~4

태고종

올 중점사업계획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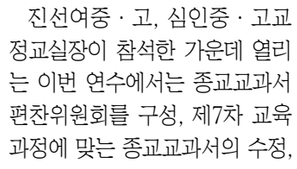
태고종은 최근 총무원 회의실에서 총무원 간부 및 각 시 · 도 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 중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찰재등록, 승려분한신고 등을 통한 조직 정비 △종단 전산화 작업 완료 △사찰법, 총본산법, 총림법 등 종단개혁 입법 추진 △총무원사 이전 △사회복지법인 설립 △효행실천운동 등을 추진한다.

26기 합동득도 승려 연수

태고종은 3월 13~14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지난해 수계한 제26기 합동득도자 167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중앙교육원(원장 수암)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수행자세와 의지를 다지고 태고종도로서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된다. 13일 오후 2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태고종의 역사, 종도의 사명, 나아갈 길, 종무행정 안내 등 강의로 진행된다. 회향식은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천태종

청년단체 연합하례법회



전국청년회, 청화, 학생회 지도교사, 연리회 등 천태종 청년단체들은 9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연합 하례법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비구니법사회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1월 25일 열린 임원진 워크숍에서 공동의 활동을 펼쳐가기로 합의한 이후 열린 첫 행사였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자신이 있기까지의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받들고, 영원한 스승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당부했다.

진각종

심학교사 · 교직원 연수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종립학교 심학교사 연수와 회당학원 산하 교육기관 신임 교직원 연수를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총인원에서 실시한다.

진선여중 · 고, 심인중 · 고교 정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종교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 제7차 교육과정에 맞는 종교교과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신임 교직원 연수는 진각종의 역사 및 기본교리, 수행과 의식에 대한 중점 교육이 이루어진다.

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

총지종은 1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계미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입제했다. 자녀들이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해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모든 종단 소속 스승, 교도들이 참여하며, 4월 8일 회향한다.

게시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윤현보 △대학원장 박인국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 민병록 △불교대학원장 한보광 △행정대학원장 이황우 △경영대학원장 김태홍 △교육대학원장 정진환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진철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조암 △문화예술대학원장 조승환 △국제정보대학원장 서윤길 △문과대학장 임호일 △이과대학장 이종춘 △법과대학장 손성 △사회과학대학장 김보현 △경영대학장 차수련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노완섭 △공과대학장 엄기환 △정보산업대학장 조성구 △사범대학장 한용환 △예술대학장 김흥우 △야간강좌교학처장 김석용 △가상대학장 김성훈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 최상범 △불교문화대학원장 김영길 △사회과학대학원장 설영기 △불교문화대학장 이봉춘 △인문과학대학장 최영조 △자연과학대학장 박순흠 △공학대학장 이계영 △법정대학장 이명복 △상경대학장 김영재 △관광대학장 김영국 △한의과대학장 신흥묵 △의과대학장 고복현 △야간강좌교학처장 김오우

구인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언어치료사 1명을 구하고 있다. 대상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감은 28일까지. (054)633-6415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방과후 공부방 전담 실무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 (02)3147-2600

▲원주 소쩍새마을은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고졸 이상. 마감은 충원시까지. (033)762-9870

▲주식회사 전국금속은 불자 화물기사를 구하고 있다. (02)529-9007

모집 ▲중앙승가대학교는 제13기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신입생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주간 100명, 야간 100명. (02)929-5004

▲과천복지관은 장애아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가를 구하고 있다. 활동시간은 주 1회 1시간, 요일과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02)507-6319

알림 ▲귀농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귀농공동체마을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다. '귀농,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cafe.daum.net/indramang).

강좌 ▲서울 능인복지관은 3월 6일~27일 야채음식 요리 강좌인 '푸른요리' 교실을 마련한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02)571-2988

▲서울 신내동 법장사는 3월 11일~7월 10일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시 불교예절 및 상식, 기초 교리 강좌를 연다. 강사는 퇴휴(법장사 주지), 인환(전 동국대 교수), 성원(문화학 박사) 스님 등. (02)971-0303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3년 3월 12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팔공산 (관봉) 약사암 대웅전 건립 대작불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영험이 널리 알려진 약사성지 팔공산(관봉) 약사암에서는 석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3년째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약사암 대웅전 건립불사에 불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수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복덕과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불사 동참 안내

대들보	1,000만원	황 룡	300만원
주춧돌	50만원	문 (앞)	200만원
기 둥	300만원	현 판	300만원
서가래	20만원	청 룡	300만원
주 련	100만원	축대석	1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01-0600-052
주택은행 810702-01-035169
대구은행 200-08-007118-4
예금주 : 장영순

※ 시주금을 입금하신 불자님은 반드시 약사암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장영순 합장
☎ 053)852-0803, 851-4632
Fax 053)852-9453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번지

성불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천만 불자님들께!

천일기도, 백일기도를 바치고 당신의 체력 상태는 어떠신지요?
命을 단련하고 性을 밝게 하는 비법.
신라의 김 가기 선인, 의상 대사, 최 치원 선인 등이 깨우치고 혜명경, 대성첩경 등 수도전집을 펴낸 유 화양 선사 등이 수련한 천년의 비밀인 금선금단 대법을 玄門선생님의 직접 특별지도로 10여년 만에 일반에 공개합니다.
금번의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시어 기의 바다인 氣海로 부터 法輪을 돌리시는 수련을 경험하여 보시고 性命雙修의 기틀을 마련하시어 대성하시기 축원합니다.

● 장 소 : 세계 금선학회본원 TEL : 02-512-7057. 7233
● 기 간 : 2003년 3월 부터 3개월간
● 참가금액 : 추후 통보
● 내 용 : 금선공법(금선 오행기공, 금선 안마공, 금선 혈도술, 금선 관법, 금선 명상, 소주천, 대주천, 일월합벽, 양신도태, 양신출신, 삼년유포, 구년면벽)
도가 양생법(영보필법, 태을금화종지, 혜명경, 수도전지, 대상첩경)
· 첫째달 : 연정화기, 축기과정
· 둘째달 : 연기화신, 소주천 완성
· 셋째달 : 연신환허, 대주천, 삼년유포, 구년면벽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허 과정을 수행하므로 시간이 허락되면 연신환허 과정인 구전환단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약을 채취해서 삼화취정을 이루고 도태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양신 출신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내단 위주로 갈 것 입니다. 이번 교육으로 기초에서 부터 올바르게 수련하여 "나의 수명은 내손에 달린 것이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다.(我命由我, 不由天)"라는 경전의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문화부 개설
풍수지리반 · 불교의식반
모 집

풍수지리반(이론과 실습)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알려졌던, 지구상 최고의 명당인 충남 당진군 내 자미원 터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치를 밝혀내신, 칠산 정세원 선생과 그 수제자를 모시고 조선 풍수의 핵심을 강의합니다.

불교의식반(범음 · 범패)
영남지방에 전승됐던 범음 · 범패 의식을 1년 과정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강의합니다.

❖ 개 설 : 2003년 3월 중순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대승불교대학(월촌지하철역 사거리)
❖ 시 간 : 주 1회(3시간)
❖ 요 일 : 추후결정
❖ 문 의 : 053)622-0333
H.P. 011-699-9120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NO! WAR, 함께사는 세계를" 외침 들리는가?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1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에 참석, 반전과 평화를 촉구했다.



◇실상사는 15일 신도와 산내민지역 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반대 평화기원재를 올렸다.

'전쟁반대! (NO! WAR)'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반전운동 움직임이 거세다.
조계사가 18일부터 법회 및 강좌에 앞서 평화기원문 낭독 등 반전과 평화염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 실상사에서는 15일 전쟁반대 평화기원 대보름행사를 열었다.



◇조계사 신도들이 대웅전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정근하고 있다.

조계·실상사 평화기원 법회·대보름 촛불행사

교계 10여단체 선언문 채택·'평화의 등' 달기 운동

나눔의 집 대학로서 국제 반전대행진 참여

종교인평화회의 평화지키기 1천만명 서명 추진

조계사(주지 지홍) 신도 500여명은 18일 '전쟁반대, 평화수호 기원법회'를 봉행한 뒤 '전쟁반대' 피킷을 들고 평화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사는 '평화의 메시지'를 채택하고 "지금 전 세계는 테러를 응징해 자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태세로 세계평화와 인류애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전 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2천만 불자가 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신도회는 현재 모든 법회나 교양강좌 진행시 전쟁반대 결의문 및 행동지침 낭독, 평화를 염원하는 정근 및 탑돌이를 하고 있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15일 실상 뜰에서 사부대중과 산내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 반대 평화 기원 대보름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대중은 대보름 기원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정의와 세계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이제는 미국이 오만하고 이기적인 정책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나라가 공존하는 평화의 바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 미움과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실상사는 평화 촛불기원 행사를 진행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달집 연기에 실어 온 세상으로 날려 보냈다.

불교단체들의 반전평화운동도 적극적이다.

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여성개발원등 교계 10여개 사회단체는 20일 연석회의를 갖고 선언문 채택, 사찰에 '반전평화의 등' 달기 등 반전평화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불교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반전평화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반대,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촉구,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무현정권의 역할 및 제31대 총무원에 대한 당부메시지를 담았다.

단체들은 24일 2차 회의를 갖고 수도권 10여개 사찰에 반전평화의 등달기 운동, 명사초청강연회 등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5일 서울 대학로 2.15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에 참여했으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18일 포럼을 열었다.

전쟁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전쟁의 제일 밑바닥에서 몸서리쳐지게 경험한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13일 반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지금 세계는 미국의 공격 위협과 북핵 문제를 빌미삼은 전쟁위기에 놓여있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우리 할머니들은 또다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부시는 테러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부시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북한 핵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만들기 종교인 포럼'을 열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은 이날 포럼에서 "반전과 반핵 평화만들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앞으로 평화 지키기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세계 평화 운동가들이 '반전 평화의 날'로 선포한 15일 100여개 나라 400여개 도시에서 1천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전평화 행사가 열렸다.

'국제 반전행동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이라크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를 위한 2.15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재무 본오스님이 18일 신도들과 '전쟁반대' 피킷을 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불교대학 양분 배경과 문제점은 …

조계종 인가를 받은 50개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불교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이에 대응해 29개 불교대학들이 구성한 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서로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조계종 포교원이 제정, 공포한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 따라 종단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불교대학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연합회는 시행령에 반발한 불교대학들이 동산불교대를 주축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협의회 소속 불교대학에는 약 4천여 명의 불자들이 등록돼 있고 연합회 소속 불교대학에서는 약 3천여 불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양분화는 2002년 2월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두 단체 간의 대립은 올 1월 연합회가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고 포교사 양성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 체계가 굳어지면서 '과연 누굴 위한 불교대학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이 불씨



◇불교대학 이원화 체계가 굳어지면서 불자교육과 포교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1월 열린 모 불교대학 신입생들의 발우공양 모습.

연합회 "불교대학 자율·특성 외면한 규정" 반발
포교원의 지도·감독·감사 사유권 침해

포교원 90년대 이후 신도교육체계 꾸준히 정비
부분 보완 가능하나 전면 개정은 불가

문제점
포교사 배출창구 이원화·위화감 큰 문제
커리큘럼 달라 교육·포교 혼선 가능성
신입생 확보 어려움… 존폐위기 내몰려

⊙양분된 이유는

조계종이 2002년 2월 제정, 공포한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은 상당수 불교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이 시행령은 전문교육기관 인가요건을 ▲1년 이상의 학제 ▲4명 이상(조계종 승려 2인 이상 필수)의 교수 ▲30명 이상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1.33제곱미터 이상이 강의실 확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불교대학 전반에 대한 포교원장의 지도 감독과 학사 관리 및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 및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은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했다. 반면에 동산불교대학, 보현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사르나드불교대학 등은 조계종 승려 2인 이상 확보와 1인당 일정 기준의 강의실 확보 등의 조건에 대해 불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불교대학 운영에 대한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 정기 감사와 보고 규정에 대해서도 예산을 비롯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 간섭만 하겠다는 것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논리라고 맞섰다.

연합회는 "무조건 조계종에 맞추어 따라오라고 하는 포교원 시스템이 너무 경직돼 있다"며 "불교대학의 자율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나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회 불교대학들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불자 기본교육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조계종은 '신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신도교육을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 체계로 정하고 종단에 등록한 불교대학을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으면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을 제한받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활동 무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으며, 연합회는 그런 취지에서 구성됐다고 말한다.

반면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이 90년대 이후 꾸준히 신도교육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수정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문교육의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교대학 양분의 문제점

불교대학이 양분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포교사 배출 창구가 이원화되는 것이다. 또 연합회와 협의회를 졸업하고 활동 중인 포교사 간의 위화감, 어떤 불교대학에 등록하고 어떤 포교사 고시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불자들의 고민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36명이 배출된데 이어 앞으로 연합회 포교사가 적극 활동을 하게 되면 기존 협의회 출신 포교사와 연합회 출신 포교사가 포교현장에서 부딪치게 된다. 또한 협의회와 연합회가 서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포교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불자교육 및 포교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 동안 조계종 포교사의 한 축을 구성했던 동산불교대 등 연합회 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은 후배들이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반 불자들 역시 어떤 불교대학에 가야 하는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한쪽 소속 불교대학에 다니는 불자들이 다른 쪽 포교사 고시를 봐야 한다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불교대학 간의 대립은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알리겠다는 불자들에게 실망과 함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 중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지 못한 불교대학들이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을 제한받음에 따라 신입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도 큰 문제점이다.

⊙양측 입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 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연합회 소속 포교사는 물론 연합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계종 포교사의 포교활동을 침해할 경우 종단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연합회는 불교다도포교사 등 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계속해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단체간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불교대학의 위상과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안신권
나눔의 집 사무국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망

12년간 日사죄 요구 544번째 시위
"다시 태어나면 나라지키는 군인…"

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 오늘도 변함없이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12년, 횟수로만 544번째다. 세계에서 최장기 시위이자 가장 평화적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말 일본군이 자행한 한국 여성들의 대규모적인 성수탈 전모를 밝히고, 그 밝혀진 진상에 따른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정부 차원의 책임자 처벌 등을 할머니들은 그 긴 세월을 하루같이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기만적인 술책을 동원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배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각료들의 망언, 한국을 비롯한 주변 피해국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본교과서 왜곡,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를 꿈꾸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회피하는 일본 사회에 진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 또 먼 훗날 일본인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떠나 전쟁 중에 발생한 여성의 성차별적 문제이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구상에서 이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일본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하루속히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새해를 맞아 우리 피해자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일본 민주당 오카자키 토미코 여성의원의 '수요시위' 방문이었다. 현재 오카자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안을 2년 전부터 마련 중이며, 252명 참의원 중 8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해, 국회 결의를 거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일본 정부의 금전적 배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조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한국 국회의원 110명에게도 법안 지지 서명을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현장에서 몸서리치게 경험했기에 그렇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가며 반전시위에 나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나라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새기고 2003년 나의 희망도 부처님에게 빌어 본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직장불자회 3월 10~17일 출가 · 열반절 특별 정진

"일상에서 부처님 닮기" 서원

일터 불심, 참회 · 독경 · 자원봉사 계획

직장 · 직능 불자회들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를 '출가-열반' 특별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철야용맹정진 · 독경법회 ·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법회 일정에 들어간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도 예년처럼 부처님의 출가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법회를 봉행한다.

종단 차원의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함께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를 '출가열반절 참회발원정진 주간'으로 공포한다. 출가절인 10일 조계사에서 입재식에 이어 직장 · 직능불자연합회, 포교단체 등 각 신행단체의 회원들은 요일별로 법회를 주관한다. 오는 열반절 17일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을 법사로 회향식을 갖는다.

특히 이번 참회발원정진 주간의 특징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 11개 직장 · 직능 연합단체들을 비롯해 직장 단위의 불자회들이 참가, 법회를 직접 주관한다는 점이다. 뒷짐만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행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일터 불심'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이 같은 직장 · 직능불자회의 참회발원 정진은 사회봉사 활동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기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출가 · 열반절의 참뜻을 자원봉사로 회향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한국운전사불자연합회는 전국 22개 지회별로 소속 사찰을 방문, 출가 · 열반절 특별법회 봉행과 함께 교통안내 및 정리, 노약자 신도의 특별 수송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창원 두산중공업 법우회는 10일 출가절에 경남 고성 고아원 시설인 보리수동산을 방문한다. 법우회 내 자원봉사 동아리인 '함께 가는 길' 20여 회원들은 이 지역 10개 복지시설과 5년 넘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이하 불자연합회)는 7개 지회 연구소별로 연등달기 행사를 벌인다. 대덕구 태전사를 원찰로 해 활동중인 불자연합회는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차원에서 1080배 철야용맹정진을 한다.

이와 함께 직장 · 직능불자회는 정기법회를 출가-열반 특별법회로 전환, 인근 사찰이나 자체 법당에서 108배 등 정진에 들어간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대전지회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혜명정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다. 또 한국조폐창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10일 자체법당 금강원에서, 운불련 대구지회도 자체법당 혜림원에서 출가-열반 정진 입재기도에 들어간다. 그밖에도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전국경찰불교회 산하 지회 등도 이번 정진주간에 동참한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출가-열반절 정진 주간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소중한 기간"이라며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참뜻을 일상생활은 물론, 각자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불자가 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국운전사불자연합회가 지난 19일 대구지회 법당 혜림원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충남 홍성운전사 불자회 곧 '시동'

창립준비위, 운불련에 가입신청서 제출

충남 홍성에 운전사불자회가 출범된다.

한국운전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는 27일 운불련 대구지회 법당 혜림원에서 2003년도 제1차 운영회의를 열고, 충남 홍성 지역 운전사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오병학)의 가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홍성 운전사불자회 준비위는 지난해 12월 운불련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이에 앞서 11월에 20여 명의 창립 발기인이 모임을 갖고 조직인선에 들어갔다. 홍성 운전사불자회가 산하 지회로 승인되면, 운불련은 전국 23개 지회로 늘어나게 된다.

운불련 김동대 사무국장은 "홍성 운불련의 출범으로 이 지역 불법홍포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자회가 일선포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불련 대구지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자체법당 혜림원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신년법회 봉행과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5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지도법사 설호스님(대구 대승원)의 법문, 대보름 민속놀이 등이 진행됐으며, 전화 · 승하차 예절 등의 운전기사 기본교육도 이어졌다.

김철우 기자

인천 서부署 불자회 26일 창립

준비위장 김천수 경위, 회원 50여명

인천서부경찰서 불자회가 창립된다.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최근 경찰서 내 경승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달 26일 총회를 겸한 창립법회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1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는 창립준비위원장에 김천수 경위를, 실무위원에 정재봉 경장을 각각 선출했다.

창립준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서 내 불자현황파악을 착수, 5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또 7년 전부터 경승실장을 맡아온 인천 용수사 주지 법호 스님을 지도법사로 재위촉하고, 불자회 회칙을 마련하는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를 갖췄다.

창립준비위는 곧바로 정기법회, 인근 전통사찰 순례법회 등의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관내 11개 파출소를 순회, 회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김천수 위원장(성남1파출소장 · 54)은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의 법회 참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달 정기법회와 전 · 의경 법회 등을 열어 경직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천안경찰서 불자회 석가모니불 점안식

충남 천안경찰서 불자회(회장 신기수)는 지난 18일 경찰서 4층 경승실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실장 법혜 스님(천안 금정사 주지)를 비롯해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 경인교사 불자회 사찰음식 특강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 경인지부(회장 이호영)는 27일 오후3시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제2강의실에서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원구원장) 초청, '음식이 성격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사찰음식 특강을 연다.

단체장



여의도클럽 회장에 선출

박준영 SBS 서울방송 법우회 고문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여의도클럽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초대경승 혜철스님 위촉

조남희 충북 옥천경찰서 경불회장은 2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초대경승으로 태고종 남부분원장 혜철 스님을 위촉했다.



중국 관정법사 초청법회

전창열 서초 법조불교인회장은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중국 관정법사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정인스님 초청 신년법회

전경도 두산중공업 법우회장은 22일 통도사부설 유치원 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창원 불지사 주지 정인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법우회가 태어난 지 불과 1년. 흔한 말로 새내기라 불리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직장 · 직능불자회에 비한다면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 법우회의 자부심만큼은 대단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래의 새끼 사자'라는 자긍심. 우리 법우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 우리 법우회의 이름입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고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각종 소비자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창립한 직장불교회입니다. 창립은 2002년 4월에 했습니다. 초대 회장 신동구 법우를 중심으로 불자들이 의기투합했지요.

종교 및 타종교 직장동료들에게도 전하고 있지요.

우리 법우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소비자보호원이란 직장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소비자보호약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도 좋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운영상 어려움도 적잖았습니다. 아직 재적사찰이 없고,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초대회장을 맡았던 신동구 법우가 금산사 수련회를 통해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또 조계사청년회, 동산불교대

"여래의 새끼 사자" 회원 자긍심 대단

재적사찰 · 지도법사 연내 확정 주력



◇사진은 지난해 가을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참배한 한국소비자 보호원 법우회 불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식구들은 전체 직원 250여 명 중 18명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행활동 만큼은 100% 이상입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의 정기법회는 기본. 연간 활동은 더 야무지죠. 지난해 봄 '수계법회(계사 무진장 큰스님)'을 비롯해 '불교문화의 이해(봉은사 탐방)', 가을에는 '성지순례(대구 팔공산 동화사 · 갓바위 순례)', '봉은사 산사음악회' 진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법우회 홈페이지(www.sobul.net)를 통해 불교 정보를 올려 교리공부에도 힘쓰고 있지요. <법구경>, <숫타니파타> 등 초기경전의 경구를 인트라넷을 통해 무학, 참선도량 수선회에서 수행했던 제가 힘을 보태고 있어 법음에 대한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지요.

때문에 올해는 재적사찰을 정하고 지도법사를 모시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인 법우회 정상화를 위해 정기법회 참석률을 높이고 철야정진과 같은 구도법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인근 사찰 순례를 통한 불교문화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야외법회를 진행해 올해 안에 회원 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재적사찰에서 불자소비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전문화된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김종관 총무

대승불교와 상좌부 불교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국립마하출라롱컨 불교대학교 한국캠퍼스 학부과정 신입생모집

박사급 교수 500여명, 재학생 만여명이 공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교인 본 대학교는 태국 출라롱컨왕이 117년전 설립한 세계 最古의 4년제 정규 불교대학교로써 현재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한국캠퍼스(동국불교전법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특별상담 바랍니다.)

입 학 안 내
■ 수학기간 : 4년
■ 수학기간중 강의언어 : 한국어
■ 등록마감 : 2003년 3월 9일까지(선착순 30명)

출석이 어려운 원거리 및 오지 거주자 인터넷사이버통신강의 : ○명 모집(주1회 출석)

■ 입학자격
① 승려 및 일반불자로서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수능무관)
※ 만학도, 고령자는 우선 선발함

■ 특 전
① 등록금이 저렴하여 일반대학의 1/2수준
② 졸업과 동시에 불교학사(B.A) 학위취득
③ 대학원 진학 가능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컨 불교대학교는 이미 학교시설을 거의 전산화하여 재학생들이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 등 모든 불교 학문의 기반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특성화 되어있는 대학입니다. 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세계각국의 수많은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이 현재 유학하고 있습니다.

학부중심제(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대학은 2000년 1월 한국 부산의 동국불교전법대학을 외국결연교육기관으로 인가하여 모든 과목의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은 태국에서 본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마하출라롱콘대학교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유학이 가능합니다.

마하출라롱컨불교대학교 한국캠퍼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62-398

부산캠퍼스 : 입학문의 (051) 642-6242, 647-6641 / Fax : (051) 631-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 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불교학연구 원전이해 앞서야

불교문화연구원 '현대불교학 방법론' 세미나

팔리경전 해독 자료 비교분석 토대

필사본 목록 입수 원본 접근 열쇠

불교학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 경향을 통해 불교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이 지난 18일 개최한 '현대불교학 방법론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불교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많지만 막상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지에 대해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학 연구는 어디서 출발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외국에서 돌아온 지 몇 년 안 된 소장학자들의 경험을 통해 나름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미국(우제선), 독일(안성두), 영국(황순일), 일본(이자랑)에서 최근 2~3년 새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들에게 주제 발표를 맡겼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불교학 프로그램을 소개한 우제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학에 있어 세계사적 조류는 원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헌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불교학의 중심지 함부르크 대학에서 슈미트하우젠 교수를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은 안성두(동국대 강사)씨는 "독일의 경우 원전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할 만한 텍스트(정판본)를 만드는 것이 문헌학적 연구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세계팔리성전협회장 곰브리치 교수가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황순일(동국대 강사)씨는 "그 자체로 단일하고 완성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팔리 경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다양한 경전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언어와 문헌에 대한 이해는 응용불교학에도 적용된다. 안성두 씨는 "(세계적 유식학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경우 폭력이나 환경 등의 주제를 다룬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철저하게 문헌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초기경전의 텍스트 속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지 교학과 응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헌학적 기초를 중시하면서도 나라별, 혹은 대학별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는 있어 보인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경우 '불교만 연구하면 불교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인도불교를 공부할 때도 불교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힌두교나 자이나교를 공부하는 것이 필수다. 오랜 문헌학적 연구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영국이 언어학과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강조한다면 독일은 원전비판과 원전 해석을 통해 텍스트의 성립과 전개 등을 다루는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문헌학적 연구가 가능할까? 필사본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문헌학적 훈련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대학원생의 질문에 안성두씨는 이렇게 말했다.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에 주문을 하면 즉시 보내준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한 카탈로그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필사본을 구해볼 수 있는 길이 봉쇄된 게 아니다. 다만 '수고'와 '비용'이 필요할 뿐이다. 일단 모든 종류의 카탈로그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일본중세연구소가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주요 학자들. 오른쪽부터 바바라 루쉬 박사, 로버스 버스웰 교수, 본각 스님, 춘팡유 박사, 혜원 스님, 폴 그로너 교수. (사진 제공= 본각 스님)

"한 · 일 · 대만 비구니 연구 협력 여성불교 새역사 완성하자"

본각스님, 美 콜롬비아대 워크숍 참석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연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중세일본연구소(소장 바바라 루쉬)가 지난 15일 '한국 비구니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고 돌아온 중앙승가대 비구니연구소장 본각 스님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비구니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화사와 불교사, 인물사를 연구 조사하여 여성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세일본연구소를 이끌면서 일본 황실에서 출가한 비구니를 연구해 온 바바라 루쉬 박사가 한국의 비구니연구소와 일본여성불교문화역사연구소 등을 초청해 이뤄졌다.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연구소에서 정리되는 비구니 관련 자료 공유 △일본 비구니 연구와 협력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오는 4월 일본 동경에 황실비구니사원의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사무소가 설치될 때 바바라 루쉬 박사와 만나 두 나라 비구니 연구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녕 술정리탑 사리함 등 유물 14점 38년만에 중앙박물관 수장고서 햇볕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녕 출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발견 사리용기를 확인하고 있는 윤광수 씨(사진 오른쪽).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던 경남 창녕군 술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8세기 중엽) 발견 사리함과 사리병 등 주요 유물 14점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다는 것이 38년 만에 밝혀졌다. 박물관 측은 이 유물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불자와 스님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수장고를 뒤져 유물을 확인하는 소동을 벌였다.

처음 이 문제를 꺼낸 것은 한 평범한 불자였다. 경남 김해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윤광수(44)씨가 자신의 홈페이지(www.stupa.co.kr)에 '사리함을 찾습니다'란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전국의 탑을 찾아다니며 답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온 윤 씨는 지난 해 10월 우연히 국보 34호 지킴이로 있는 혜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으로부터 1965년 출토된 사리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련 기록을 뒤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12일 유물을 공개하며 "술정리 동3층석탑 유물 14점이 검은 보자기로 싼 나무상자 안에 담겨 박물관 수장고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임시보관유물대장에만 기록돼 있고 겉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리용기를 직접 확인한 윤 씨는 "하루면 찾을 수 있는 문화재를 38년간 행방조차 몰랐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김해로 내려갔다.

3년 전 애들과 함께 할 여행으로 탑 답사를 택한 윤 씨는 부정확한 탑 위치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리상태 부실을 관공서에 질의해 바로잡게 하는 '문화유산 지킴이'역을 해오고 있다.

불교공예 (9)

만물을 포용하는 단아함



◇흥왕사(興王寺)명 청동은입사용봉문향완(국보 214호, 1289년, 호암미술관 소장). 이 향로는 충렬왕 15년에 개성 흥왕사에서 지금의 금산이 진례군 부호장(副戶長)인 김부와 개성의 김언수 등이 만들었다.

향로는 불교공예 가운데 가장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공양구이다. 부처님 앞에 바치는 향공양은 다른 그 무엇보다 진지하고 거룩하기에 향로 또한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향공양에 기울인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향로의 형상 그 자체에 숨김없이 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려시대만큼 향공양의 의식이 정교했던 시기도 드물 것이다. 고려시대의 향로는 다른 시대를 능가하는 정성과 단아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눌지왕(재위기간 417~458) 때만 하더라도 향이 무엇인지 몰랐다. 중국 양(梁)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옷과 향을 보내왔는데, 눌지왕과 신하들은 그 향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 결국 전국에 수소문한 끝에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러 온 고구려 스님 묵호자(墨胡子)가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다. 당시 묵호자는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인 일선군(一善郡)에 있는 모례(毛禮)의 집 안에 땅굴을 파고 살면서 신라에 불법을 전파하려고 힘쓰던 때이다. 묵호자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했다.

"이것은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렬합니다. 정성이 신성(神聖)에게 사무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삼보(三寶)보다 더 낳은 것이 없으니 만일 이것을 살라 발원한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왕녀가 위독하자 왕은 묵호자를 불러서 향을 피우고 발원하게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나았다. 신라시대의 향은 중생과 부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요, 병을 낳게 하는 영험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인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보물 778호, 호암미술관 소장)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보면, 향로를 통해서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고 중생들이 깨달음 얻기를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때 역시 향의 기능에 대해서는 묵호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흥왕사(興王寺)명 청동은입사용봉문향완(국보 214호, 1289년, 호암미술관 소장)은 고려시대 향로 가운데 수작에 속한다. 이 향로는 다른 향로에 비해 훤칠한 풍모에 단정한 기품과 풍요로움이 일품이다. 볼록하게 무리를 지은 원형의 받침에서 오목한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른 받침 위에 다시 볼록한 곡선으로 노를 만들고 그 위에 옆으로 뻗은 직선으로 입술을 삼았다. 받침에는 고려 특유의, 영지모양의 구름을 가득 새겨 구름기둥을 표현하고, 그 위 노에 팔능문의 테두리 안에 용과 봉황이 노니는 모습을 담고, 여백에는 밝고 명랑하게 피어있는 연꽃과 갈대를 배치하였다. 이들 무늬는 은입사로 조용하게 새겨 단아하고 풍만한 외형의 틀을 전혀 깨트리지 않았다. 백제시대 금동용봉향로가 용과 봉황 등 그 자체로 향로의 형상을 나타내어 외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이 향로는 단아하고 풍요로운 외형 속에 모든 물상들을 포용하고 있어 내성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향로는 삼라만상의 무엇이든지 향기로운 열기로 사르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아함이 향로의 품위를 돋우고 있다.

'흥왕사 향완' 훤칠하고 단정한 기품 간직

풍요로운 외형, 한없는 포용력 느끼게 해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 출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문수기도공덕



문수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혜가 총명해지고
맑아진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기쁨을 얻은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문수보살경전이 실려 있습니다.

정념스님 역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관음기도공덕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이야기(영험담)와 부록으로 '관음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창화 역음/ 4×6판 양장/ 208쪽/ 값 6,500원

지장기도공덕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고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으로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 주고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와 부록으로 '지장경'이 실려 있습니다.

명집부 역음/ 4×6판 양장/ 224쪽/ 값 6,5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방장,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 불전은 절마다 놓아야 합니까?
• 문답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천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 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역음/ 4×6판 양장/ 180쪽/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율주 종진 큰스님 감수/ 박현진 지음/ 4×6판 양장/ 216쪽/ 값 6,000원

간단명료하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100답



불교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이 되는 문제,
100가지를 선정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설한 입문서 입니다.

누구니 전자계산기 같은 이 책 한권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어떤 절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승석교수(동국대교수)지음/ 소책 값 3,800원/ 큰책 값 9,500원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 같은 명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탐욕은 꿈과 같은 것이다.
탐욕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탐욕은 독을 품은 벌레와 같은 것이다.
탐욕은 바람과 같고 어둠과 같고
감옥과 같은 것이다.

정휴스님 역음/ 4×6판 양장/ 170쪽/ 값 6,000원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 구직

관음기도 도량에서
기도공부하며 한평생
가족처럼 지내실 20~30대
女행자님을 모십니다
인연이 되면 도량을
물려줄수 있음
016-9393-9617
054)746-9617

행자구함
공양주 구함
041)566-6301
041)566-07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산속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
011)9825-01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충남 금산 흥법사
041)752-1288

행자구함
공양주 구함
041)566-6301
041)566-0722

부전스님 구합니다.
▷염불 하신지 10년이상
되신 스님 특별우대
경리보살(만50세 이하)
컴퓨터 필히 사용가능한 분
054)762-426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533-2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 ·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2)408-1368

오래 계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마천동
02)408-1368

강원도에서
기도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11)9093-01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경주
054)748-3530
011-744-1650

산세수려한 도량에
절 살림 맞으실 보살님
찾습니다
주지스님 전하
033)731-0449

(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가능자
대한불교 조계종 철마산 보각사
032)522-8131

사찰운영이 가능하신
인연있는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061)772-9077

행 자 모 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진학 보장
타종단 스님도 환영
02)917-3363

(女) 종무원
구합니다
▷ 컴퓨터 업무 가능자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평생 함께 사실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성북동 여래사
011-732-6933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기도하실노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무량사
043)851-4879
017-766-85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5세미만, 월 80만원
054)533-2133
016-9245-115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연령 60-70세 사이
건강하신분을 모십니다.
02)577-0007
011-9864-1095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토굴입니다.
인연있으신 스님
모십니다. 보시에
대해서는 만나서
상의 드립니다.
019-552-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상계동 불암산 정암사
011-254-30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041)856-7170
041)857-0621

복지 불사에 뜻이있는 불자님이나
인연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에 경관 수려한 800평 터 있음
수련원 실버요양원
방생기도 도량 법회 최적.
건축허가 유, 즉시 건축 가능함
017)692-0956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분
▷50세 이후
011-483-5639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용 암 사
▷ 서울 은평구 진과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스님 모십니다.
수행과 사찰을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지역 : 충남 아산온천지역
011-701-0140

60평생을 화두참선만 해온
스님입니다.
부처님 네분을 모시고 있는
데 긴급한 사정으로 지금
토굴을 비워줘야 함으로 부
처님 모실 토굴이나 빈
사찰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02)507-2307
019)9760-2309

기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입니다)
▷경남
011)9346-57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50세 이상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화암사
043)851-6013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016)811-6787

새해맞이 100% 영가천도

반드시 영가천도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분께 이제 100% 영가천도를 약속드립니다.
천도재 봉행 후 막연한 생각으로 천도가 잘되었겠지가 아닙니다.
누구네 천도재는 잘되었고 누구네 천도재는 잘 안되었고가 없습니다.
영가문제가 해결되면 고통을 주는 영가에 연결되었던 모든 분들이 다 장애를 벗어납니다. 탁한 눈빛이 밝아지고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고 영가장애로 인한 병과 고통 그리고 집안의 우환 사업의 장애등이 해결됩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고 침착해서 생활에 안정을 찾습니다.
술과 색을 밝히던것을 멀리 합니다.
본인이 확실히 느끼고 알도록 불공해 드립니다.

※ 정토사의 백병산 기도처로서의 기운이 대단합니다 철야 3000배나 좌선하실 신행단체에게 법당을 무료로 개방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031-771-0227

구인광고
기도스님 및 직접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40대전후)
061)381-0234
061)381-8844
011-611-1516
법 천 사

포교에 원력크신
인연있는 스님
모십니다
(불사 관계로 양도)
011)9687-9762

이전 강좌


알림정보

나무묘법연화경
법화도량 묘련사 법회안내
매월 셋째 일요일
새벽 축인시 철야기도
매월 음력, 24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 3리 54-1
033)332-9447
018)210-0584

(학생)
왕따 · 탈선 · 정서불안
(가정폭력)
매맞는 아내, 매맞는남편
(인간관계의 갈등, 부조화)
부부간, 부모자식간, 姑婦간
031)-765-0584

탈 종 공 고
· 사찰주소 : 구미시 고아읍 원호동 420번지
· 사찰명 : 대 원 사 · 창건주 : 見 性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2월 26일
대한불교 남파종 총무원장 법하

육효강의
3개월 완성
051)638-0257
016-673-4345

광 명(光明)
(행복 · 건강 · 번영 · 진리의 월간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31)297-1994
016)383-1990
좋은 운명의 근원은 덕(德)
- 본문중에서 -

修行의 魔障
혼침 · 도거
색마 · 수마
(정복가능)
031)768-7184



승복가게 인수할 분
찾습니다
부산시내 최고요지
▷전세권리비품合5000만원
051)818-8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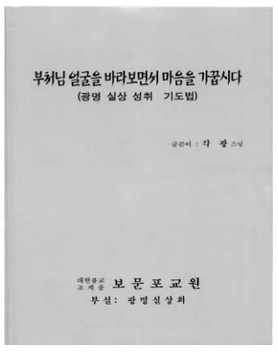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광명실상 성취기도법 을 알리며 · · ·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체(마음)을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佛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업, 병, 악, 고통, 재난, 불행, 죽음도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운명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운명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뜻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실상 완전 원만'하므로 이것의 향상됨이 없이 생멸(生滅)하는 육체로서 대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멸(生滅)하여 항상 됨이 없는(無常) 온갖 것은 실체가 아니며 한낱 신념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불자님은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얻어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숙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역경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서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행복 · 희망 · 번영 · 건강 · 성공의 근원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도 없고, 능력, 인맥, 학력, 가문, 문벌도 없으며 더욱 생명까지도 없었던 불자님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도 모두가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지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부처님 은혜의 일념뿐입니다.





※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거나, 위 사진을 오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보내 주시면 책을 무료로 법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얼굴을바라보면서마음을가꿉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실상성취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청정법신 이므로 **"생명의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 · 번영 · 희망 · 건강 · 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병과 재난과 불행은 악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 **"광명실상성취기도"**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이 항상 충만하게 나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 명 실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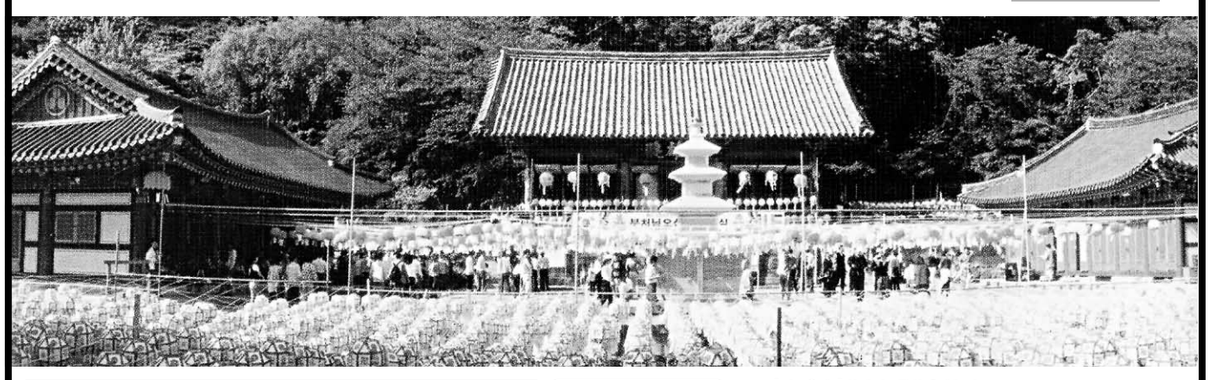
광 명 실 상 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 장 진 관 법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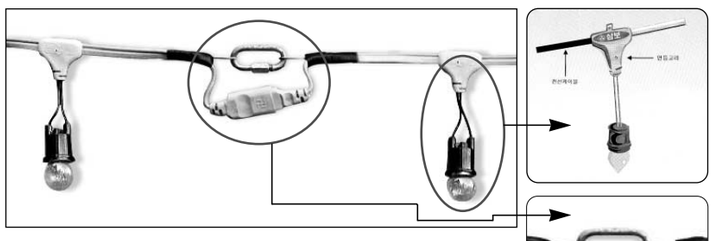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 장 각 광 합장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규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경북
- 법당:31평
- 요사:90평
- 부지:1000평
- 가액:5억

- 위치:전남
- 법 당:30평
- 요 사:50평
- 부지:3000평
- 가액:3억5천

- 납골당 사업안내 -
서울근교사찰부지(3,500평)에납골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은직접연락주시면 친절히안내해드리겠읍니다.(대리상담거절)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중고차 · 가전품 기증 요망

새로 시작하는 강원도 원주 인근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중고차나 가전제품을 보시해주시면 포교와 불사를 위하여 큰 힘이 되겠습니다.
◎ 보시희망품목 : 승합차, 짚차, 소형트럭, 경운기, 대형냉장고, 세탁기, 기타
대한불교 조계종 반 야 사 서울연락처 02)971-2308

『신비의 경옥고』

▶수락산 암자에 정진중인 승려입니다.
스승께서 전수해 주신 경옥고를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경옥고의 효능 ※
★원기회복 ★수족저림완화 ★비염에 효능
★심한변비 효능 ★중풍예방 ★수명익수
● 중량 : ☞ 석달 분(용기포함 7.5kg) ● 가격 : ☞ 500,000만원
● H·P : ☞ 011-669-5708 / ☎ : ☞ 031)874-5700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인천 시내 최고요지
- 법당 : 5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위치 : 안양시내
- 대지 : 260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40평
- 양도가 : 7억 7천
- 뒤는 산세 좋으며 안양시내를 관망할 수 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운세상담 실습생 모집

30초내 운세를 맞추면 입금(통장/핸드폰/카드)하는 운세상담실이다. 교재(사주첩경 : 이석영 저)
15년 명리학연구, 전화상담 경력 6년째입니다.
바로전화 (02-826-5067)로
실력테스트해보세요.
● http://www.speeddunse.com
● 서울은행 24304-3396114 예금주 : 김진동

운명철학 · 건강상담

신경통, 중풍, 심장이 약하신 분, 고혈압, 당뇨, 몸이 매우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해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력으로 약손건강 비법 봉사해드립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지원빌딩 202호
보 현 02)723-0384
약사암 016)246-0384
매월 18일 약사재일. 장애자, 불우이웃 대중 공양 손수합니다. 동참하실 분

자연철학 회원 모집

♣ 운명감정 비법공개
♣ 창업 및 취업보장
♣ 자격증, 회원증 발급
♣ ARS전화상담가능
무료공개특강 2월20일 목요일
★수시접수★
※수강 :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강사 : 학회장 직강 / 공 자운교수(서울大 졸)
사단법인 한국자연철학연구학회 ☎(02)2272-5131 (종로 5가 운동구매상점)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가평
- 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 8천

- 위 치 : 서울
- 부 지 : 10,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지하철역 인접하고 버스종점 옆
- 대지 : 대지 53평, 3층 건물
- 구조 : 방3칸, 거실, 주방 大, (인법당,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A급)
- 특징 : 대단지 아파트(7600여세대)건립예정 지역으로서 포교원 최적합함.
- 가액 : 1억 3000만원(약간 절충가능)

051)331-9937
016)872-80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시 5층 건물 중 3층
- 법당, 응접실, 방, 부엌, 화장실,샤워장, 삼존불, 탱화, 냉장고 등 집기일체
-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600만원(실제 시설비 절반가격임)
- 계약금 있는 분만 연락
- 급한 사정임. 전 · 월세 조정 가능

011)9973-4248
011)578-060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최고요지 방이동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5만원
- 시설비 : 7,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262-7011
02)420-47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전철역에서 3분거리, 최요지
- 건평 : 약 25평
- 법당, 방, 주방, 세면실, 화장실
- 가액 : 모두 천만원 월 30만원(선착순)

011)866-7372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 480-4848, 031) 417-4848
팩 스 : 031) 480-8549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 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시청 정문 앞 4층
- 법당 : 총 42평(방2,주방,다용도실)
- 청동,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인등단 모셔져 있음)
- 가액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349-1586

촌집(암자)안내

- 위치: 경주시내근교
- 평수 : 건평 108평 건물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삭월세 250만원 시설물 850만원 (개금불상, 삼존불, 산신각)

054)773-6352
016)898-6352

사 찰 안 내

- 대지 470평
- 대웅전 42평(목조기와)
- 칠성각 20평(목조기와)
- 산신각15평(목조기와)
- 요사채(슬라브) 25평 큰방 3개(거실) 주방
- 매매가 3억 5천(절충가능)
※ 여수시내로 2차선 도로 절입구까지 연결
- 전남 여수시 동산동 553-1 보광사
011)254-3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대지 : 약 16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15평
- 가액 : 6천
※ 의성인터체인지에서 10Km
※ 마을 맨 위(황토목조 기와집)

- 위치 : 부산 ⇔ 양산
- 대지 : 약 1만평
- 법당 : 40평
- 요사채 : 60평
- 가액 : 8억(절충불가)
※ 지하철종점에서 10Km
※ 들어오면 산, 나가면 도시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면 효령면 소재지 부근
- 부지 : 570평, 법당 : 25평 요사채 : 25평
- 특징 : 국도에서 도보 15분거리 대구서 차로 40분거리
- 가액 : 1억원(답사 후 절충가능) 토지나 주택 부동산과 교환가능

011)9370-4969

토굴(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마곡사 근처
- 평수 : 삼존불, 임법당 27평 방 3개, 욕실
- 신축건물, 대지 약 500평(구입가능)
- 천년약수 참선기도 도량 적합 10년거주
- 가액 : 3천만원(임대가능)

011)457-245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사정상 급매)
- 크기 : 65평, 법당(최상급)
- 방3, 욕실 2개, 창고, 주방1 (옥상총사용) 법회즉시가능
- 특징 : 전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가액 :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31)872-82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 도심 유일 포교당
- 평수 : 60평, 방2개
- 현재 법회 중
- 불사관계로 양도
- 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018)576-3579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 찰 상 담

- 위치 : 대구근교(30분)
- 부지 : 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위치 : 경북 왜관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억 5천

※ 사찰(토굴) 양도 · 양수 환영 ※
서방불사 053)585-0683 ·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 평수 : 700평, 대웅전 : 15평
- 요사채 : 30평, 산신각
- 특징 : 연못, 바로 앞에 있고 주차 마당 앞까지 진입가능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1)687-4032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매화산 입구 도로옆
- 대지 : 850평
- 가액 : 2200만원

054)335-53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 법당 : 10평
- 요사 : 20평
- 특징 : 마을뒤에 위치한 도량. 포교당으로 적합 교통, 주차편리
- 가액 : 1억

011)879-4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직동 운동장옆
- 4층건물 4층 기존시설 장엄함
- 전세 3천 월 1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양도함

051)502-5950

역학 수강생모집

수강과목 1. 역 학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건강
2. 성명학 : (작명, 성명감정)
◆ 기 간 : 수시모집
◆ 강 사 : D대학 교수가 직접 친절하게지도 합니다.
◆ 교통편 : 서울 영등포로타리(지하철 1,5호선 3분거리)
성일철학 02-2637-6483 / 02-2637-5266
연구학회 011-9093-5206

사찰 안내

- 위치 : 진주 합천 중간 국도 지점
- 법당 : 25평 ● 대지 : 250평
- 기와 단청 필, 보일러실
- 요사채 30펴 1동, 20평 1동
- 산신각 용왕당 천연자연수
- 법당 내 법화경 400권 봉안
- 가액 : 1억 5천만원 500만원 답사 후 절충

016)421-915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통영간 중간지점
- 부지 : 500평, 법당 : 20평
- 시설 : 삼포목재 단청된 30년 역사의 전통사찰양식으로 산신, 용왕각이 모셔져 있음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가 인접하며, 절뒤에서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임.(넓은 주차 시설)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능)

011)9209-789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알락동 (로타리 인접지)
- 크기 : 30평(2층)
- 가액 : 5천 5백만원
- 특징 : 인근 대단지 아파트 시장 근접

051)524-8108
011)597-670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8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법륜사 큰도로에서 150m
- 평수 : 대지 48평, 실평수 80평 방 : 큰방 2개(보일러)
- 화장실(실내외 각각 1개)
- 가액 : 2200만원

041)841-1257
011)9823-484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현대전자에서 10분거리
- 부지 822평, 법당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7평, 창고 10평
- 오래된 고찰입니다
- 1000년 이상된 미륵부처님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31)632-1775
017)236-1775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 평수 : 850평
- 대지 옆으로 골짜기 물이 흐르고 야산이며 차길 닦아져 있음 별장지나 절터로 적합
- 가액 : 1억 3천만원

016)737-5305

포교원(특혜)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역 포교원 법당 최고 시설
- 본 사찰에서 수개월 수행하면서 인수하실 참신한 스님을 원합니다.
- 대구시내 포교에 자신있는 스님을 원합니다.

011)9343-07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예서읍
- 대지 : 100평, 법당, 요사채
- 산존불, 주지실 따로
- 토굴 겸 포교당 적합
- 가액 : 7천만원 (가격절충)

011)9534-255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산 3동 대로변 위치 최고, 시설 최고
- 2층 30평, 방2개, 요사채 (옥상)2채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1)506-0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
- 대지 : 1,364평
- 건물 : 산신, 용왕각, 요사채
- 법당 : 대웅전 법당 기초 완료 (불사중)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도개 온천방향으로 교통이 편리함
- 가액 : 3억 (가액조정 가능)

011)532-8921

사찰 안내

- 위치 : 남양주시 유원지 내
- 법당 : 30평
- 요사, 산신각 : 35평
- 가액 : 전세 5천만원

02)456-1963

道通易學역학비법전수

천문, 지리, 인사에 능통하게 되어 사주팔자 없이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는 도가비전인 道通 易學의 비법을 속성 전수합니다.
(특수기공, 명리학, 육임학 수강생 및 운명상담사 과정 별도 모집함)
02)3446-4118

암자 및 토굴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진인동 갓바위 뒷길
- 평수 : 900평
- 시설비 : 500만원(절충가능) 월 33만원
- 조그만한 암자나 토굴 구하실 분 도로에서 300m, 산세 절경이 빼어난 산위 좋은 위치. 주차가능

011)9586-7490
053)982-236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일리
- 2200평 중 田 1900평, 대지 300평 요사채 32평, 법당 22평 (천년불 모셔져 있음), 산신님
- 법당은 짓다가 중지되어 있으며 공정 30~40% 진척 되어 있음 지장산 자락에 있음(예전 지장보살 현신 한 곳)
- 가액 : 전화 상담 통해 가격 절충

031)534-2490
031)534-1022
017)744-249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 1리
- 법당 : 요사채 32평, 방4개 거실, 지장산 유원지 입구
- 평수 : 2200평 (전 1900평, 대지 300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031)534-2490
017)744-249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소사역 도보 5분거리
- 평수 : 5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2개 공양실, 욕실, 방, 전체 사용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011)9599-9468
031)638-6636

암자 토굴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 조적1,2층(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불교의식 무료강좌

- 과목 :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도량석, 선축원, 불공의식, 각단예불 등
- 장소 : 서울 광진구 노유 1동 23-3 3층
- 일시 : 2003년3월 4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3개월과정)
- 인원 : 선착순 30명
- 교수 : 도흥스님(지장사 주지스님)

☎ 02)462-9413
본 선문은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선문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목어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



도 수
정업도량 회주
본지 논설위원

무심코 길을 걷고 있었다. 처녀인 듯한 한 젊은 여성이 불쑥 다가오더니 말을 건넬 태세다. 길을 묻나 했더니 웬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한다.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을 빤히 보고서도 당돌하게 그런 말을 던진다는 것은 "옳지 제대로 만났구나!" 하며 일부러 내게 접근해 온 것이 분명하다.

가끔 대중 속에서 용감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타종교 사람들을 본다. 한편으로는 확신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측은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아무리 선교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인간적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최소의 체면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보다 한 차원 높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어서다.

그럴 때면 그 당사자보다는 그가 다니는 교회의 성직자 얼굴이 먼저 그려진다. 도대체 신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극치의 편집증세를 보이며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그런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이 사회에서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

객기가 발동했다. "내가 보기에 아가씨는 앞으로 3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남의 걱정일랑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시죠." 한마디를 더 붙였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축하를 해야 하나요, 애도를 해야 하나요?" 그녀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쏜살같이 그 자리를 떠났다.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 볼 기회가 되길 바라고 한 말이었지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혹시 3년간 시름시름 앓지나 않을까 자책감도 느끼며 나도 천천히 발길을 떼었다.

박물관 도시로 변신하는 공주

인구 14만의 중소도시인 공주시가 내년에 박물관 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마곡사가 보물인 석가모니괘불탱화 등 불교유물을 전시할 성보유물전시관을 내년에 개관하고, 국립공주박물관과 구석기유적전시관, 세계만물박물관도 새로 지어져 내년 문을 연다. 공주민속극박물관, 산림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을 합치면, 공주는 6곳의 박물관과 3곳의 전시관을 보유하는 박물관 도시가 된다.

장군죽비

방생금지, 붉은귀거북 밀수입 극성

방생금지 동물인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다시 밀수입 되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수입이 금지된 생태계의 무법자. 붉은귀거북의 대부분은 대보름부터 시작되는 불교행사에서 방생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붉은귀거북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2002년 발간된 조계종 <방생지침서>를 읽어봐야 할 것이다.

강물이 심하게 오염되면 기형 물고기가 생깁니다. 어떤 놈은 눈이 튀어나오고, 어떤 놈은 지느러미가 썩어버리고, 어떤 놈은 허리가 휘어지고, 어떤 놈은 배가 비틀어집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결과가 나옵니다. 강물이 맑아지면 모든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잘 놉니다.

사회가 심하게 혼탁하면, 미친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미친 행동이 나옵니다. 사회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만약에, 가정하기 싫지만, 정말 만약에, 아내가 그 장소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 봅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신병자니까, 혹은 장애인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비행에 대해서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둘째 사람은 지하철 관련자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조현춘 교수
경북대 심리학과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 모두 탓

이런 정도의 우발적 사고에도 대응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설계자와 이런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긴 사람입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식한 필자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무식한 혹은 간교한 자들의 장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호선의 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청, 시청, 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교육학자 혹은 교육부 직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학자 혹은 교육부 직원들이 국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논문을 통해서 지적하였지만,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언비어입니다. 필자는 철저한 과학논리와 성현들의 가르침이 융화된 사회가 이루어져야 행복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논리학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필자 자신과 불교신자들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였거나, 혹은 세상을 맑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행동을 하여 고통받는 것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지하철 사고와 같은 사고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 불교신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 불교신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받아들여 독송하고 남들에게 설해 주어야 합니다.

필자는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합니다. 무비스님과 필자가 번역한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꽃과 파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노란색 꽃과 노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빨간색 꽃과 빨간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하얀색 꽃과 하얀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온갖 색 꽃과 온갖 빛을 내는 꽃들도 피어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를 바라보며, 이웃을 아미타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십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교인 포럼

증오와 적개심 먼저 참회해야

미국의 이라크 공격 위협과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가 참여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교인 포럼'을 열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강원룡 목사, 최기산 주교 등은 기조강연을 통해 반전과 반핵, 평화 만들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학담 스님, 이우영 박사, 홍창진 신부의 글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 북핵 위기, 화해와 해법

학담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대 이라크 전쟁위기와 함께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전쟁이 나면 전 민족이 함께 공멸의 나락에 떨어질 현실을 생각하며 전 민족적 안보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힘을 가진 자가 넘치는 힘을 밖으로 과시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체제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막다른 골목에서 일으키는 자기방어를 위한 몸부림으로써

항복문서 받아내기 방식은 위험

시위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모든 대중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 항복문서 받아내기 식이 아니라 북의 피해의식의 뿌리 없애줌을 통해 안보에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북송금문제 또한 비록 국민적 합의, 절차상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지출의 대가로 민족경제 공동체의 문을 열었으며, 화해 협력의 길을 닦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지도자들도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에게 회개와 참회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죄업을 역사의 성전에서 참회해야 할 것이다.



■ 남북관계와 미국

이우영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미국은 9.11사태 이후 세계전략 차원에서 반 테러전쟁의 의지와 과단성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북한 또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가 이뤄져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어느 한쪽이 바꾸지 않는 한 핵문제는 장기화될

군사·자본 이해관계 등 검토 필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폐기선언을 장기간 유보하거나 폐기를 향한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때 군사복합체를 포함한 자본의 이해관계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남북관계 및 국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도 필요하다. (사진제공=경향신문)



■ 북 실정과 종교인의 자세

홍창진 신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 회장

이미 북한의 식량난이나 사회 전 부분에 걸친 위기는 인류사회의 재앙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 종교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지구촌 구석구석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경쟁력이 없거나 뒤처진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더욱 더 빈곤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기수역할을 자임하는 미국과 영국이 호시탐탐 이라크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시민단체 연대한 국민참여 유도

의미심장하다.

얼마 전 독일 종교인들이 이라크 전쟁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며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던 점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 크다.

우리 종교인들은 아직 300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와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할 때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해 캠페인도 주최하고 천만명 이상의 범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짐과 결의를 모아야 한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 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시지 못한 일들과 자녀의 행복한 사랑의 결실이 보람찬 한해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大쑤,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신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8. 셔 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60,000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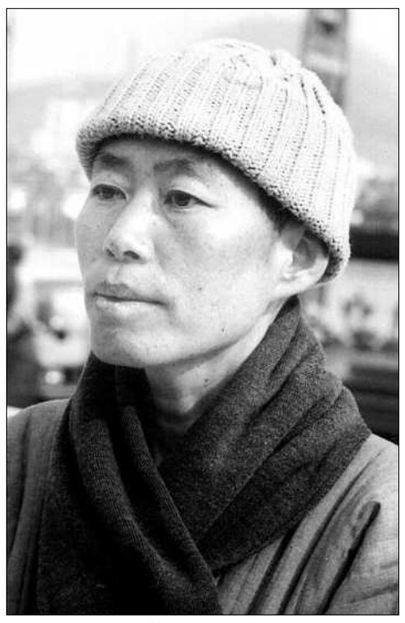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노루귀 · 청매 등 천성산 새싹들아… 꽃 피우려는 너희 터전 꼭 지켜줄께"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

● 지율스님이 띄운 편지 ●

간밤에 비가 살짝 내린 탓인지 나무 끝에 물이 올랐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다.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내원의 긴 계곡을 떠올려 본다. 지금쯤 천성계곡의 맑은 물가에 도롱뇽이 나와 헤엄쳐 다니고 물가의 버들가지에도 물이 올랐을 것이다. 내원사를 떠나올 때 봉오리가 맺혀있던 청매도 지금쯤 만발하여 스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겠지.

눈을 감고 봄물이 드는 내원 계곡을 그려본다. 언덕에 피기 시작하는 작은 노루귀와 얼레지, 그리고 제비꽃, 갓천골의 미나무군락, 현호색, 족두리풀 화엄의 언덕아래 대규모 군락으로 피어나는 눈방울꽃, 낙 엽속에 숨어 피는 제비꽃, 그리고 인적 드문 숲길에는 춘란이 촉을 틔웠겠다. 꼰꼰이 주걱도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고. 꽁꽁 언 땅속에서 기적처럼 새싹을 틔우는 너희의 아름다움은 도심의 현란한 문화에 길들여있는 사람은 맛보기 힘든 자연이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다.

너희가 겨우내 준비한 그 애틋한 생명을 꽃피우는 동안 우리 인간들은 너희들의 터전을 뚫고 지나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사가 강행되면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너희 터전의 심장부를 뚫고 고속철이 지나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모두는 지금 나처럼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다가 말라서 죽고 말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너희는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지를 고민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16일째 굶고 있다. 입술이 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며 편리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너희들이 느낄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해 갈 뿐이다. 말 못하는 너희들을 대신해,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스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주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을 절감한다. 이대로 있다간 너희들의 생명이 무참히 스러질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산을 떠나 길거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너희를 지켜줄 어떤 약속도, 대답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식의 배고픔이나 노숙의 추위와 소음보다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이곳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또 한번의 약속을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 빨리 반가운 소식을 들고 너희들에게도 달려가고 싶다. 너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화엄벌에 가득한 봄기운을 온 몸으로 맞이하고 싶다. 2003년 2월19일 지율 합장

오늘도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지만 대답없어 배고픔 · 추위보다 더 힘들어

지율스님 단식기도 일지

▶14일 울산 관음암 대활스님 부산역~시청까지 1인 마라톤

▶15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음악회 — (사)대불청 부산지구, 부산청년불자산악회

▶16일 작은 악기 고운 소리 오카리나 연주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범어사 전 주지 정관스님 방문

▶18일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 공약 실현을 위한 미사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환경 기도법회- 통도사 사부대중

▶19일 자전거 시위 -부산시여성자전거협회 공약 실현을 위한 합창제 — 부산시불교연합합창단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방문

▶20일 통도사 소임 스님 릴레이 단식 동참 조계종 환경위원회지지 성명서 발표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 방문 박주미 부산시의원 단식 동참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법장스님 방문

전통차례 '세시차회' 재현

헌공다례 · 접빈다례 두가지 선보여 차다리는 방법 등 일반 다례와 달라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차회(歲時茶會)가 울산에서 재현됐다.

무산스님(세계다담선류다도회 회주 · 경주시 월성동 해회선원 회주)의 진행으로 10일 울산 정광사(주지 도정)에서 열린 이날 세시차회는 다례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됐다. 박용섭씨(중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의 대금연주가 곁들여진 가운데 헌공다례와 손님을 맞는 접빈다례 2가지를 재현했다.

이날 선보인 세시차회의 접빈다례는 차를 다리는 방법에서 팽주의 태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다례와는 크게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막연한 덕담이나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아 포부를 밝히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이다.

무산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차회 다례는 임금이나 신하, 백성들이 지난 한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해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마땅히 이어 나가야 할 전통"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북문화재 예산 611억 사찰관련 전체 13% 81억

경상북도는 최근 전국 문화재예산 중 21%에 해당하는 국비 3백 52억원을 확보해 경상북도의 전체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모두 6백 11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사찰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체의 13%인 81억원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는 37억원을 들여 유물전시관 4곳을 건립하고, 19억원으로 상주시 상오리 7층석탑의 안전진단 실시, 경산시 환성사 돌일주문 복원에 2억5천만원, 군위군 인각사지 발굴조사에 1억4천만원, 은해사 거조암 발굴조사에 2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문화재 정비에 나선다.

이와함께 경상북도는 239억원으로 전통가옥 정비, 117억원을 들여 경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을 실시, 천연기념물과 사적지 정비에 101억원, 서원과 향교 정비에 35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통도사 박물관대 연구반 50명 수료식

문화해설 · 포교사로 활동

통도사박물관대학(학장 범하)은 14일 박물관문화센터에서 2003년도 수료식을 가졌다.

불교문화와 전통 문화 전반에 걸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문화해설사 및 불교포교사로서 자질을 갖추게 된 수료생들은 연구반과 4기생을 합쳐 50여명. 우수한 강사진의 이론 강의 뿐 아니라 실기와 정기적인 현장답사를 통하여 강단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실체험 강좌에 역점을 두고 있는 통도사박물관대학은 수료식에 이어 5기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2월말까지 학예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메일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한편 통도사박물관은 새해를 맞이하여 홈페이지(http://www.tongdosamuseum.or.kr)를 새 단장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일문과 중문 홈페이지를 새로 추가해 불교문화와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게 되었으며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한국의 불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추가했다. 055)384-0010

천미희 기자

'우리문화재의 美' 사진전 대구 박물관, 26일부터

국립대구박물관은 사찰의 단청과 벽화, 불교 석조미술, 국보급 문화재, 전통건출 등을 소재로 한 '우리 문화재의 美' 사진전을 개최한다.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회는 현시대 대표 문화재전문 사진작가인 관조스님, 안장헌, 김대벽, 한석홍 4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관조스님의 <여수 흥국사 대웅전 천장화>, 안장헌씨의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김대벽씨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한석홍씨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34점이 출품돼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멋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구 기자

김해지역에 불교교육바람

반야불교대학 · 근본불교학교 개설 … 내달 개강

김해지역에 불교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신어산 반야암(주지 은하)이 '반야불교대학'을 다보선원(지도법사 빅쿠 분하파라)이 근본불교학교를 개설한다.

3월 4일 개강하는 반야불교대학은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찰예법,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수행법, 경전강독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수업은 매주 화,목요일 저녁 8~9시30분 실시되며 강사는 반야암 주지 은하스님이다. 문의: (055)337-0108, 0180

다보선원 근본불교학교(교장 송동희)는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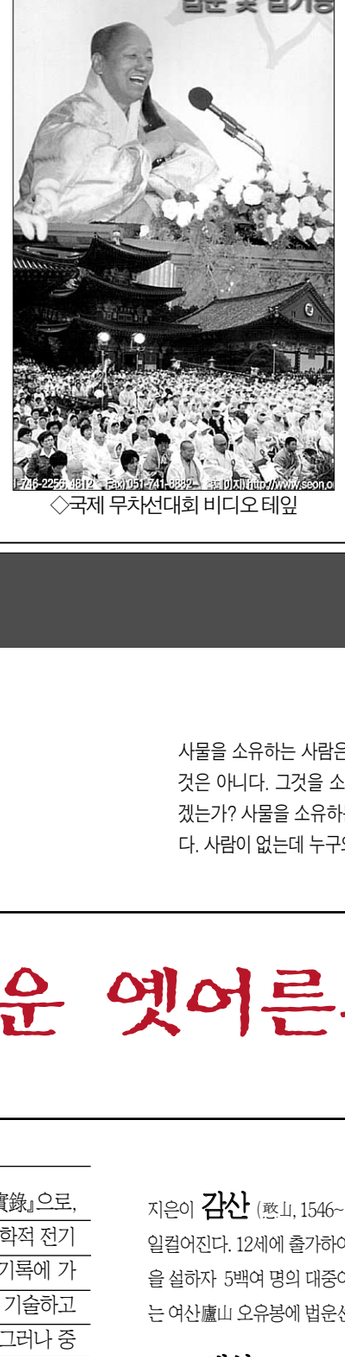
매주 금 ·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근본불교학교에서는 위파사나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한편 불교의 사유체계, 철학적 관점에 대한 교습도 진행된다.

또한 부처님의 생애, 불교예절, 불교 발생의 사회적 배경과 한국과 인도 불교사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대한 특강도 마련된다. 문의 (055)331-6118.

김원우 · 천미희 기자

한중일 무차선대회 실황 비디오 · CD로 제작

지난해 10월 20일 동양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룬 국제적인 무차선회로 관심을 모았던 해운정사 국제무차선법회 실황중계 비디오와 CD가 제작됐다. 해운정사는 1만여 불자가 운집했던 무차선법회를 다시 돌아보고, 특히 이목을 집중했던 선사들의 법거량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비디오와 CD를 제작, 보급한다. 비디오에는 서옹 스님의 법문, 진제 스님의 법문 및 법거량이 90분 분량으로 담겨 있다. 문의: (051)746-4812 천미희 기자



◇국제 무차선대회 비디오 테잎

경북 군위 공무원불자회 잇달아 출범

군청 · 경찰서불자회 창립법회

경북 군위군에 두 개의 공무원 불자단체가 잇따라 창립해 지역불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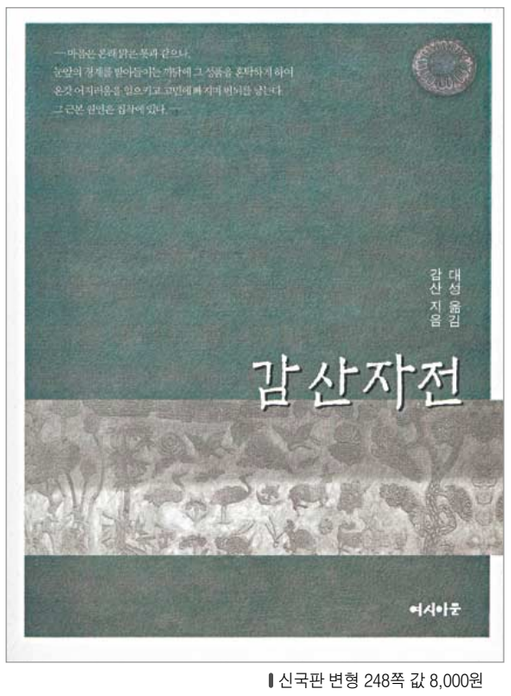
군위군청 불자 공무원 30여명은 18일 지보사(주지 행훈)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송자(군위보건소 예방의약계장)회장을 추대했다.

이어 19일에는 군위 경찰불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경찰서 불자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창립식에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하면 불자회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박원구 기자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조계사, 인터넷 방송국 개국

조계사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사이버 포교에 적극 나선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17일 홈페이지(jogyesa.or.kr) 개편 설명회를 갖고 새신도 포교와 젊은층에 다가가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조계사방송국을 개국한다고 밝혔다. 조계사 방송국은 대웅전에서 열리는 각종 법회나 강좌를 생방송하고, 신도들이 자체 제작한 라디오 tv 프로그램도 방송할 계획이다.

또 방송국에는 각종 불교관련 동영상 자료실과 노전 본오스님의 독경CD와 조계사 합창단의 찬불가 파일을 제공하는 음악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기존의 홈페이지도 자체서버를 구축하여 용량을 늘리는 한편 회선속도를 강화하여, 불교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새로 선보였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내에 조계사 관련 60~70여개 카페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고등 학생회 및 대학생회, 청년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방과 토론실을 신설했다.

해외포교를 위해서도 영문사이트를 구축, 한국불교 및 조계사 알리기에 나섰다.

조계사는 상반기 중 사이버불교대학도 개교, 직장인이나 해외교포들이 인터넷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불교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인터넷 방송국 초기화면.

불자 참여 확대, 커뮤니티 강화
영문 페이지 구축, 해외포교 역점

주지 지홍 스님은 "젊은층과 해외포교에 역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해 사찰 홈페이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월정사-상원사간 도로. 사진제공=국시모

월정~상원간 도로포장 신중해야

차량통제계획, 생태계영향 검토키로

평창 월정사 상부에서 상원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지방도 446호선. 7.2㎞) 포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19일 오대산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상원사간 도로 포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월정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관계자 30여명은 △지방도 44호(간평리~명계리)를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일반 차량 이용 전면 통제를 정부에 건의 △월정사~상원사간 도로에서의 탐방객 관리 및 차량 통제 계획 수립 △도로 포장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비포장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정권 계장은 "월정사~상원사간 도로는 비포장으로 인한 먼지발생 및 생태계 훼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월정사~상원사간 도로는 규정상 6호 국도와 56호 국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돼 있어 전 구간 도로 포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월정사~상원사간 도로포장은 △기존 개설된 도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2개소에 대해서만 하천쪽으로 옹벽을 설치해 공사를 해야 한다 등을 단서조항으로 해 2002년 9월 26일자로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이 났다.

남동우 기자

전남 동부 30여단체 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세가 미약한 호남 동부지역 불자들이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섰다. 순천 송광사, 선암사, 구례 화엄사 등 전남동부지역 신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여수·순천지부, 중·고교 불교학생회, 불자회, 대한불교청년회 전남지구 등 30여 불교단체들은 15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동부지역 불자연합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회장에는 최경태(사진)씨를 추대했다.

이날 창립법회는 송광사 주지 현봉, 화엄사 주지 명섭,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 조충훈 순천시장, 이홍제 순천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스님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전남동부불자연합회가 호남지역의 불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경태 초대회장은 "지역 신행단체간 교류와 협력, 연대를 통해 다양한 신행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불교를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복지, 환경보호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동부불자련은 향후 구례, 보성 등 인근지역의 불교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한편, 포교활동 지원, 불교대학 설립,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백양사 수행환경 훼손위기
전차포 사격장 이전 논란

장성 백양사 인근 전차포 사격장 이전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육군기계화학교는 지난 10일 지역주민에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흥리와 담양군 월산면 신계리에 전차포 사격장을 설치하겠다는 요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천년고찰인 백양사와 용흥사 중간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청도 15일 이전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백양사 사회국장 진우스님은 "백양사와 용흥사에서 4~5㎞ 떨어진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수행환경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기계화학교 부학처장 이근직 중령은 "이전 계획은 가안이며, 예정 부지가 장성군과 담양군 소유의 땅이어서 양군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우정국 시민광장 5월 완공

조계사 옆 우정총국 주변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오는 5월 완공하겠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견지동 39-7번지 우정총국 건물 주변에 마련할 시민광장은 1천930여㎡ 부지에 소나무 등 14종 2천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우편을 테마로 한 편지의 자' 등 편의 시설과 조형물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56억9천만원을 들여 조계사 주변 문화재 정비사업을 지난해부터 벌여왔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불자다운 삶' 말없이 실천

일산 원각사 박영애·권영순 신도회장

일산 신도시 건설 붐을 타고 96년 도심포교당으로 건립된 통도사 일산분원 원각사(주지 정각)는 신도가 많은 사찰로 유명하다. 법당관리를 도맡은 지장회, 꽃꽂이팀 향원회, 합창단, 불교교양대학,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보리수회 등 팀별 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높인 결과다. 게다가 신도들은 법당관리, 공양물 준비, 종무소 운영 등 자율적으로 사찰을 운영해 남다른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신도들의 자율적인 사찰 운영에는 박영애(70세, 환희주), 권영순(66세, 마하연) 신도들의 활동을 묵묵히 뒷바라지 하는 것이 박영애, 권영순 두 신도회장의 몫이다. 게다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법당청소와 공양간 뒷정리까지도 어머니 같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1주일에 한번씩 찾아가는 일산종합노인복지관 자원봉사와 2주일에 한번 열리는 꽃꽂이팀 모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향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교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

신도들의 활동 묵묵히 뒷바라지
항상 자신 낮추고 기도하며 살아

신도회장, 김미숙 총무, 이영숙 재무 등 신도회 임원들과 법당관리팀 유정희 편재희보살, 향원회 최상이 김농옥보살, 합창단 지영분 보살, 불교대학 장선희 김순복 박준희 박성희 박신영 보살 등 많은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예불로부터 취침에 드는 시간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중 일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인 활동으로 원각사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영애, 권영순 두 신도회장의 활동은 단연 돋보인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기 위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회장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박영애 회장은 매일 아침 천수경과 지장경 독송으로 아침을 열고, 권영순 회장은 천수다라니 기도와 법화경 사경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기도를 하면서 충만한 자신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권영순, 박영애 회장은 "새로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바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원각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기자


◇박영애(앞줄 오른쪽 세번째)·권영순(앞줄 오른쪽 두번째) 신도회장을 비롯해 자율적인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도들이 사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추천의 말

정각스님 원각사 주지

작은 일까지 처리, 좋은 귀감

박영애, 권영순 신도회장은 원각사 불자들로 하여금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불자들입니다. 이사가 잦은 신도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두 회장 덕분이지요. 사찰의 작은 일까지도 두 신도회장을 중심으로 각 팀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회장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요.

육임학당 「曉史塾」 제 5기 강의 안내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 5기 육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사주(四柱)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3개월 공부하여 육임 비술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활인천역자로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단, 돈만 낸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활인 천역자로서의 기운을 따져 크게 쓰일 분만 선별 입강시키고 있습니다.

◆ 개강일시 :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오행기초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매주 사전교육함)
◆ 강의장소 : 서울 수유리 소재 강북구청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8번 출구 강북구청 마주보고 오른쪽 첫건물)
◆ 강의비용 : 1백 5십만원(전국 육임학당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드림)
◆ 강의기간 : 3개월 52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기초자는 3시부터)
◆ 대 상 : 스님·신명제자·오행가·명상가·기공가 ·목사·신부·수녀
◆ 강 주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 마 감 : 2003년 3월 3일 까지
◆ 문의전화 : 02-993-333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각지역 동시 개강 안내
육임학당 인천숙 (강주 : 자우스님) 011-729-6011
육임학당 부산숙 (강주 : 단곡법사)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강주 : 월사선생)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강주 : 상화선생) 011-650-8835
육임학당 진주숙 (강주 : 남곡선생) 011-567-1641 효사 출장강의 함
육임학당 광주숙 (강주 : 유선선생) 011-9606-7090 효사 출장강의 함

「육임학당 효사숙」강의안내
3개월 52시간 수강으로 육임비술을 자신있게 펼칠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효사육임강의록」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의합니다.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값2,500,000원 부록·비디오 全12권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산소탈·부정빌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 해소 법이 구체적으로 체출되어 있는 비기서! 이 책은 3년간 정확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책은 공부않고 볼 수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신수비결 값250,000원 全753페이지
아주 쉽게보아, 큰행사에나 참례하는 잠자는 많은 신도들을 1년내내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서! 정초에 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개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 직분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서! 이 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값300,000원 全1163페이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각 주요도시에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 편이 백미입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값900,000원 全28개
「육임학당효사숙」 제 1 기 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 이정표! 「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희귀품!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CD 값2,000,000원 全1개
온(전화) 시간만 툭 치면 수정보완본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순서 시간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값1,500,000원 총112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 공부가 될수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것입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

고추밭으로 변한 고려왕실 원찰



◇3차 발굴 조사가 끝난 숭선사지에는, 기와편 무더기와 발굴로 파헤쳐진 속살이 비닐로 덮인채 있다.



◇항공촬영한 숭선사지 전경.



◇숭선사의 가람크기를 말해주듯 기와편이 큰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짝을 잃은 외당간 지주가 숭선사지를 알리고 있다.



◇숭선사지를 알려주는 명문 기와.



◇기와연봉 장식.



◇필자와 답사에 동행한 독자가 폐탑을 둘러보고 있다.



비지정 사적지… 역사의 뒤켠 오롯이
금동제 연봉형장식 국내 처음 출토
4짝 당간지주 마을표석으로 전락

중원 땅 숭선사지(崇善寺址)는 폐사지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외짝의 당간지주. 돌멩이보다 더 많은 기와 파편들. 산비탈의 늙은 감나무. 눈보라를 앞세운 신덕 저수지의 갈대들. 이 모든 것들이 비지정 사적지인 숭선사지의 유적들이다. 이름 있는 현존 사찰들만을 찾아가 윤기 흐르는 안마당만을 밟고 오는 사람들은 불교의 참맛을 알기 어렵다. 앞모습이 소중한 만큼 뒷모습도 소중한 법이다. 폐사지는 불교의 뒷모습이다. 세상살이가 시끄러울 때 슬쩍 역사의 뒤켠으로 돌아가 옛 절터를 더듬으면, 거기 이 나라 절집의 영욕들이 오롯이 숨쉬는 추억의 박물관이 있음을 본다.

전국에 널려있는 폐사지들 중에는 이미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수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복원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지들도 있지만,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문숭리 숭선사지처럼 아직 세상에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한 채 세월의 이끼를 뒤집어 쓰고 역사의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비지정 사적지들도 있다.

이번 답사 코스로 아침나절 들렀다가 서둘러 빠져나온 청주 흥덕사지가 인스턴트 식품의 맛으로 답사 뒤의 입맛이 깔깔하다면 숭선마을 숭선사지는 잘 익은 군고구마를 껍질 채 씹은 듯 텁텁하다. 흥덕사지 답사의 뒷맛을 주덕 근처에서 황태조림으로 씻어내고 신니면 면사무소에 도착하자 때아닌 눈발이 눈보라로 그 숫자를 불리기 시작한다. 이 길의 옛적도 그러했을 것이다. 저 눈보라 숫자만큼 많은 중생들이 저 눈보라 숫자보다 많은 사연을 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길을 오갔을 것이다.

숭선사지는 <고려사(高麗史)>광종(光宗) 5년(945) 조에 '춘창숭선사추복비'라고 기술된 바로 그 사찰이다. 태조 왕건의 아들로 고려 제4대왕인 광종이 어머니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원찰이었던 것이다.

숭선사지는 수리산 남동사면에 위치하며 사역은 약 1만여 평으로 산지와 평지의 중간지대인 완만히 경사진 곳에 자리하는 고려시대 가람의 입지를 잘 보여준다. 숭선사지는 1995년 지방사학단체인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해 '숭선(崇善)', '선사(善寺)' 등이 새겨진 기와를 수습함으로써 숭선사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충청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조사가 더 이루어졌는데, 희국사(希國寺)라는 명문 기와가 출토되어 마을에 구전되는 희국사라는 소문과 같이 후대에 사명이 변경되었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결과로 숭선사지는 고려초기에 건립되어 1차로 1182년 (고려 명종6)에 대규모로 중창되었으며, 1579년(조선 선조12)에 다시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숭선사가 처음 중수된 시기는 충주지방의 미륵리사지, 오갑사지, 의림사지 등에서 대규모 중수불사가 이루어졌기에 왕실의 원찰인 숭선사지도 당연히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차 중수기인 조선 선조 무렵에는 '희국사'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이 때 지엽적인 중수와 더불어 사명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왕실의 원찰로 창건되어 18세기까지 사찰의 경영이 계속되었던 숭선사의 폐사 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불탄 기와 등이 다량으로 수습된 것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시기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숭선사는 바로 왜군의 북상로에 위치했고, 탄금대가 멀지 않아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던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현재 숭선사지는 발굴된 사역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역의 일부를 비닐로 덮어 놓았다. 아직 비지정 사적지이기에 곧이어 농번기가 다가오면 다시 사지는 사적지가 아닌 고추밭이 되어야 하고 담배 밭이 되어야 한다. 근처 절터 진입로에서 땔감을 톱질하던 촌로는 골짜기 전체가 사지이고, 마을회관 앞에 돌기둥처럼 생긴 당간지주가 있다고 일러준다.

그동안 숭선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금동제 연봉형장식. 연봉이란 기와 고정못의 부식을 막기 위해 쇠못을 덮어씌우는 꽃봉오리 모양의 물건을 말하는 것인데, 전례가 없는 국내 최초의 것이다. 이것은 창건 당시 금당의 지붕 윗면 가장자리에 박혔던 와정을 금빛 찬란한 연봉형 장식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을 사찰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지 위쪽에는 발굴 작업에서 나온 기와 조각과 백자 파편들을 낟가리처럼 쌓아 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와 조각이 출토되기까지 무심하게 고추농사, 콩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네 농민들의 무덤덤한 문화적 안목을 읽게 해준다.

마을조차 절 이름을 따 '숭선마을'이라 불리는 예사롭지 않은 이 폐사지에는 이정표인듯, 마을의 표석인 듯 외짝 당간지주가 마을 한켠 길옆에 서 있다. 짝은 일제치하에서 저수지 다리를 놓느라 끌어가 수심 깊은 곳 어딘가에 수장되어 있고, 혼자 남은 기둥도 그 당시 도끼로 맞은 정강이의 상처가 아직도 선연한 채 번(幡) 대신 눈바람을 펄럭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충남 서산 보원사지편
사진=고영배 기자

숭선사지 가는길

숭선사지는 충북 중원군 신니면 문숭리 숭선마을 862-2번지에 위치한다.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천 IC에서 3번 국도를 따라 충주로 가다가 주덕에서 신니면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된다. 충주 쪽에서는 3번 국도를 타고 서울방면으로 22㎞ 정도를 달리다가 신덕저수지(일명 용원저수지)가 보이면 동락초등학교 오른쪽을 돌면 된다.

禪 2003 학년도 禪
불교 茶人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교 신입생 모집

학 과	요 일	기 간	개 설 과 목	비 고
기본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2시	2년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1), 제다학(2), 제다학(3), 제다학(4) 한국의헌다례, 각국헌다례, 다와정신, 다구학, 차와선 차도문헌, 차식물학, 차성분학, 차품평학, 차시장학, 사찰다도법	기본과정 50명 지도자 과정 50명
지도자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4시	2년		기본과정 이 수 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3월 8일(토)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2003년 3월 11일(화) 오후 2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이수 후 다도포교사, 법사 수여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茶 불교다도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茶道학교 道

불교지도자과정(3년) 2003 학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 설 경 전	교 수	비 고 (개 설 과 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1)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 · 팔리원전)	숫타니파타 1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송반야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2)	송찬우	능엄경(1)(2)(3) (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37조도품)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3년 2월 1일~ 2003년 2월 28일(금)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3년 3월 3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3년 3월 6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3년 3월 4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특 전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 [불교교육단체연합회 법사고시를 거쳐]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경전)대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구수성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제16기 신입생모집
입학일시 : 2003. 3. 14(금) 오전 10시
전화 053)784-8620

"우리 내면부터 변해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설치미술로 환경 지킴이 나선

최병수 씨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만난 최병수 씨는 자신을 환경운동가·투쟁가라고 소개했다.

걸개 그림 통해 세상에 알려져

최병수(44).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낯익은 이름. 그는 화가다. 사람들은 요즘 그를 설치미술가라 부른다. 하지만 정작 그는 환경운동가이자, 투쟁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가 만들고 그린 것들은 예술작품이 아니다. 투쟁의 수단일 뿐.

"애초에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겠다고 그림을 시작했으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제 생활입니다. 그림과 조각은 그 싸움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거치는 대학이나, 화단의 계보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그의 그림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거침없다. 노동판을 돌아다니며, 좋아하는 그림 그리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보통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당시 시위 중이던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린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걸개 그림. 80년대 후반 뜨거웠던 광장의 함성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익숙한, 너무도 암울했던 시대의 아픔을 표출했던 걸개 그림을 통해 '최병수' 그는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너무 화가 나고 애가 타서 그린 거예요. 독재와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냐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들 했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았는데, 1년간 일체 응하지 않다가 어느 일간 신문 기자를 만났는데, 대뜸 묻는 말이 '어느 대학 나왔냐?'는 것이었죠. 중학교 2학년 중퇴다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후후후."

그는 88년부터 97년 까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칼이 필요하면 칼을, 도끼가 필요하면 도끼를, 솟대가 필요하면 솟대를 만들었다. 작품의 소재를 가리지 않는 그는 심지어 얼음 조각까지 만들어가며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공부의 과정이었다.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에 눈을 뜬다. 인간과 자연, 아니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자고. 전쟁에 반대하고, 핵개발에 반대하고,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며 그는 점점 투쟁가가 되어갔다. 그림으로 조각으로 하는 독특한 투쟁.



◇최씨에게 그림과 조각은 온갖 불의와 사회 비리에 대한 투쟁의 수단이다. 연어를 조각중인 최씨.

새만금 간척지 솟대 세워

그가 2000년 전북 부안 새만금에 세운 솟대는, 우리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어민과 농민을 모두 죽이고 갯벌을 생매장 시키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만든 갯지렁이, 게, 굴, 조개, 망둥어 솟대.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들과 나란히 선 그 솟대들은 새만금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새만금에 세운 솟대. 갯벌을 생매장 시키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사진가 허철시)

그의 투쟁은 예측 불허의 경지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NGO 대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 대회장 앞에서 녹아내리는 얼음 펭귄을 조각했다. 펭귄목에 '남극의 대표'라는 목걸이를 걸어놓았는데, 미국 국무장관 파월이 연설하는 날에는 너무 '열'이 받아서 하루 동안 총 100마리의 얼음 펭귄을 조각해 그들이 걸어 다니는 계단에 죽 늘어놓았다. 당연히 온몸에서 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리는 펭귄을 보며 많은 이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얼음 펭귄(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되는 펭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환경을 포기하면 결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 미대사관 앞에서 '오일 깡패'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부시 가면을 쓰고 기름통을 짊어진 그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려는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는 올해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CO_2) 발생량의 25%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해수면이 높아져 땅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피해국이 바로 남태평양의 투발루공화국입니다. 국토가 물에 잠겨서 국민들이 뉴질랜드로 피해갔죠. 세계 최초의 수몰 국가인 투발루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수위표시를 해 놓은 다음 이렇게 써 붙일 예정입니다. '부시야, 뉴욕도 곧 이꼴난다. 투발루공화국 일동'하고요."

"지구 온난화와 싸우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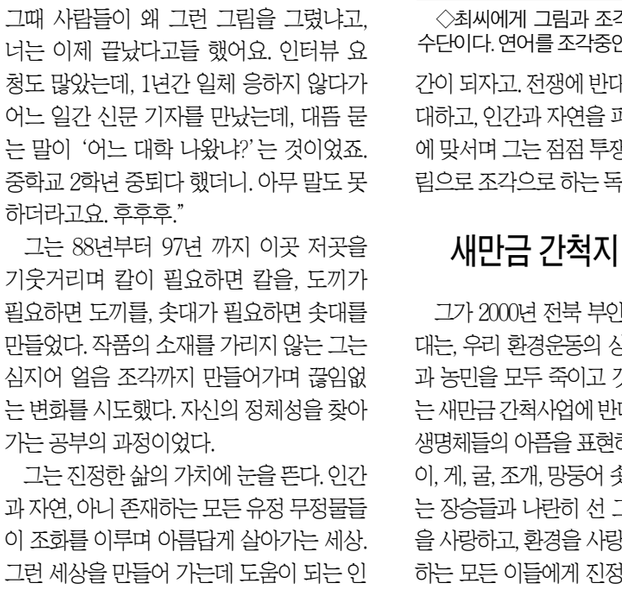
뉴욕에 이어 우리나라도 10대 저지대 국가에 속한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세계 11위이니 언제 우리도 투발루 같은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이 땅의 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언젠가 대한민국이 그 자취를 감춘다고 생각해 보라. 끔찍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핵전쟁을 제외하고 지구온난화보다 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만한 것은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예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잡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까지 감축의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불참할 경우 교토 의정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는 지난해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북한산 철마선원에 망루를 세우고, 서울의 심장인 북한산에 터널을 뚫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끝까지 저항했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환경단체들과 정부의 대안노선 설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는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대안노선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만든 망루는 북한산 관통도로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아직도 그와 함께 북한산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화내고, 소리지르고, 타협하지 않아서요. 할 수 없죠 뭐. 단점도 많지만 그게 바로 '나'인 걸요. 우리 내면부터 변화시켜야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건 바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세상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다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정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될 겁니다. 그걸 막아야지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道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대혜종고 지음 · 김태환 해설 / 신국판 / 값 8,000원

『서장書狀』은
『대혜서大慧書』,『대혜서문大慧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고(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禪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고는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는 목소리가높은 요즘이야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 공부를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 『서장』의 장점

–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조사선이니 간화선이니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고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안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피력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릴레이 수행일기 〈下〉



주영배
보안기획 대표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이 있다. 스님이 연산동의 어느 사가(私家)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뵈었는데, 스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글 한자 적어야겠지. 어떤 글을 써 줄까?"하시면서 붓과 종이를 꺼내셨다.

당시 <서산대사> 전기소설을 읽고 있던 필자는 책에서 본 '心空及第者須大丈夫漢(마음의 공한 도리에 급제한 자(깨달은 자)가 진실로 빼어난 대장부다)'이란 글을 써달라고 했다. 스님께선 망설임 없이 '心空雖道修不級觀自在'(마음의 공한 도리에 급제한 자라도 자기의 자성을 깨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써 주시면서, "자네, 이 도리를 알겠는가? 차 한잔하세. 말미에는 벽산(碧山) 대거사(大居士)라고 했네" 하며 웃으셨다.

스님께서는 항상 "대장부의 기상은 하늘을 찌르니, 비록 부처와 조사가 간 길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말라." 하시면서 "앵무새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러 주셨다.

어머니 위한 사경, 환희심 솟아
'간절한 기도 가피' 생생히 체험

화두 참선만이 제일이고 다른 것은 믿을 바 못된다고 여겼던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결혼 전 아내와 사귈 무렵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법화경>을 사경해 드리자 약속하고 퇴근 후에 집에서 아내는 한글로, 나는 한문으로 매일 일정 분량씩 정성들여 사경하였는데, 제2 방편품에 이르러 갖가지 중생들이 가지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대목에 이르러 마음이 후련해지며 환희심이 솟아올랐다. 이를 계기로 기도를 하건, 독경을 하든 염불을 하든 누구든지 그 분상에서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며,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9세때 시련이 닥쳐왔다. 3월에 갑자기 허리통증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허리 디스크에 걸린 것이다. 부산에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 허리를 못 쓸 수가 있으니, 8월까지 수술 일정이 잡혀있지만 5월에 특별히 해 줄 테니 꼭 수술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 몸에는 칼을 대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해결 하리라'는 오기가 솟았다. 전생의 업연이거니 싶어 지장보살을 계속하여 불렀다.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장보살을 부르고 발원하였다. 10일 쯤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아내의 한 친구가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었다. 천태종 구인사에 다니는 보살님이었는데 기 치료, 지압과 무염식으로 돌보아 주고 계시는 분이다. 치료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스스로 일어 설 수 있었고, 한 달 보름 만에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지만 허리에 통증 한 번 없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든지 꼭 가피를 입는다고 본다. 필자는 95년 18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불교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향 싼 종이에 향내가 나듯 늘 불교 경전과, 스님, 절과 가까이 있으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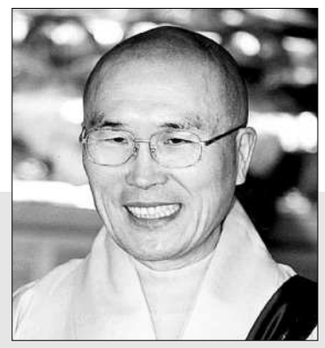
※다음 호 필자인 서울메디칼(주) 이인재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마음 경영에 힘을쏟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용타스님과 함께한 대불련 수행학교



마음 알고 다루고 나누기



동사섭법회 회주 용타 스님

"자신을 얽매는 사슬 끊는것이 긍정명상"

2월 1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 대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원 40여 명이 3박4일간의 '수행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행학교'는 대불련이 매년 1차례 여는 수련회로, 올해는 용타 스님(동사섭법회 회주)을 지도 법사로 '활불교의 관점으로 보는 사성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입제식이 끝나고 강의실에 모여 앉은 회원들에게 용타 스님은, 이번 수련대회의 가장 큰 주제인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해보고 그 주제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했다.

"키가 작다, 돈이 없다, 성적이 낮다는 식의 불행 조건을 찾지 말고 '몸이 건강하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등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묘책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살피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분법 아닌 긍정적 생각해야
10바라밀 통해 '나'라는 행복주체 인식

스님의 말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좌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20여 분간의 명상이 끝나자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다른 참가자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평소 행복이라는 감정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도 서툴렀던 참가자들은 명상과 대화가 반복될수록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보였다.

스님은 "우리는 너무 큰 행복을 바라고 산다. 행복의 기대선을 낮추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지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사에 '된다, 안된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이만큼은 된다'는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될 때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발견(인지)하고 느끼고 표현함'이 자신과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해탈케 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둘째 날 강의는 '활불(活佛) 선언'으로 시작됐다.

"활불인 나는 온중생의 해탈을 위하여 10바라밀을 궁행하리라."

이 선언은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임을 느끼고 자신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수행 방편이다. 활불선언을 통해 내 행복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 용타 스님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진을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10바라밀 실천'으로 정의했다.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등의 8정도에 6바라밀 중의 보시와 인욕을 더한 10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활불교(活佛敎)'라는 것이다.

마지막 날 강의 주제는 '회향하는 삶'.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느낀 것을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성종희(22) 대불련 영주지부장은 "처음에는 내가 부처라는 말이 와 닿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가슴으로 느끼게 됐다. 순간순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곧 활불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행복의 조건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진을 해나가겠다"는 한 참가자의 말처럼 수행학교 참가자들은 자신이 부처라는 진리를 깨닫고 매일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괴산=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긍정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 개념이 애매하거나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인 셈이죠. 자신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음으로써 심리적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20여 년 간 동사섭(同事攝)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용타 스님(귀신사 회주)은 "행복은 마음 상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마음 살피는 일이 곧 수행"이라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사람들과 수준 높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동사섭이란 사섭법(四攝法-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중의 하나로, 동사섭법회에서는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수련을 통해 다른 이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순간 자신을 점검해야하며, 5계와 8정도, 6바라밀 등을 점검표 삼아 삶을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스님은 "얼마나 베풀고 사느냐는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느냐와 같은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곧 생각하고(思) 말하고(言) 행동하는(行) 것이라면 순간순간 습관적 대응을 탈피하고 바른 궤도로 이끄는 것이 바로 활불교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수행 캘린더

■만일염불 1000일째 법회=만일염불결사회는 3월 2일 오전 10시 만일염불 1000일째 법회를 연다. 만일염불결사회 회주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의 지도로 염불정진 및 수행도중 의문사항 문답으로 진행된다. (031)723-9797

■구도회 불교 공부=서울 구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불교공부 모임을 갖는다. 첫째주 동국대 정병조 교수의 '육조단경', 둘째주 동국대 권기종 교수의 '아함경', 셋째주 인환 스님의 '선의 이해', 넷째주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원효사상'. (02)3411-6167

■심념처(心念處) 수행=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4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한다. 묘원 법사의 지도로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과 마음의 작용 알아차리기 △마음의 창으로 알아차리기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등을 수행한다. (02)3462~4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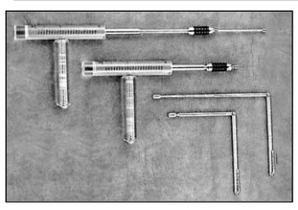
■주말 경전공부 수련회=호두마을(www.vmcwv.org) 정원 상임법사는 2월 28일부터 3월2일까지 주말 경전공부 수련회를 연다. <대념처경> 등 경전공부와 위빠사나 수행을 겸한다. (041)567-2841

■아나파나사티 수행=연방죽선원(cafe.daum.net/lotuspond)은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나파나사티(출입식념) 수행을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불교와 수행'에 대한 법문,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정진도 한다. (02)334-1763

■심성개발 프로그램=우곡심성개발연구원(www.wookok.org)은 교원직무연수 과정(2 박3일~4박5일), 직장 직능단체연수 과정(1박2일~5박6일), 일반인을 위한 수련과정(1 박2일~1개월),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1박2일~1개월) 등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인성정립-수행 및 실천-이치 설렵-지혜로운 삶의 단계로 진행된다. (051)740-6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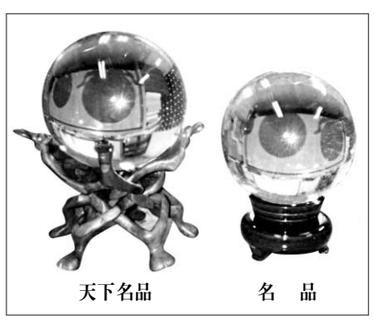
■선문장(禪門莊) 수행=금강선원은 홍천 선문장(禪門莊)에서 정진할 재가불자를 모집한다. 조석예불, 참선강의, 좌선, 행선, 묵언, 오후불식, 스님과의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033)433-5845

수맥, 명당찾기
전자로드, 피라미드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 전자로드(1Set) : 350,000원
· 전자로드(1개) : 180,000원
· 수정추 : 45,000원
· L-로드 : 20,000원
· 피라미드 : 350,000원
· 파워봉 : 220,000원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용받침대 : 5만원 별도)

名 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 예언,예측수련
·氣건강수련 · 소원성취
·만사형통 · 복부풀기 · 명기풀기
·차크라수련

50억년 전에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에너지를 많이 받는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점성가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 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 팜플렛을 보내드립니다)

韓國氣研究院
☎ 02) 455-6944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자고나면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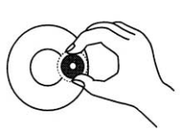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지원납품처 경희한방병원원목실, 광시한의원, 현대의원, 태웅한의원, 그랜드약국

배꼽다이어트 탄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히트!!!
⊙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 이학박사 "사카이 미쯔루"증언
⊙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날씬, 냉증
정가 : 69,000원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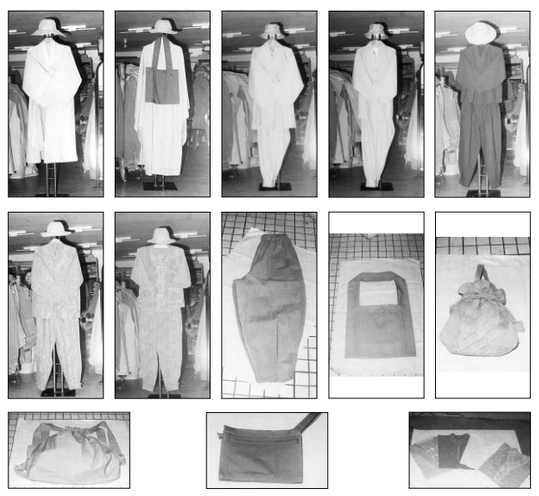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 자연목초 ◆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김건순

☎ 02) 453-5851

봉은승복사 찰신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가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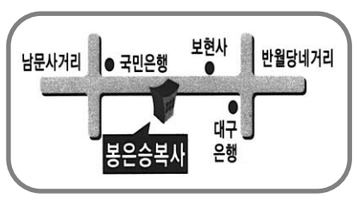
◈ 모직혼방
1. 두루막 110,000원
2. 장 삼 150,000원
3. 동 방 130,000원
4. 적 삼 90,000원
5. 개량복
(여) 80,000원
(남) 90,000원
6. 조각면(쪼끼, 바지) 50,000원
7. 반가사 50,000원
8. 대가사 80,000원

◈ 천연염색
9. 티(T) 15,000원
10. 바 지 20,000원

◈ 가 방 류
11. 수 대) 20,000원
12. 바 랑) 20,000원
13. (스님손가방) 15,000원
14. (보살손가방) 15,000원

◈ 취급품목 ◈
가사 · 장삼 · 모시깨끼, 두루막, 누비

봉 은 승 복 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바라밀현장

‘이공회’의 장애아 엄마되기

“아이들 자라는만큼 보람도 자라요”

엄마의 사랑 심으며 허드렛일
회원 6명 출발, 매주 2~4곳 봉사



◇18일 서울 상락원에서 장애아들과 놀아주고 있는 이공회 회원들. 사진=박재완 기자

“아빠, 아빠!”

18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장애아 시설 상락원(常樂院). 1층 보련방에 아빠처럼 생긴 기자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아빠’를 외치며 달려든다. 뇌성마비 2급 장애아인 민아(5)는 남자 아이들보다 더 막무가내로 매달린다. 매일 엄마들만 보다보니 아빠가 그리웠나 보다.

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스님)이 운영하는 상락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약 90%)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가정으로부터 데려온 장애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이날 찾아간 상락원은 어두운 분위기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60대의 엄마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보련방의 아이 10명은 어릴적부터 뇌성마비에 걸린 소윤(5)이, 다운증후군에 걸린 지민(4)이, 선천성 심장병에 걸린 세련(3)이를 비롯해 정신지체, 자폐증,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갖고 있었다. 어릴적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라서인지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몸짓이 여느 아이들보다 절절했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안아주면 안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너무 많이 안아주면 나중에 더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품에 와서 안기는걸.”

매주 화요일 상락원에서 주방 일이나, 청소, 아이들 돌보기를 하고 있는 ‘이공회’(회장 이화순) 회원인 황옥순(64 · 서울 용산) 보살은 3년전 처음 왔을 때는 표정이 어두웠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즐겁다고 말한다.

“뇌성마비(1급)로 걷지도 못하던 태준이가 5살이 되어 걷게 되었을 때는 친부모처럼 기뻤어요.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 방문하는 우리 엄마들을 보면 한시도 안떨어지려 하죠.”

원영화(용인 수지) 보살은 ‘봉사하며 어려움을 없었냐’는 질문에, “매번 아이들을 돌보러 왔다가 오히려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 돌아가는 걸요.”라며 정색을 한다.

상락원에는 83명의 지체-시각-정신 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24시간 보호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안기와 눕히기 등 기본적인 활동에서부터 식사, 대소변, 목욕 등 아이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이곳 상락원에도 사찰 · 단체에서 온 200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능숙한 솜씨의 보육교사 33명이 8개의 방마다 두명씩 배치돼 있지만, 10명을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허드렛일을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수적이다.

2000년 4월 1일부터 상락원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공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 교육’ 20기 졸업생 6명이 만든 미니 봉사모임. 6명의 회원들은 모두 원찰을 갖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매주 2~4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보현행자들이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바쁜 주부임에도 24시간 근무체제의 상락원 교사들과 함께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공회 회원들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千手千眼)과 다름없었다.

상락원 사무국장 지웅 스님은“두 팔과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한 팔과 등 한쪽을 살짝 빌려 줌으로써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길, 자비의 손길로 감싸달라”고 당부했다.

후원=(02)921-6410, 641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이공회’ 만든 **원영화** 보살

날마다 보시행 ‘즐거워요’

2000년 4월 ‘이공회’를 만든 원영화(62) 보살은 봉사에 헌신할뿐 아니라, 78년 강남 봉은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연구원과 전통불교연구원에서 20여년간 경전을 공부할 정도로 교리에도 해박하다. “보시는 온갖 선행의 으뜸이 되어 끝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나니 억만금을 보시하고도 딴 생각 갖지 않으면 기쁨은 나날이 더욱 늘어나리라.”는 경전 가르침을 기억하며 보시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한다.

자제정사의 노인 목욕봉사와 총지종 노인복지센터의 무료급식, 마포복지관 수지침 봉사, 상락원 봉사 등 네 군데의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니다보면 1주일이 후딱 지나간다. “날마다 하는 보시행이 즐겁다”는 원 보살은 자녀를 다 키운 후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40~50대 주부들에게 당부한다. “매일 불교 공부하고 보시행을 해보세요. 나날이 즐거워서 늙을 시간이 없어요.”

心 마음비추기

경전 이해하고 수행으로 돌려야

어느 불교대학 수강생인 여성불자 한 분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차 한잔 하자고 했다. 이 불자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이 어렵다보니 어디에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절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언젠가 어느 스님께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지장경을 하루에 5독씩 1년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낮에 직장에 다니는 터라 시간에 쫓겨도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이제는 경전이 있는 것 자체가 짐이 되어 자꾸만 싫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니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하소연 하는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문제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풀어주어야 할 수행이 도리어 짐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데 있다.

부처님 당시에 ‘애끄다나’ 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애끄다나 란 ‘하나의 게송’이라는 뜻이다. 애끄다나에게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그가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의 게송만을 갖고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애끄다나가 여느 때처럼 숲 속에 앉아 하나의 게송에 마음을 집중하다가 기쁨이 생겨 입으로 크게 읊조리게 되었다. 숲 속에서 갑자기 박수소리와 함께 와! 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숲 속에 사는 나무 신들이 애끄다나의 게송 소리에 감동을 받아 내는 소리였다.

애끄다나는 ‘자기처럼 하나밖에 모르는 게송 소리에도 이렇게 숲 속의 신들이 칭찬을 하니,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는 강사비구들의 게송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환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두 강사 비구에게 그 일을 말했고 그곳에 가서 경을 외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두 강사 비구가 숲 속에서 열심히 온갖 경전을 암송했지만, 숲 속은 고요하기만 했다. 두 강사는 의아해 애끄다나에게 그대가 한번 해보라고 했고, 숲은 앞서처럼 크게 환호했다. 속이 상한 두 강사는 숲을 떠났고, 그 사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무조건 외운다고 하여 공덕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게송이라도 잘 이해하고 수행으로 돌릴 때, 그 가르침이 빛날 것이라고 타이르셨다.

경전은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다. 한 구절 속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깨뜨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열심히 독송만 하면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미신적 믿음과 행위를 그치지 않으면 결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향 선사 (下)

벽안제자 수행 돕는 자상한 어머니

화두 참구가 보살행의 실천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성향 선사는 이 난제를 이렇게 헤쳐나갔다. 그녀는 세계적인 불교잡지 <Tricycl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면, 새로운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하지?’라고. 우주는 매우 관대하죠. 조금만 주의를 귀울여 듣는다면, 그 대답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사명감은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고른 직업과 사명을 명석하게 자비심을 갖고 처리하세요. 어디로 한 발 내딛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펼치되 언제나 ‘이 뭣고?’를 질문하며, 수행해야만 합니다.”

성향 선사는 임종간호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지켜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기직전 스스로에게 “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시간은 다 어디로 가버린거야?”라는 질문도 못한 채 일생을 떠나보내고 만다. 성향 선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죽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향 선사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성향 선사는 봄날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생기 있는 불법(佛法)에 대한 지혜를 숭산 스님으로부터 받아들였고, 이를 다른 이에게 전하려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어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편 성향 선사는, 그들이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었다.

1972년 숭산 선사의 제자가 된 후 30여년간 공부하면서, 어느덧 성향 선사는 숭산 스님을 닮아 있었다. 관음선원 원장 숭산 스님을 보좌한 부원장으로서, 세계 32개국 120여 개 홍법원 산하 5만여 벽안 제자들의 수행 정진을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지도해 온 것이다. 성향 선사는 처음 숭산 선사를 친견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숭산 선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히피였습니다. 끈 모양의 긴머리에 더덕더덕 누빈 청바지를 입고 쌀과 콩만 먹는 배타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향 선사는 선원에서 몇 주일을 살았는데,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노련하며 유머러스한 지를 알게 되었다.

“스님은 언제나 어떤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면, 젓가락으로 질문을 한 제자의 머리를 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내려놔, OK?’”

이것이 컵이냐, 아니냐 하는 속임수에 걸리지 않고 컵을 들고 마시면 되는 경지를 일깨워준 숭산 스님의 ‘문없는 문’의 관문을 통과한 성향 선사는, 그간의 수행을 이렇게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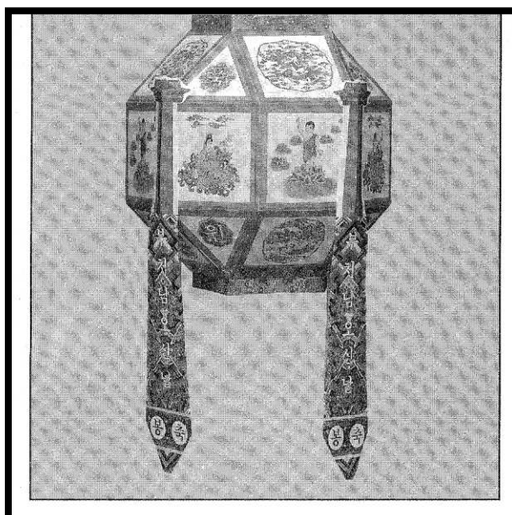
“숭산 선사께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 즉, 위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보다 완숙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Tricycle>과의 인터뷰 중에서)

김재경 기자



◇리처드 바에르 스님과 함께 한 성향 선사(왼쪽).

스승 가르침, 형식 구애없이 전파
“완전치 못하기에 완숙하려 노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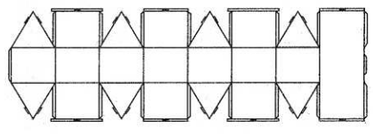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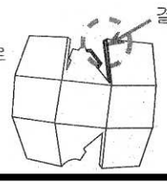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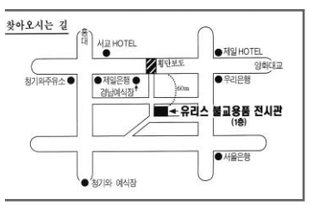
개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원

◈ 유리스에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홍대전철역 인근에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3년 2월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대표 이 효 실



불사 탱화
법당조성 유기
서적 조상
테이프 무용도구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전화 : 02-336-2165 팩스 : 02-336-216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1층



광명과 부처님 세계

보현보살이 사자빈신삼매 경계에 대해서 설하고 난 후,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간의 흰 털로부터 큰 광명을 놓는다. 그 광명의 이름은 삼세의 법계를 두루 널리 비추는 광명[普照三世 法門]이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세계 제불국토에 비치었다. 그 때에 서다림에 있던 보살대중은 모두 모든 세계 불국토의 여러 가지 이름 · 빛깔 · 청정함 · 머무는 곳 · 형상을 보게 되었다.

입법계품에 설해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뜻은 어디에 있으며,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보살들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본령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보살은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부단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펼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명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화엄경>에서 모든 광명의 근원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 근원을 둔다. 그러므로 광명의 근본은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인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법에 정각을 이룬 한없이 지혜로운 분이다. 이러한 성격은 무엇보다도 비로자나(Vairocana)불이라고 하는 명호에 잘 나타나 있다. 비로자나(Vairocana)라는 말이 '광명을 두루 널리 비춘다(光明遍照)' 라고 번역되는 것처럼 지혜의 빛이 모든 것을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본질이 사물의 진실을 아는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특히 공간적인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광명이란 태양에 비유되는 자비로운 작용이 되어 전개하는 지혜의 광명이다.

공간적 무한성, 자비로운 작용 전개

마음 · 세계 하나되어 활동하는 세계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지혜를 비로자나 여래로 해서 인격적으로, 힘차고 활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여래의 활동이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혜의 광명은 말할 것도 없이 여래의 지혜가 중생들의 무명 암흑을 깨뜨리는 것으로, 지혜의 작용이 세상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화엄경>에서는 지혜광명을 가지고 한없이 자비로운 여래의 활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화엄경>은 세상 만물에 작용하는 크나 큰 자비의 생명력으로서의 여래의 활동을 찬탄하고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큰 자비에 입각한 이타(利他)의 작용은 절대적인 대승의 입장을 천명하는 <화엄경>의 커다란 특색이 되고 있으며, <화엄경>에서 누누이 설해지고 있다.

티끌과 같은 시방세계에/ 광명 그물이 가득하고/ 광명 속마다 불타가 계셔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

운전하시는 묘한 법수레/ 법의 성품이 차별 없나니/ 오직 진실한 이치에서/ 모든 법상(法相)을 연설한다.

중생들이 많고 넓어 끝이 없건만/ 여래께서 모두가 염려하시고/바른 법륜 골고루 굴리시나니/ 비로자나불의 경계로다.

<화엄경>에 설해진 이러한 설법을 통해 화엄경의 여래는 일체 존재의 진실을 밝히는 대지혜의 부처님[大智慧佛]으로, 확실히 중생 구제자로서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신불은 영원불멸의 부처님으로서 그대로 한없는 지혜이고 자비이다. 지혜는 우리들 인간의 근원적인 무명을 비추어서 없애는 광명이 되어 작용하고, 자비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서 따뜻하게 감싸고 고뇌를 없애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참된 생명이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이 대지혜불(大智慧佛)이라고 해서 다만 주관적인 지혜만을 부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지혜에 의해 비춰 나온 객관적인 세계도 또한 부처님의 내용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세계가 하나[一體]로 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다. 중생의 가지가지 업보에 의해 여러 모양과 상태로 느껴지고 있는 세계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눈으로써 보면 미묘하게 장엄된 화장세계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불국정토, 즉 한량없는 광명과 장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제다. 여래의 광명이 비치는 곳이 객체적인 세계로서의 불국정토다. <화엄경>에서 여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객체적인 세계의 성립이 여래의 광명에 의해 있게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공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진실된 모습이 여래의 지혜 광명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세계는 객관적으로는 장소적으로 나타나지만, 주체적으로는 체험적으로 파악되는 마음의 세계[心境]라 할 수 있다. 진실로 이 현실의 세계는 우리들 마음가짐에 의해 사바세계도 되고 화장세계도 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④

법계연기설에 대한 비판들

보조지눌의 간화선은 화엄교학을 비판하면서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화엄의 법계연기설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힌두이즘적 경향 가져

하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초기불교 혹은 테라바디즘에 기초한 비판들이다. 이들은 화엄교학을 비롯한 대승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한국불교가 힌두이즘적 경향을 가진다고 경고한다. 물론 이런 비판은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라는 말만 보면 어떤 영역이 존재하고, 그 '장소'에서 법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듯하고, 진성연기(眞性緣起)란 말은 '성품의 일어남(性起)'이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사물에는 어떤 독자적인 성품이 존재한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설파된 '어떤 성품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무아(無我)의 관점과는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테라바디즘에 기초한 이런 비판은 대승불교에 대한 순전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기우에 불과하다. 대승불교에서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진다'는 말은 어떤 실체나 성품의 존재를 전제한 교설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본질이란 바로 연기, 공, 무자성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무시한 채, 그 말만 가지고 대승불교를 아트만을 인정하는 힌두이즘으로 왜곡시키는 방식이야말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정한 관점(法無我)을 잘못 이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통적인 북방 대승불교의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판은 그 자체가 매우 종파적인 의도가 숨겨진 발언으로 여기고 있다.

두번째 비판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계연기가 세간과 출세간, 혹은 물듬과 깨끗함이라는 양 가치로부터 벗어난, 번뇌와 열반을 동일시하고 모두를 긍정하는 초월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교학체계라는 비판이다.

체제 옹호 · 보수 대변

예를 들면 모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제도는 시대가 변함에서 오는 차별과 모순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엄은 그 자체로 옳다고 안이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들, 혹은 법계연기의 초월적인 입장은 불교 내부적으로는 비판기능이 소홀해지고 도덕적인 자기정화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밖으로는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인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나라나 고려에서 화엄교학은 전제왕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권력기반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발전되었다는 지적과 관련된다.

한편 소위 무애행(無碍行)이란 선종의 실천양식도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에 기초한 인식론에서 비롯된 실천방식이다. 이는 좋게 말하면 집착 없음을 표현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능이나 책임회피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화엄교학이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무딘 감성을 야기시킨다는 법계연기설에 관한 이런 비판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구체적 수행론 결여

세번째는 화엄의 실천론이 매우 관념적인 자기 안주에 머물 수 있음에 대한 것이다. 즉 '법계연기를 어떻게 체득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수행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점은 신라말 화엄의 교학자들이 대부분 선종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나중에 고려후기 보조지눌에 의해서 구체화된 비판적 관점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간화선은 바로 화엄교학의 실천론에 대한 보완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태아 생명도 존중돼야 한다

불교에서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로 한 번 눈을 돌리면 태아의 생명은 너무나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년 전에 우리 나라에서 생명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때 낙태 문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부분적인 허용, 허용 반대, 완전 허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완전이든 부분이든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젊은 층일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고소득층일 수록, 무종교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연 200만건 불법시술 문제

이타행 · 천도재 등 영가 위로해야

또 우리 나라에서는 산모들이 임신중 초음파를 많이 찍는다. 이런 과정에서 뱃속의 태아가 단지 '손가락이 하나 모자라서' 혹은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라는 이유로 세상구경도 못하고 죽어 가는 생명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든 낙태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몇 가지 경우에만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임신을 지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기형아 출산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다. 따라서 연 200만 건이라는 낙태수술의 거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태아의 생명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응급(사후)피임약인 '노레보'의 경우는 어떤가. 일반 피임약과 달리 '노레보'는 성관계 후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기낙태나 다름 없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가. 이 또한 건전한 목적으로 의학에 이용한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역시 초기 태아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우리 불교인들은 무관심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며, 만약 이러한 태아의 생명사상을 알지 못하고 낙태를 시킨 경우에는 죽은 태아를 위하여 법보시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참회 진언을 많이 읽거나, 날짜를 정해 108참회를 하거나, 불우아동을 돕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하는 이타행을 하는 일이 좋을 것이다. 죽은 태아를 위해 천도재를 정중하게 지내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시 연 정 사
053)853-2211, 011-808-8880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 동방, 바지 : ₩160,000 /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두루막 : ₩130,000
[누비,동방,바지] 3. 누비 (면솜 100%) — 적삼, 바지 : ₩220,000 / 동방, 바지 : ₩240,000 / 두루막 : ₩200,000
4. 누비 (혼방) — 적삼, 바지 : ₩170,000 / 동방, 바지 : ₩190,000 / 두루막 : ₩170,000
[누비,두루막] 5. 법복 (회색, 밤색) —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7. 승복 (골덴) — 적삼, 바지, 조끼 ₩200,000 / 동방, 바지 ₩19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주문 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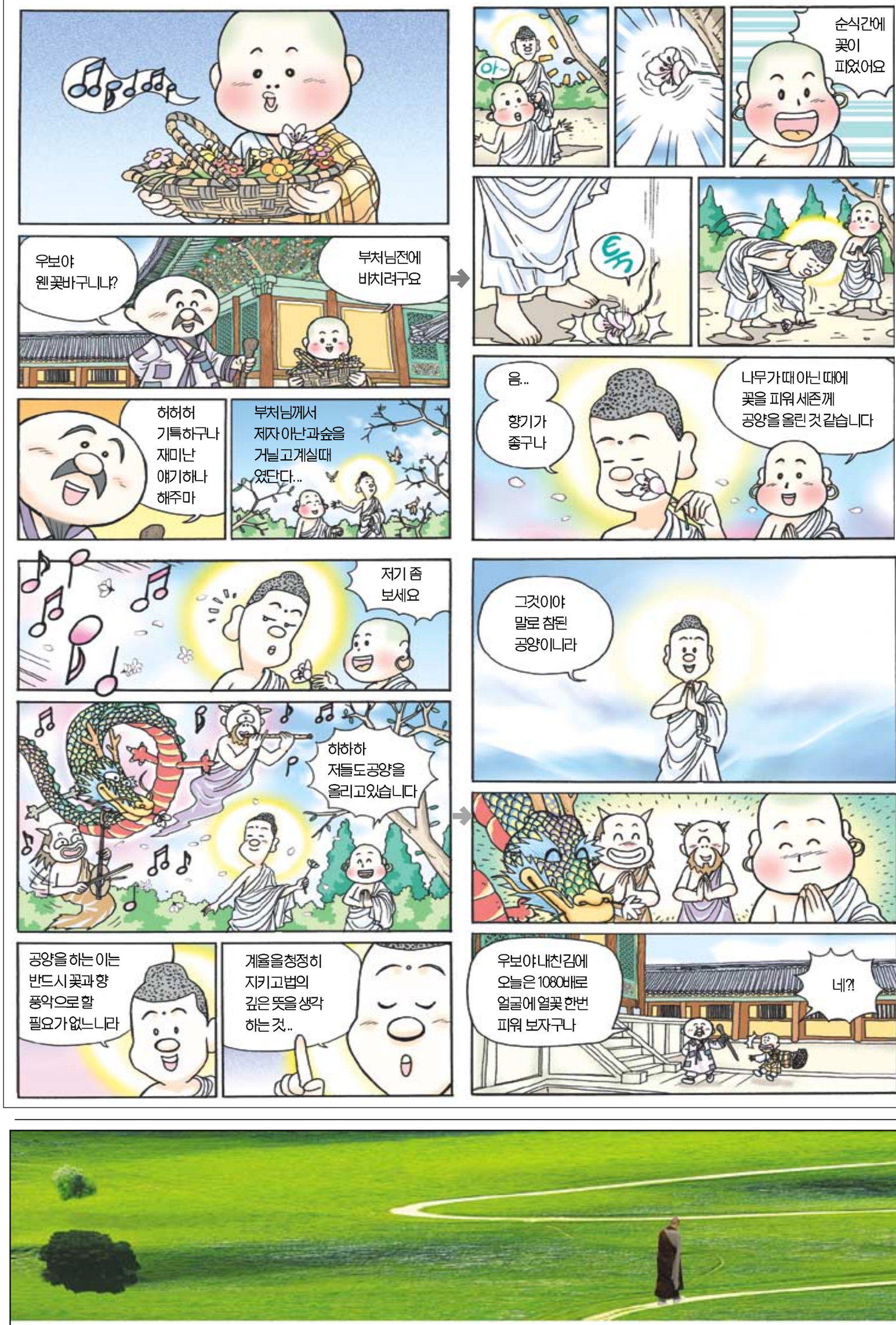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8화)

"법을 아는 것이 참된 공양이다"

〈출전 : 대반열반경 권중: 1-199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야구 방망이

'독과 우유' 되는 이치 알아야

<계초심학인문>에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다. 보조스님은 왜 처음 불문에 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의미를 따라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문자나 말에 얽매어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에 빠진다"는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선재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경계시키는 것일게다.

최근 어느 유명 연예인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선재는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다.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이끌게 한 이 모씨나 마 모씨와 같은 야구 선수의 방망이는 우유가 되는 물이었겠지만 침실에서 춤을 추던 그 방망이는 독이 되는 물이었단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유가 될 수 있는 물을 독으로 만들어 버린 그의 어리석은 마음가짐을 탓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선재가 보기에 이런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독을 품은 뱀이나 우유를 담은 소는 인간의 입장에서나 좋고 싫은 것이 있는 것이지 뱀이나 소의 입장에서야 그럴 것이 뭐 있겠는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마찬가지로 야구 방망이는 야구장에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것이 침실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라도 소가 물을 마시고 독을 내는 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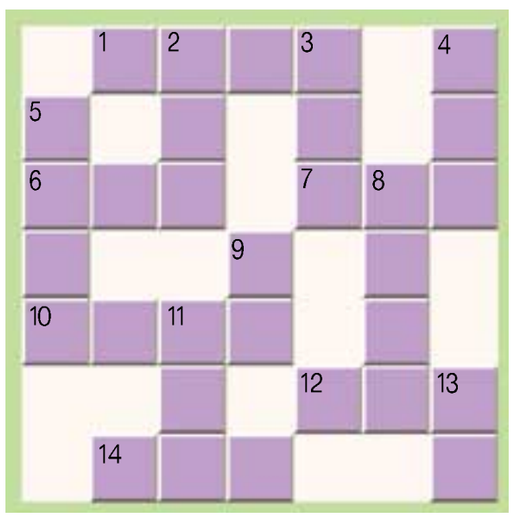
도대체 홧김에 남편이 야구 방망이로 아내를 때린다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혹시 북어랑 마누라는 3일에 한번씩 두들겨 줘야 한다는 말을 신봉하는 걸까? 그 북어는 3일에 한번씩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해장용 아닌가? 결혼해 보지 않은 선재는 그것이 궁금하다.

칼이나 몽둥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올바른 지혜에 기초한 방법과 수단으로 악을 멀리 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서쪽을 예배하면서는 아내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하라. 〈육방예경〉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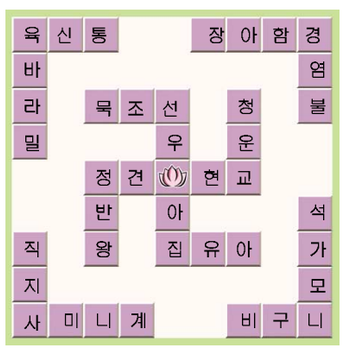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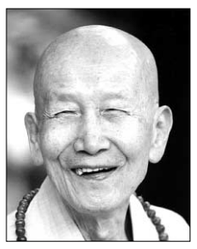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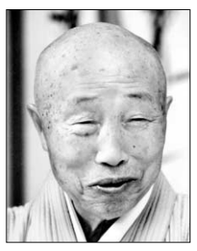
1. 괴로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함. 사성제 6.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도의국사를 종조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제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하는 것이 종지 7. 안거를 마치는 날로 7월 15일을 말함 10. 복을 비는 불교란 뜻. 오직 개인이나 가족의 안녕과 복만을 빌기위해 기도하는 것 12. 사람이 죽은 뒤 3년만에 맞이하는 제사날 14. 자타카.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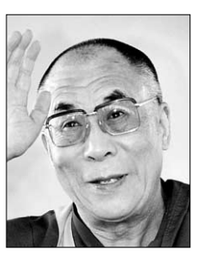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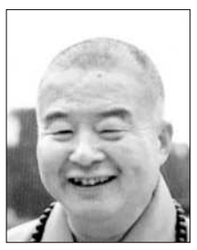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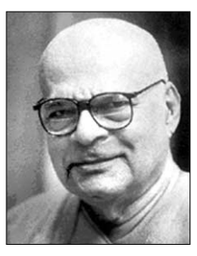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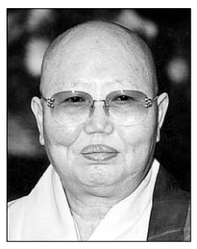
2. 법회의 시작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 3. 피안에 이른다 또는 완성하는 것이라는 의미. 바라밀과 동일함 4.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경전 5. 송나라 지반이 지음. 전 54권으로 천태교의 전통을 기록한 책, 불0통0 8. 남자신도를 중심으로 사찰의 신도회로 활동하고 있는 신행단체 9.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알리며 불교를 믿게 하는 것을 총칭 11. 오계의 첫 번째 항목.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 13. 모든 존재는 모두 상대적 의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우주만유에 대한 불교의 근본적 세계관. 연기와 동의어

〈409호 「교리퍼즐」 정답〉




◇위로부터 서옹, 성수, 숭산, 달라이라마, 성운, 담마난다, 틱낫한, 고사난다, 대행, 증엄 스님.

어떠한 길을 가는데 있어, 더욱이 그것이 수행의 길이라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길 위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수행 세계를 온전히 지켜나가셨다.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큰 스님을 흠모하고, 큰 스님을 직접 찾아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도 부처님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 선지식 22분 깨달음의 가르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재경 지음

마당넓은집 / 1만원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현재 살아서 깨달음의 법문을 전하는 전 세계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를 권한다.

이 책에는 세계 평화의 자유를 위해 부처님 본래 가르침에 근거한 '참사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을 비롯해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 등 우리나라 스님들과 캄보디아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마하 고사난다, 대만 불광산사 방장 성운스님, 중국 정토선의 중흥조 관정 스님, 말레이시아 불교포교의 선구자 담마난다, 스리랑카의 고승 나냐난다 등 남방 · 북방, 티베트 불교의 살아있는 고승 22명에게 듣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직간접 취재수첩 정리
활동상 · 수행법 등 소개

현대불교신문사의 수행전문 기자인 김재경 씨가 수년간 취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스님들을 수행의 측면에서 정리했다. 큰 스님들의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초발심의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가려는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근기와 기호에 맞는 방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간화선과 위빠사나로 대표되는 남방과 북방의 수행을 비교 점검하며 부처님이 설한 본래 가르침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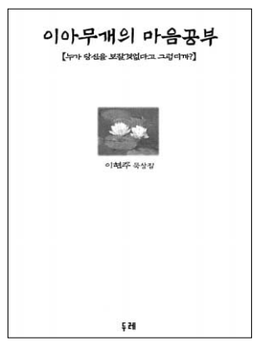
"수행이란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인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한 마음 챙김으로, 고 · 무아를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는 김 씨는 "계를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감히 말한다. 이은자 기자

목사님의 마음공부 체험록

'이아무개의 마음공부'

이현주 지음

두레 / 8천원



사랑 · 관용 · 욕망 등 삶의 의미 탐구
불경 · 성경 · 탁낫한스님 지혜 등 인용

'이아무개'라는 필명을 쓰는 이현주 목사가 <이아무개의 마음공부>를 펴냈다.

목사이자 시인이며 동화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구도(求道)에 관한 글을 쓰는 저자가 공부하고 묵상하며 스스로 실천해 본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일상 생활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세계적인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얻은 귀중한 지혜들이 녹아있다.

불경, 성경, 노자, 금강경, 바가바드기타, 역경 등의 각종 경전들과 더불어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 요가 스와미의 가르침, 위산영우의 <격려의 말씀>, 필립 듄의 <기도>, 임제선사, 묵암선사, 라마나 마하르쉬, 달라이라마, 툴쿠 돈둡, 브라이언 와이스 등 동서고금의 대가들이 전해주는 지혜를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우선 마음의 주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존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에 대한 마음공부에서는 이해와 동정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최감독과의 <마음공부>라는 저서를 통해 어떻게 하면 타인과 중생에 대해 동정과 자비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티베트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통렌 수행법'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렇듯 이 책에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용, 겸손, 인간의 욕망에 대한 탐구,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많은 사색과 실천의 체험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마음공부에 대한 친절하고 따뜻한 이야기 책이다.

"오, 사이치야, 극락정토가 어디냐? 내 극락정토는 바로 여기란다. 이 세상과 극락정토의 경계선은 어디냐? 내 눈이 바로 그 경계선이란다."(타이텟수 우노 <불의 강, 물의 강> 중)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극락정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줄 한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공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서서히 마음에 평화가 오고 빛 가운데 있는 느낌, 그리고 깨달음이 깃드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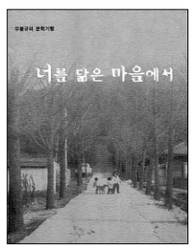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재성 지음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 1만원

전재성 박사가 우리나라 절에서 아침저녁 예불로 사용되는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최초로 상세히 해설한 책이다.

조석예불에서 누구나 알 고 있으면서 그 뜻을 알기 어려웠던 부분을 구절마다 쉽게 풀어놓았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한문 음사본으로 전해내려오고 판본에 따라 표기가 다른데 그 표기를 문법과 신화적인 내용에 맞도록 혼성범어(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로 완전 복원했다.



'너를 닮은 마을에서'

우봉규 지음

양지바른곳 / 8천9백원

<눈꽃> <금이와 메눈취 할머니>의 작가 우봉규가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문학작품의 무대를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을 책으로 냈다.

멀게는 지리산과 해남, 가깝게는 성북동 비둘기의 무대인 성북 혜화동 일대까지, 문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길. 가다가다 멈춰선 검은 밤, 초록의 별들을 따라 가는 길엔 슬그머니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세계가 펼쳐진다.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문예마당 / 5만원

<불교성전>은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하여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것이다.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편찬위원장을 맡았으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등과 각 승가대학의 강주 스님 등 30여명의 스님들이 직접 감수했다. 이 책은 이전의 사변적인 교리나열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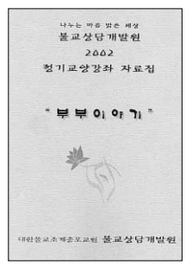


월간 '해인' 인터넷으로 본다

월간 <해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인터넷 월간 해인(www.haein.org)'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982년 3월 해인사 학인스님들이 직접 제작하여 첫 선을 보인 월간 <해인>은 2003년 2월 현재 통권 252호까지 발간됐다. 지금까지 참여한 필진이 1천5백여명, 큰 스님의 법문과 행자시절 스님들의 수행과 삶의 현장, 지성인들의 에세이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불교계 대표 잡지의 하나로 성장했다.

인터넷 월간 해인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의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화 했으며, 집필자, 제호, 이미지, 제목 등 모든 관련 기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와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티도 가능하다.



건강한 부부관계 지침서

불교상담개발원 '부부이야기' 발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지침서 <부부이야기>를 발간했다.

지침서에는 새로운 시대에서 변화된 부부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모색하고, 부부의 성문제와 혼외정사, 부부폭력, 이혼과 법률적 문제, 부부간 대화법 등을 담았다. 불교상담개발원이 2002년 진행한 교양강좌에서 이동원 · 함인희 · 공선영 이화여대 교수, 김보경 가족아카데미아 사무국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이 강의한 내용을 재구성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아비담마길라잡이	대림 ·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얼굴	이지엽 외	고 요 아 침
4	지허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 영 사
5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6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8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9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10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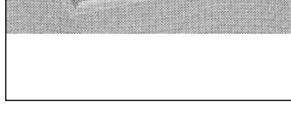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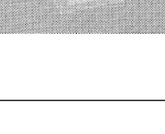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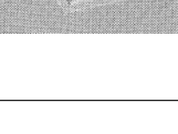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묻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번역 석 영정 | 값 6,500원


마음 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편집자 리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9,500원

"옛사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지음

솔 출판사 / 1만5천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세계적인 문명비평가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은 수년전 우리나라의 한 강연에서 "문화란, 한마디로 경제적인 자산이다"라고 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한 민족에 있어 문화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바로 정신, 문화에는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오늘에 계승하고 있는가. 우선 문화 그 자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은 바로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바로 알고, 감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강의하듯 이야기체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 책의 필자는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서 12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했으며, 현재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으로 있는 오주석 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친절하고도 깊이 있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옛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 사람의 마음으로 느낀다." 저자가 말하는 옛 그림의 감상의 핵심이다.

특히 우리 그림을 감상할 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듯이 보는 것이 작가의 시선과



◇탱화는 세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려한 회화로 표현한 것이다. 김홍도 作 '삼세여래체탱' (경기도 화성 용주사 소장).

우리 예술 바로 알고 감상하기 안내서

"옛그림 볼 때 오른쪽 위서 왼쪽 아래로"

만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수를 여행할 때 자연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듯 그림 역시 열린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감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저자의 강의 한 부분을 들어보자.

"고구려 고분벽화를 잘 보려면 거기 깔려 있는 도교 사상과 조상들의 토착신앙을 알아야 하고, 고신라(古新羅) 이래 천 년 불교 왕국 동안 만들어진 불교 문화재의 감상은 당시 사람들의 불교적 심성을 이해해야 가능하고, 또 조선시대 그림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사서삼경 정도는 대충 이해하는 교양이 있어야 그림의 진정한 뜻이 보입니다. 큰 절에 가서 불화를 보세요. 정교한 선과 눈부신 채색으로 그려 낸 갖가지 형상이 거대한 화폭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특징이라던데, 탱화는 왜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워 그렸을까요?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붓다의 깨달음, 그 진리로 우주가 화려하고 장엄한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꽃이며, 선인들의 과거를 성실하게 배워 발전적인 미래를 이어가는 재창조의 발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다워져야 아름다운 오늘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나는 네 발 달린 동물의
대표를 돌보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위한 자리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초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과 개미 사이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 어딘가, 바로 그곳에
이 세계의 창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작은 물건으로서."

오논다가족 부추장 오렌 라이온스(197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NGO회의 연설 중에서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는 인디언 스승들의 삶과 정신과 자연철학을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영적 여행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자인 스티브 월과 하비 아든이 인디언 부족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도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살아있는 스승들을 찾아가 10년 동안 직접 인터뷰하고 함께 생활하며 들은 생생한 지혜의 말씀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우테족 주술사 찰리 나이트, 라코타의회 의장이며 영적교사인 프랑크 바보까마귀, 세네카족 추장 코버트 해짐, 호족의 영적 교사 리라 피셔, 모호크족 추장 톰 포터 등 인디언 어르신 열일곱 명의 인생 역정과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스티브 월 · 하비 아든 지음

나무심는 사람 / 1만2천원



그들이 토해내는 이야기들은 지혜를 잊은 현대인에게 전하는 영혼의 메시지이다.

인디언 스승들의 당당한 모습과 심오한 말들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 깊은 생각과 감정, 꿈과 이상, 농담과 웃음, 치유법과 묵시론적인 예언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사슴, 말, 얼룩독수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형제이다. 바위투성이의 산꼭대기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이며 모두 한 가족이다." 수쿠아미족 추장 시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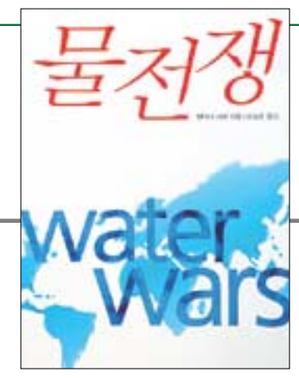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물전쟁'

반다나 시바 지음 / 이상훈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2천원



물의 신성 · 소중함 다시 깨닫게

인도의 생태운동가로서 칩코운동을 이끈 이로 잘 알려진 반다나 시바의 생태주의 입장에서 바라 본 <물전쟁>이 출판되었다. 생명의 물이자 모든 생명의 공공재인 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사유화되면서 나타나는 지구적인 문제와 지역과 주민의 문화전통이 파괴되어 가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생명의 원리와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찾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물에 깃든 신성한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어머니의 생명의 젖줄이 모든 생명을 순환시키고 연결하여 관계 맺게 하고 비로소 생명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이 임박해지면서 전세계 반전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의 한 면은 바로 '물 전쟁'이다.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오염된 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전쟁으로 몰아가서 그 전쟁판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다국적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이 물 시장에 뛰어 들면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던 물은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고 이들에 의해 수돗물이 민영화되면서 물 값은 치솟고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물 부족, 평화 · 생태적 해결방안 제시

지난해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열린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빈민 밀집지역인 알렉산드라에서는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 공급이 중단되어 결국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한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할 권리는 이제 돈 있는 사람만이 전유하는 권리가 되고 만 일이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시는 99년 벡텔사의 자회사에 의해 민영화되면서 수돗물이 공급되었는데 당시 코차밤바의 최저임금은 월 100달러를 넘지 못하는 반면 수도요금은 월 20달러에 이르렀다. 2000년 수백만의 시민들이 민영화를 무효화하고 물 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계엄령 발동으로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고 살해되는 과정을 거쳐 물 민영화 법안은 폐기되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 상품이 아니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로 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4만 5천 여 개의 대형 댐이 있다. 중국 2만 2,000개, 미국 6,390개, 인도 4,000개, 일본 1,200개이고 우리나라는 765개의 대형 댐이 있어 세계7위에 이르고 있다. 세계 댐 위원회는 이러한 수많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4,000만에서 8,000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폭력에 직면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 대량살상무기와 다름없는 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무고한 시민이야말로 다국적기업,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의 희생자인 것이다.

세계 규모의 댐을 보유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댐의 40%가 인도에 집중되어 있다. 인더스강, 갠지스강, 히말라야 등 신성이 깃든 인도에서 다국적기업이 벌이는 물 전쟁으로부터 자연의 어머니를 지키고 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생명운동은 깊은 문화전통과 생명의 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책은 물 전쟁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에 머물지 않고 평화적이고 생태적인 해결방안을 전통적인 지혜로부터 제시한다. 자연자원과 유지해 온 관계성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자원관리 방법과 조화를 이루는 등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한 인도의 판챠야트법이나 전통적인 물절약 기술과 지혜, 그리고 영국의 식민주의자들도 감탄했다는 수백개의 물저장소를 그물망으로 연결한 물관리 시스템 등은 생태적 그물망으로 살아가야 할 지구의 오래된 미래로 잘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어머니 갠지스강, 힌두신화에 의하면 갠지스강은 하늘로부터 흘러 내린다. 갠지스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다리가 된다. 신성한 물은 시장을 넘어서 우리를 신화와 설화로 가득한 세계로 이끈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에게 물을 절약하고 공유하게 만들며 부족한 물을 변화시켜 풍요로운 물로 만든다'

그렇다, 물은 순환할 때 풍요로워지고 모든 생명에게 형평하게 공유되고 나누어진다. 물전쟁으로부터 지구생태계와 인류가 살아갈 길의 지혜인 것이다.

■김제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물전쟁>은 세계적 환경주의 사상가이며 행동가인 반다나 시바가 쓴 책이다. 지역, 종교, 민족 간 대립으로 보이는 전쟁의 본질은 물이며, 물이 마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물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구간

우룡 큰스님 법문집 불자의 살림살이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Ⅰ 부처님을 믿는 불자
Ⅱ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자비
Ⅲ 복을 가꾸며 사는 불자
Ⅳ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Ⅴ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 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등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신구간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법문집!

혜인 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부모님의 은혜, 인과법칙과 마음씨, 참회 · 신심 · 구업(口業) · 보시 · 인욕 · 일법수행(一法修行) 등 불자들이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대입시켜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큰스님 / 값 5,000원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피하고, 올바른 정진을 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바보가 되거라 (경봉큰스님의 일대기와 사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큰스님!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큰스님의 대표적인 법문집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스님께서는 고된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법의 향기 가득한 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Ⅲ 베풀며 살자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Ⅵ 화두 드는 법
Ⅶ 마하반야바라밀

일타 큰스님 / 값 5,000원

아! 일타 큰스님

일타큰스님의 일대기.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극적인 큰스님의 수행담을 읽다보면 기도 · 참선 · 경전공부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비보살 일타큰스님과 함께 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큰스님의 유고 법문집

모든 불자들이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갖가지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Ⅰ 원망하지 않는 삶
Ⅱ 인연따라 복을 지으며
Ⅲ 구하는바 없는 불사
Ⅳ 불법 속에서 사는 불자
Ⅴ 행복과 해탈을 막는 오개장
Ⅵ 참선과 염불
Ⅶ 간경과 주력

일타 큰스님 / 값 5,000원

감로법문 (일타 큰스님의 육성법문테이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 · 2)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4)
참된 회향 (테이프5)

5개1세트 / 값 12,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해설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말씀으로 가득한 야운스님의 《자경문》을 해설한 책. 인간이 방황하고 윤회하는 까닭, 나를 찾는 묘법, 해탈을 이루는 비결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6,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길



무아설과 도덕부정론(4)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존재의 궁극적 실체인 아트만(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아트만이 생물학적인 윤회의 실체라는 점에서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무아설에 대해 많은 사상가들이 비판과 회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과 그 과보는 윤회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인도 일반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윤회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영향력, 전달 등의 의미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의미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일반 사상계에서는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도덕부정론자들은 업보사상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실체가 없이 윤회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이란 인간이 탄생하여 성장하고 죽는 과정에서 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갑이란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사고였다. 그런데 불교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갑 태어난 갑과 40세의 갑, 그리고 60세의 갑은 동일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외형이나 인간적 특징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갑 태어난 갑과 40세의 갑, 그리고 60세의 갑은 격절된 인간이 아니라 업과 업보의 상속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업과 과보의 연속선상 위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온은 세포조직 내지 구성 요소들이 받아 유지하다가 다음의 세포나 구성요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은(隱)이 사라지고 다른 세계의 온이 쌓인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당시의 도덕부정론자들은 이런 점은 간과한 채 아트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만 천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을 부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보설을 부정하는 도덕부정론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지타 케사캄발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비나 박애의 행위를 해도, 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를 올려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선악업이라는 것도 그 과보란 없다. 금세도 내세도 없으며,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다. 올바른 수양이나 노력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해탈한 성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세상에는 단지 흙, 물, 불, 바람의 물질적 4원소가 있을 뿐이며, 이 4원소의 집합에 의해 인간과 동물이 태어나고 발육하고 운동 변화하는 것이다"

아지타는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물질 이외의 영혼이나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동일한 차원에서 종교나 도덕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약간의 시각적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도덕과 업보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도덕부정론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대략 다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자재화작인설(自在化作因說)이다. 이 세계나 인간의 운명은 모두 범천이나 자재천 등의 최고신이 창조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일체는 신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숙작인설(宿作因說)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행과 불행의 운명은 모두 우리가 과거세에 행한 선악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인간의 운명을 전세의 업보로 본다. 따라서 현세에 선악의 행위에 대해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내세의 운명을 규정하는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 결합인설(結合因說)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흑, 백, 청, 황, 홍, 백, 순백의 여섯 가지 계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그 계급에 따라 인간의 성격, 지혜, 환경, 가계 등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우연기회인설(偶然機會因說)이다. 무인무연설(無因無緣說)이라고도 한다. 사회, 인생의 운명은 인과업보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신의 은총이나 징벌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상 다섯 가지의 사상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우연론이든 유신론이든 아니면 전세의 업보이든 모두 자유의지가 전제된 인과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부정론의 논리적 단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업보윤회…실체없다"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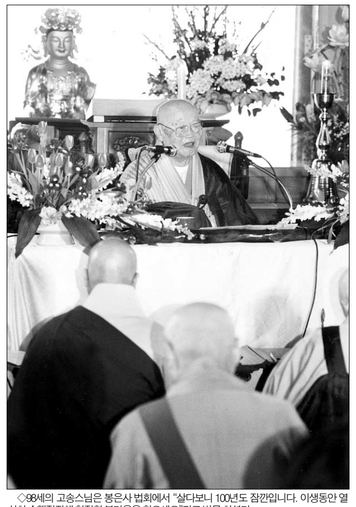
印 사상가들 5논리 내세워 부정

"깨어 있으라, 영원의 길 열려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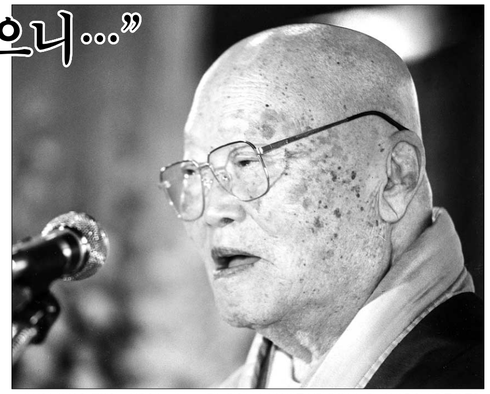
지상 백고좌

고 송 스님

(파계사 조실)



◇98세의 고송스님은 봉은사 법회에서 "살다보니 100년도 잠깐입니다. 이생동안 열심히 수행정진해 청정한 본마음을 찾으세요"라고 법문 하셨다.



◇부처님법은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참나를 찾자는 것이니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고송스님.



부처님 법은 '참나' 찾는 길

무주상보시로 공덕쌓는 것
과거의 악업 씻고
생사윤회 고통 끊는 첩경

율해도 어김없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 잘 안나오고 기운도 없습니다. 98년 동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녔으니 이제 고장이 날 때도 되었지요. 곧 이 몸을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부지래처(生不知來處)
사부지거처(死不知去處)라.

온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갈 곳을 어찌 알겠는가?

여기 모인 대중여러분은 이 몸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온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은 아마도 이 생에 온지 한 50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근원적인 물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주는 배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이 몸뚱이와 함께 살지만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왔다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진실한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실상(實相)을 바로 볼 줄 알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착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모르면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의 형상에 마음이 빼앗겨 애착과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해타산을 떠나 실상을 바로 알면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無常)입니다.

우리 모두 5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땐 다들 어디로 갑니까? 즉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즉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을 때는 이 몸뚱이와 원수를 짓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몸을 보호했건만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산거북 껍질 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냄새나는 이 몸뚱이를 내 보내기 싫어서 별짓 다 하다가 할 수 없이 보냅니다. 잠시 이생에서 몸뚱이 받아 살고 있지만 나를 낳은 부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몸뚱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 버렸는데 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꿈꾸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를 망각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며 살고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부귀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지나고 나면 한줌 재보다 더 허망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과 사가 허망한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동서남북을 통해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은 출가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금생에서 제도 못하면 어느 생에 제도하겠는가 하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억만 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순간'이라는 참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성할 때 열심히 수행 정진하십시오. 지금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100년을 사나 1초를 사나 똑 같은 한 참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영원불멸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살아가면서 복 많이 지으십시오. 우리가 지은 복은 영원히 새지 않고 독에 물을 긋는 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공덕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말고, 받는다는 생각도 말며, 이 몸 견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거의 악업을 씻고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거나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일 한번 한적 없다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악업이 더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고통을 자신이 받습니다. 갚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착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와업을 쌓은 사람은 뱀이나 독사의 몸이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등 6도 가운데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대중들도 염라대왕이 묻거든 "봉은사 법회에 와서 좋은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정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없는 부처님이 되십시오. 천언만당불여일묵(千言萬當不如一默)'이라 했습니다. 천 번 말해서 만 번이 옳더라도 한 마디도 안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지요. 부처님도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적 없다. 열심히 수행정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 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언뜻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의 도리는 저 시내 가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막 지껄이면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늙지 않고 맛도 똑 같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본래 진면목은 청정자성입니다. 중생 모두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서 마음에 때가 끼게 되었을 뿐입니다. 중생들은 무지해서 이 같은 청정자성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삼천대천세계에서 뭇 내려가는 소리가 변하지 않듯이 인간의 마음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배를 젓는 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배를 젓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마음을 쓰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살아보니 100년도 잠깐입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 많이 짓길 바랍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법회 동참자가 본 고송 스님

칭송받는 만공 · 한암 스님 밑에서 수학했으니 지금은 조계종 최고의 수행자라 해도 손색이 없지."

고송스님은 1906년 생으로 1920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23년 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이후 1930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금강산 마하연, 유점사, 신계사를 거쳐 묘향산 보현사에서 당대 최고의 선승들과 함께 수행하신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산 증인이다.

특히 망월사 결사 때 장판 한 장에 두 명씩 앉고, 아침 죽과 점심만 먹고 오로지 수행정진에만 몰두했고 한번도 종단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어떤 분란에도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은 2월 17일 봉은사 고송조계법회의 법사로 참석해 "어제 법문하신 고송스님은 굳이 법문을 하지 않아도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법문"이라며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을 직접 보는 것만 해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고 칭송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98세의 연세에도 저렇게 정정하게 법문하신 스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는 유 정심행(52) 보살은 "오늘 스님을 처음 뵈었는데 노구를 이끌고 법문하시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처럼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어 대중들을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에 산다는 강 보리심(33)보살도 "보통 70세만 넘어도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스님은 아직도 건강하시고 80이 안되어 보인다"며 "수행력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보살은 "즉기 전에 스님이 만공 · 한암스님에 수학…현대불교사 증인

"모습 자체가 법문, 뵙는 것만으로도 공덕"

2월 16일 봉은사 범왕루에서 봉행된 고승초청법회. 500여 사부대중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그 가운데서도 첫보사와 봉은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주스님이 단연 눈에 띈다. 석주스님은 9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법회 내내 꼿꼿한 모습으로, 일반 재가 불자들과 함께 고송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석주스님의 말씀.

"내가 즐가하려고 입산해 보니 고송스님은 벌써 선방을 드나드는 수준였어. 그때부터 일생을 선원에만 다니며 선(禪)만 하셨지. 당대의 고승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의 어떤 분란에도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다.



그림 · 문병성

'여법(如法)'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불자들 중에는 '어느 절 스님은 참 잘 생겼다' '스님의 목소리가 참 좋다' '우리 스님 멋있다'라는 말씀들을 가끔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스님, 참 여법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한다. 부처님의 모습, 진리의 모습과 같다는 말보다 더 흡족하고 멋있는 말이 있을까? 수행자의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는 참으로 여법하신 스님이 한 분 자리잡고 계신다. 원타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96년에 이웃한 포교당의 주지로 인연을 맺었다. 그때 스님께서는 도봉산 천축사의 주지스님이었고 도심 포교의 필요 때문에 인근 창동역 근처에 불교문화교육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스님께서 내가 있는 정혜사로 불쑥 찾아 오셨다. 포교당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때다. 낯선(?) 스님의 방문이 반가울 리 없어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스님은 환한 미소로 이웃에 살면서 서로 잘 지내자며 인사차 오셨단다. 경우를 따지면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삼고 있던 동네의 지리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내게, 스님의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스님은 많은 곳을 안내했고 여러 스님들과 사람들을 소개했다. 특히 스님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행동과 그들을 위하는 말씀으로 수행자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 주셨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 역시 스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한번은 사암연합회의 일로 인해 스님과 관내의 여러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연합회의 일은 재정적인 도움과 행사 참여의 일을 부탁하기 위함인데 개별 사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환영보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도 스님은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잘도 해내신다. 또 사암연합회엔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속인들도 다수 있는데,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스님은 그들도 모두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이상 잘 대해 주자며 여느 스님들과 똑같이 존대하신다. 그렇게 옆에서 지켜본 스님의 모습은

포교당 개원때 위로 · 격려 큰힘
항상 바른 모습…소중한 가르침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스님이 분중의 일로 부산으로 가실 때까지 몇 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도 스님이 일상의 삶속에서 보여주신 평범하고 바른 모습은, 수행자의 삶이란 자기가 처해지는 현실에서 얽마나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보현보살의 말씀 중에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란 가르침이 있다. 배운대로, 말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언행의 일치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다. 불교의 진리가 흘륭하다는 것에 이견을 다는 불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비춰지는 불교의 모습은 기대이하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 속에만 넣고 다니는 것은 흙 속에 보물을 묻어놓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리와 수행은 일상에서 실천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오늘도 많은 일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포교당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원타스님을 생각하며 되새겨 본다. 그래서 여법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 볼련다.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2개월과정 ※수시접수
▶강 의:매주 목요일오후 3시 ~ 5시
▶장 소:본연수원▶지도교수:金晉會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 747-1567 702) 737-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 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례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단란번에 가슴이 돌리고 단전이 열리는 신비로운!
호흡법 수행 이야기
절을 뒺치게 잘하는 법의 저자로 호흡에 뭣혀절하는 법에 이어 처음 공개하는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는 동작으로 배우는 자동단전호흡비법 공개 수련회
※ 천년, 염불, 독경, 위빠사나 수행의 호흡법, 자세법을 무사태는 수행자
※ 화병, 상기병으로 머리무겁고, 눈충혈, 침이 마르고, 뜻바늘서고, 입안이 헐고, 입술부릇트고, 머리속 염증, 목이 아프고, 얼굴이 붉고, 열이나며, 항상피곤하여 늘갈 졸아하는 수행자
※ 명치끝이 빠근하고 속이 답답하며 배꼽위아래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맥이 팔딱팔딱 뛰는 수행자
※ 숨을 가무로 쉬어 역호흡(염불, 독경, 등산, 대화할때 등등시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들어감)이 되어 골골해, 늙었을때부터 호흡해는 습중과 두려움이 많은 수행자
※ 배꼽위 위빠가 나오고 열구리 살이 많고 아랫배가 냉하고 손, 발, 무릎이 차가운 단전이 막힌 수행자
※ 손가락,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이 까맣고 기미가 있고 가슴, 배, 등, 허리에 검은 반점, 여드름, 담살이 있는 수행자
※ 불편증(3장), 우울증(3장)은, 악몽, 노이로제, 당뇨, 변비(5분), 비만, 소화불량(3분), 고혈압 환자가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단전호흡을 하면 혼자없고 도인법과 자동단전호흡법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됨을 체험할 수 있다.
※ 무의식중에 들숨시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고 날숨시 긴호흡이 되는 절, 염불, 독경, 자동단전호흡법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됨을 체험할 수 있다.
※ 철철해 흡흡호, 호흡법은 10분이내에 누구나 100% 수승화강 두한족열이 되는 완벽함을 그동안 수련을 해온 20만여명의 불자들이 절찰해 마다 체험합니다.
((숨이 차고 헐떡대고, 맥박이 빠르게 뛰며 빠른속도로 경맹스럽게 하는 절은 수행이 아닌 못된 것입니다.))
※ 수련장소 : 청호불교 문화원 7층 대법당
(서울 장남 청담동 놀롤예식장 시내아우스 뒤 50M)
※ 수련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 ~ 3시
※ 수련문의 :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청견스님
※ 전 화 : 031)771-7745, 011-9088-9449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응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참게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든 뒤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저곳"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2003학년도
제5기 신입생모집 및 영산범패 교육
■ 모집인원 : 스님 30명, 일반불자 30명(선착순)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본의식해설
· 안채비 : 각종 불공의식, 49재, 천도재, 신중작법,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사다라니, 지옥게
■ 과 정 : 2년(4학기), 1년 - 기초과정(목탁, 요령, 불공, 예불, 사물다루는 법) 2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입 학 식 :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통신생 출석 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 일요일 12시까지
■ 전 화 : 062)362-8604 / 011)624-8604 / 011)61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 과 정 : 혜공스님(종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자)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2-005559 (예금주 : 이복임)
광주은행 122-121-403070 (예금주 : 이복임)
※ 스님, 성직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문의 가능
※ 불교 예술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후계자 선정, 학비 면제
※ 제8회 범패교육 양력 4월 10일 ~ 4월 13일까지 접수 바람.
※ 제9회 영산범패교육 양력 6월 15일 ~ 18일까지 접수바람
호 남 불 교 전 통 의 식 대 학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한날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맑고 소박한 스님 이미지 신뢰 줘 광고효과 높다”

불교소재 CF 대폭 늘었다



◇통화연결음을 듣고 있는 김길호씨를 스님모델로 출연시킨 ‘컬러링’ CF(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CF.

‘앗, 스님들이 방송CF에….’

요즘 TV를 켜면 방송 CF에 스님들이 곧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핸드폰 통화연결음 컬러링, 우체국 예금보험, 청호 나이스, 남양 불가리스… 등. 모바일, 식품, 정수기, 우체국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속세와 단절된 맑고 깨끗한 스님들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광고주들의 스님 모델 모시기 주문이 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중 지난해 12월부터 등장한 핸드폰 통화연결음 회사의 ‘징글벨’과 ‘왜불러’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편인 ‘징글벨’에서는 산사의 대웅전 옆에 노 스님으로 분한 탤런트 김길호씨가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걸자 평범한 통화음 대신 크리스마스 캐럴인 ‘징글벨’이 울려퍼진다. 흥겨운 음악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춘 노스님은 신기한 듯 강당에 여러 스님을 모이게 해 놓고 젊은 상좌에게 통화연결음 사용법을 스님들과 함께 배운다는 내용이다. 2편에서는 ‘징글벨’ 음악대신 송창식의 ‘왜불러’를 사용했다. 광고제작사인 Zoo Pro 에서 만든 이 광고는 핸드폰과 전혀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산사의 노 스님을 모델로 해 상반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스님들까지 컬러링(통화연결음)을 사용한다는 광고효과를 노렸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뜬 성우 김현직씨가 마지막으로 출연한 청호 나이스 ‘산사편’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사의 새벽, 두 스님이 차(茶)를 음미하고 있다. 차를 우리려는 순간 물이 떨어진다. 노 스님으로 분한 김현직씨가 온화한 미소로 밖에서 졸고 있던 동자승에게 물 심부름을 시킨다. 이때 동자승이 물 뜨러 간 곳은 옹달샘이 아니라 청호나이스 정수기다. 산사의 옹달샘처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암시를 시청자들에게 준다. 어린시절 산사에서 옹달샘물을 손바닥으로 받아먹던 소비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청호 정수기가 옹달샘물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깨끗한 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청호의 경쟁상대라는 점을 은연중 인식시켰다.

이번 CF는 해남 다산초당에서 촬영됐는데 새벽 공기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스태프들이 새벽 4시부터 준비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특히 이번 CF에 등장하는 세명의 연기자 모두는 콘티에 매료돼 삭발을 자처하기도 했다.

제작진 “소비자에 어필…매력있는 모델”

우정사업본부도 노스님과 동자승, 수녀를 모델로 내세운 우체국 예금과 보험 CF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동자승’편은 화가 지망생인 동자승이 법당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꾸짖는 대신 크레파스를 건네주며 동자승의 꿈을 키워준다는 내용이다.

우정사업본부 이재태 금융기획과장은 “친근하고 따뜻한 우체국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동자승의 소박한 꿈과 이를 도와주는 노스님의 넉넉한 마음을 통해 꿈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금융권 광고는 상품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광고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광고의 차별성이 타 광고보다 약해 스님을 모델로 등장시켜 차별성을 가지도록 묘안을 짜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도 불교 화장실인 해우소를 등장시키며, 큰 스님도 변비해소에 불가리스를 즐겨 먹는 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히트했다.

방송 CF에 스님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현상에 대해 광고제작사 Zoo Pro 김종원 감독은 “4년전부터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원성스님이나 SK텔레콤의 청안 스님 등 실제스님 모델을 기용해 광고주들이 재미를 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되는 식품이나, 물 등의 한정된 광고에만 사용되지만 스님은 분명 광고 제작진들에게 매력있는 광고모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영화 ‘동승’ 인기폭발…연일 매진

베를린영화제를 다녀와서…

주경중감독 특별기고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는 필자(왼쪽)와 도념역의 김태진 군.

영화 ‘동승’은 이번 제 53회 베를린영화제 중 비경쟁부문인 킨더필름 페스트(아동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베를린 주 팔라스트(Zoo Palast) 극장에서 10 · 11 · 16일 세 차례에 걸쳐 상영된 ‘동승’이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하자 독일 현지 일일소식지(일간지)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1회당 입장한 총 1천여명의 관람객중 40%정도는 동자승 도념역에 출연한 김태진(14 · 덕원중 1년)과 같은 개구쟁이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수준은 성인 못지 않았다. 동자승이 어머니를 간절하게 부를 때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드러날 때 등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시사회가 끝난 뒤 같은 극장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어린이 심사위원단을 포함 한 100여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참석해 30여분간 질문을 쏟아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질문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화속 복장인 승복을 입고 나타난 아역배우 김태진군(13 · 덕원중 1년). ‘실제로 스님인지’, ‘연기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이번 작품에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했나’ 등의 수준급 질문이 이어졌다.

김군은 “힘들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재미있었다”고 영화를 촬영한 소감을 밝혔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을 묻는 질문에 “동네 아이와 싸우는 장면”이라고 답해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베를린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20여차례의 해외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영화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간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4월 11일 전국 1백개 스크린을 통해 국내에 개봉될 영화 ‘동승’의 해외나들이는 올해에도 10여차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티뷰론(3월), 파리(4월), 싱가폴(9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과 함께 찍은 미당서정주 사진.

‘미당’ 유품전 3월28일까지

동국대 도서관 신축기념…300점 공개

故 미당(未堂) 서정주 시인(1915~2000)의 유품 3백여점이 다음달 28일까지 공개된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신축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리게 될 전시회 제목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미당의 시에서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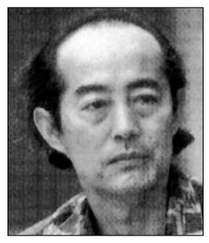
이번 전시품들은 2001년 4월 유족들이 동국대에 기증한 1만2000여점의 유품중 일부로 미당이 50여년간 간직해 온 10권의 시창작 노트와 영문학 · 프랑스문학 공부 과정이 담긴 노트, 출판되지 않은 노자의 <도덕경> 번역 초고, 평소 독송하던 <능엄경>, 성철스님과 찍은 사진, 미당이 보내고 받은 수천통의 편지 등이다. 특히 유작시 ‘제야(除夜)’, ‘곶감 이야기’, ‘나의 길’, ‘도로아미타불’ 등 4편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미당의 제자인 윤재웅 교수(동국대 국어교육학과)는 “미당의 미발표 시는 100여편에 이르며 계속해서 유작정리작업을 해왔다”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시는 유작 노트 10권중 8, 9권에 실려 있는 것으로 93년 1월~94년 10월 사이에 창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60년대부터 모아둔 각종 가계부와 영수증을 대하면 미당의 일상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특히 이번 공개 유품들중에는 미당의 손때가 묻은 목탁과 염주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국대 홍보실 김영민씨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당 관련 저작들도 수집 정리해 미당연구 전자도서관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기자



◇시인 정희성 씨



◇소설가 최인호 씨



◇문학평론가 조남현씨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 정희성씨
소설 최인호씨
평론 조남현씨

대한불교조계종 제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분에 정희성 시인, 소설 부분에 최인호 소설가, 평론부분에 조남현 문학평론가(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정희성씨는 지난해에 발표한 <늙은 릭샤꾼>과 <그가 안경 너머로 나를 쏘고 있다> 등의 시를 통해 생명에 대한 선(禪)적 직관들을 자연스럽게 평범한 시어로 작품속에 펼쳐낸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 중견 소설가인 최인호씨는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길 없는 길>에서 불교의 구도자적 세계를 새롭게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조남현 교수는 평론 <한국현대문학사상 탐구>와 <비평의 자리>를 동시에 간행해 한국문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상식은 4월 26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ch 32>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1:1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45 고승열전
22:05 영화음악실
23:25 지혜의 샘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6일 6시 30분 금강경 독송
27일 12시 10분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28일 9시 30분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3월1일 12시 30분 해동 용궁사 법회
2일 16시 10분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3일 20시 30분 생활건강백과 오행생식

하일라이트

■**불교방송**: △참여정부 출범 보도특집 ‘재벌개혁, 경제정의 실현의 대안인가’(26일 08:05분)-참여정부 출범에 즈음해 기획된 특집 프로그램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할 재벌개혁의 본질을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점검해본다

■**불교텔레비전**:△간다라불교와 한국의 미래 ‘법성포, 부용루에 대해서’(3월 2일 16:10)-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업’이 한창인 전남 영광 법성포. 이곳에 만들어진 부용루의 간다라 불상부조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되짚어 보고, 침류왕 때인 384년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의 고향 간다라의 불교유적을 살펴본다. 진행은 민희식 한양대 교수.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972년 교계 최초로 설립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법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불교대학

⊙ 교계최초 전임교수제 채택 ⇒ 일관된 교육성과
⊙ 철저한 학사관리 ⇒ 성숙한 불교지도자 양성구현
⊙ 아낌없는 교육투자 ⇒ 저렴한 교육비 및 장학혜택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240강의)

★ 어렵게 발심한 불교공부 따져 보고합시다. 어디에서?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에서 !★

◎ 교과과목 및 강의 안내(본 교과과정은 1년제입니다)

담당교수	강의전개 내용(년간 24과목 240강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봉수교수 (동국대 교수)	부처님 초기경전 및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등의 대승경전을 통한 불교교리의 근본이해를 돕는다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초기불교원전강독	초기대승 불전강독
허경구교수 (동국대교수)	부처님 열반 후 논의 되는 부파불교, 중관, 유식등의 교학적 이해와 불교의 중국전래로 형성되는 천태, 화엄, 선, 정토의 사상을 집중탐구한다.	부파불교의 이해	중기대승불교사상	후기대승불교사상	중국불교 교학사상
김종욱교수 (동국대교수)	불교사상과 타종교 및 서양철학등을 대비시켜 본교가 지닌 현대적 이해를 조명하고, 불교특유의 우주론, 시간론과 인간론을 고찰하며, 불교에 담긴, 인신론적, 심리학적의미를 살펴본다.	불교와기독교	불교와 철학	불교존재론	불교의식론
고영섭교수 (동국대교수)	불교가 각지역의 고요한 문화와 어떻게 조화되어 거대한 사상문명을 형성해 갔는지 정치, 교육, 사회,제도등 각종 사관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한다.	인 도 불교사	중 국 불교사	한 국 불교사	일본,동남아불교사
마일운 스님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전수교사)	마일운 스님으로부터 불교전통의식을 실수한다.	불교전통의식실수		불교전통의식실수	
김범준법사(대원회)	전통불교의식을 보다 대중적인 한글로 표현하여 불교의 대중화을 추구한다.		우리말 의식실수		우리말 의식실수

◎ 모집과정 및 전형

모집과정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출강 00 명 통신 00 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대중불교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인 터 넷	사이버 과정 00 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3월 2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 수시모집
◎ **강의시간 :** 주 3일 출석 (주간) 오전 11시 ~ 오후 3시 (화,목.금)
불교전통의식실수(마일운스님) : 금요일 오후 6시 40분
◎ **개강일시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입 학 식 :** 2003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법시고시 합격자) , 포교당 종교법인보호,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문의처 :** 본대학교무과 (02)754-1613, 773-9171
FAX (02)756-7258
홈페이지 주소 : WWW. idaewon. or, kr
주 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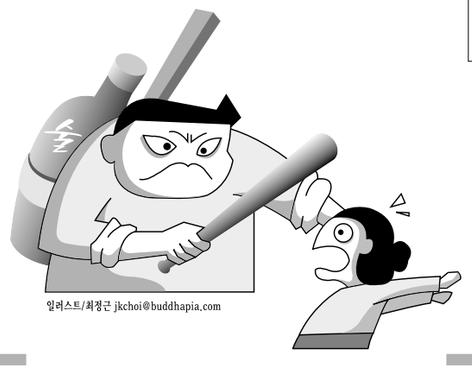
⊙ 大圓佛教大學



대원불교대학 전경

결혼 11년차인 주부 박모 씨(38)는 남편(41)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를 찾았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4년째 구타를 당하던 박 씨는 남편에게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참다못한 박 씨는 상담소를 찾아 위기를 모면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모자보호쉼터에 입소할 계획이다.

최근 개그우먼 이경실 씨 사건으로 가정폭력이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부 간의 폭력은 제3자의 개입이 쉽지 않고 가정 파탄과 자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일러스트/최정근 jkchoi@buddhapia.com

상담소	연락처
한국여성불교연합 행복한가정상담소	(02)735-0406
여성긴급전화 1366	일반전화-지역번호 없이 1366 휴대폰-지역번호+1366
선재가정상담소	(02)942-0149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02)953-201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http://lawqa.jinbo.net	(02)697-0565
이혼법률상담센터 http://www.2hon.co.kr	(02)556-310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02)2263-6464
서울여성의전화 http://hotline.jinbo.net	(02)2263-6464
인천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21.or.kr	(032)529-2545,
청주여성의전화 http://cjhotline.or.kr	(043)252-0968,
대구여성의전화 http://www.dwhotline.or.kr	(053)657-8082,3
부산여성의전화 http://www.pwhl.or.kr	(051)817-6464,817-6474
울산여성의전화 http://www.uwhl.or.kr	(052)211-1205
광주여성의전화 http://www.kjhotline.org	(062)363-0487
전주여성의전화 http://www.jjhotline.org	(063)283-9855,

가정폭력 이젠 숨지 마세요

실태 2001년 11만4천여건 매년 50%증가 '집안일'로 치부, 관여 회피인식 만연

대처방법 무조건 참기보다 근본적 해결의지 필요 혼자서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와 상담

△실태

행복한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02년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312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55%에 달하는 173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99년 4만1497건에서 2000년 7만5723건, 2001년 11만4612건으로 매년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통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이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가정이 깨지는데 대한 우려로 상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숨기는 것은 구타가 지속 반복되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상담사례가 고소나 고발 등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도 99년 1.9%, 2000년 1.8%, 2001년 2.6%에 불과하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로 파악하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문자 서울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맞을 짓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처 방법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상담소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정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상담소에서는 긴급상황에 경찰을 직접 연결해 주거나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도 해준다.

김묘주 여성불교연합회장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무조건 참는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남편과 함께 폭력을 쓰게 된 계기와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고,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수칙이나 각서를 작성해 보라는 것이다. 각서를 쓰고도 폭력이 재발한다면 전문상담소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무 고추 장아찌



고추 1kg, 무 3개, 진간장 6컵, 집간장 4컵, 설탕 2컵, 식초 2컵, 소주 1/2병

1. 고추는 씻어 끝부분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는다. 진간장, 집간장을 섞고 설탕을 넣어 녹인 후 식초를 탄다.

2. 무는 껍질째 씻어 반으로 가른다. 독 밑에 무를 깔고 손질한 고추는 망에 담아 무 위에 얹고 돌로 누른다. 그 위로 간한 간장을 붓고 일주일 후에 따라내 끓인 다음 식혔다가 다시 붓는다. 이때 소주를 함께 붓는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옻칠 발우세트



바리, 바리때라고도 불리는 발우는 '발다라'의 중국어 음차로 '양에 알맞은 그릇'을 뜻한다. '스님은 옷 세 벌과 발우 한 벌(三衣一鉢)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는 한 벌의 발우를 평생 지니고 다녔다. 옻칠 발우세트는 물푸레나무에 옻칠을 한 것으로 발우 5합과 수저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다. 값 25만원.

(02)732-1520

물푸레나무 사용 고급스럽고 실용적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마음 속의 찌꺼기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적을 주더군요. 제 사업이 잘되라고 절에 가서 철야기도를 했다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불쾌감이 느껴져 부적을 받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 지더군요. 이건 아닌데,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제 자신을 괴롭히면서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나 나눠볼까 하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 분은 저를 찾아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후,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강물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뿌옇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그와 같아서 아내로부터 뭔가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찌꺼기들이 떠올라 괴롭다고 했습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그 분이 30대 중반이었을 때,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학원을 차리고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서 영세한 자본으로는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고전을 하다가 결국 학원 문을 닫고 말았는데, 학원 문을 닫고 나니 남은 건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과 주위 사람들의 냉대였다고 했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몇 년 간 반복하다 보니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그런 한계점까지 이르고 나니 가까운 친 인척들한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자 살던 집도 채권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 그 분은 가족을 데리고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달동네로 이사를 간 날 밤, 그 분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유혹에 밤새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룻밤을 꼬박 밝힌 그 분은 다음날 아침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기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서고 보니 갈 데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어서 그 분은 그냥 하루 종일 앞만 보며 걷다가 어두워 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자 생활도 말이 아니어서 그 분은 어느 추운 겨울 밤, 쌀 한 되박이 담긴 종이봉투를 코트 속에 감추어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되박 쌀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이 마침 없어서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른 코트 속에 감추어 가지고 온 쌀 봉투를 아내 앞에 내 놓았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내려놓은 쌀 봉투를 나꿔 채듯 받아 가지고 윗목으로 확 밀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봉투는 찢어지고, 찢어진 봉투에서 쏟아진 쌀은 마치 모이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방바닥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분은 한 달에 수 천 만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유명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친구들 뿐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만나는 것을 기피했지만 지금은 그들 모두가 어떻게든 그 분을 만나서 자녀들 진학 상담을 하고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늘같은 남편으로 떠받들고 있다 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들판이 제 모습을 찾은 것처럼 그 분 주위도 제 모습을 찾은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부적을 챙겨주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의 효험은 별개의 것으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을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재기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내가 부적을 건네주면서, '여보 전 당신이 꼭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어요.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효험이 있다니 지녀보세요', 하고 부적을 건네주었다면 저는 그 부적이 효험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몸에 지녔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란 어렵고 힘들 때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괴로운 것은 바로 그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거두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고 난 저는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말 원하면 먼저 하세요"

"선생님이 부인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듣기를 바라셨듯이, 부인도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듣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남편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부인을 진심에서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선생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찌꺼기도 자연히 거두어 질 것 같군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살아나다'

이왕근(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 남자가 이른 새벽에 법당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서 돈을 빼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땅에 떼굴떼굴 구르는 광경이 벌어졌단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부처님께 용서를 빌라고 참회를 시킨 후에 땅에 붙었던 몸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법의 도량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큰 벌을 받은 것이라고들 사람들이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구인사 이야기를 장시간 하시고는 절에서 배운 기도법을 가르쳐 주었다. 앉은 채로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촉원을 드리고서 눈을 감고 관음기도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해 보는 기도였지만 마음을 모으고 설레임으로 그대로 따라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후 아버지는 구인사에 한 두 차례 더 다녀오게 되었으며 건강도 점점 좋아져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찾아간 병원마다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고, 유명한 의학박사인 작은 아버지조차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 그냥 편안히 쉬다가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는 등 온통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 부처님 가피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야말로 날아갈 듯 했다. 이렇게 아버지가 완쾌되자 작은 아버지를 비롯 온 친척, 친지들이 놀라움을 표시했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5~6세 때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요일 저녁만 되면 한번도 빠짐없이 막내인 나를 아버지옆에 앉히고 염불을 외우게 했다. 지금 그것을 되짚어보면 <천수경>을 외우게 한 것 같다.

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도 생각난다. 아버지께서 그날 따라 밖으로 나들이를 하고 싶으셨나 보다. 집안 일꾼 한사람과 나를 데리고 택시 한 대를 세워 태우게 한 다음 하루종일 돌아다녔다. 운전기사에게는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양산 통도사까지 갔다. 나로서는 처음 부처님도량에 가 본 셈이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집에 스님이 탁발을 오시면 꼭 쌀을 시주하고, 마루위로 모셔 대화를 나누며 편하게 쉬다가 가시게 했다. 또 집에 거지가 오면(옛날에는 거지가 참 많았다) 불쌍히 생각해 항상 동냥을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본인도 의식치 못하지만 불심이 바탕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본인도 의식치 못한 불심 마음속 존재

오로지 부처님 뒤 따르겠다…77세로 작고

아무튼 아버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철저한 부처님 제자가 됐다. 천태종 울산 지역 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월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으며 불교포교에 누구부다도 헌신적이었다. 집에서도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읽었으며, 불법공부에 게으리지 않았다.

또 하나. 누나 한분이 어릴때부터 만성축농증에 걸려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 다녔지만 다시 재발하곤 했다. 축농증이 너무 오래되고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수술비 댈 형편도 아니었지만 수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밤새 고민을 하신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방안에 촛불을 밝힌 다음 천태종 성전(聖典)을 올려놓고 대조사님의 영정이 보이도록 펼쳐놓고는 합장정례하고 축원을 올렸다. 딸을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을 드렸다. 그리고 절에서 가져온 피마자 기름을 한숟갈 누나에게 먹였다. 딸을 낫게 하려는 간절함이 통했는지 누나의 축농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가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믿음은 한층 견고해져 갔다. 우리 가족은 조석으로 부처님께 축원드리고 관음정진을 했다. 법회가 있을 때는 만사를 제치고 참석했으며 일요일 법회때는 막내인 어린 나까지 동참했다.

아버지의 불심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정도였다. 천태종 울산신도회 간부 임명도 받았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포교 활동을 하여, 5년간 간부활동을 마치고는 공로를 인정받아 천태종 2대 종정스님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뒤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다가 77세로 작고하셨다.

이러한 영험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소소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까웠던 아버지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처님가피로 소생, 26년동안 부처님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일은 내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또 우리 가족 뿐 아니라 이웃 친지 등에게도 불심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시방세계,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 했다.

불자들이 건성으로 불교를 믿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버지의 일을 소개했다. (끝)

그림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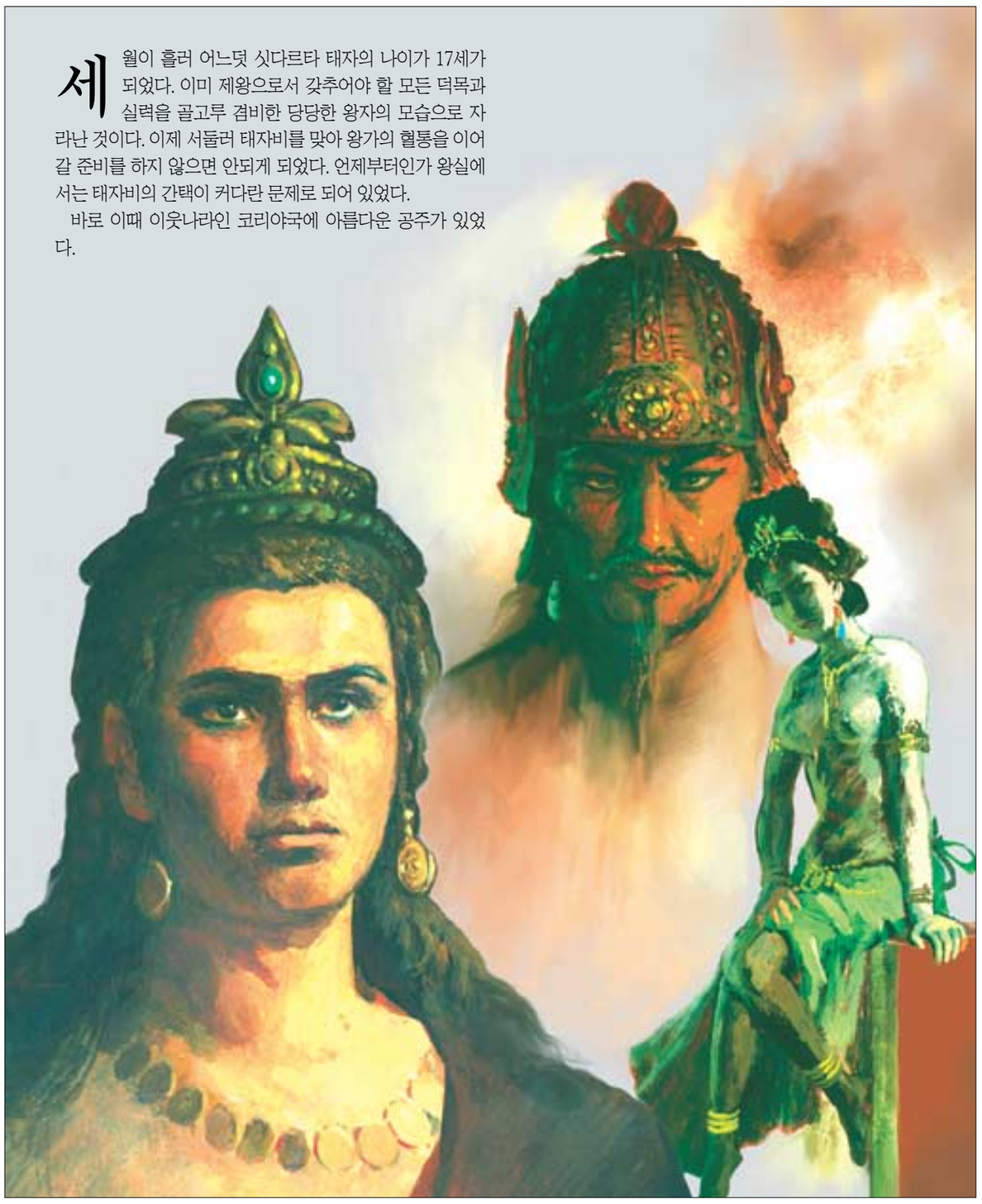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화 태자비 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싯다르타 태자의 나이가 17세가 되었다. 이미 제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과 실력을 골고루 겸비한 당당한 왕자의 모습으로 자라난 것이다. 이제 서둘러 태자비를 맞아 왕가의 혈통을 이어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왕실에서는 태자비의 간택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었다.

바로 이때 이웃나라인 코리야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다.



코리야(Koliya)국이나 데바다하(Devadaha)는 다같이 룸비니 동산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으면서, 카필라바스투를 상국으로 모시고 있는 같은 샤카(Sakya)족들로서, 사돈간의 친척관계이니 공주를 시집보내라는 숫도다나 라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야소다라(耶輸陀羅)공주의 소문이 너무나 크게 퍼져 카필라바스투를 지배하고 있던 마가다(Magadha)국을 비롯하여 파바(Pava)등 무려 8개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청혼을 받게되어 아버지인 코리야국의 왕 숲파붓다 2세의 입장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 당시의 청혼이란 반드시 결혼을 의미하기 보다는 결혼을 통하여 양국간의 우호를 다지는 국제조약의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소국인 코리야로서는 자칫 잘못 처신하면 국가 존폐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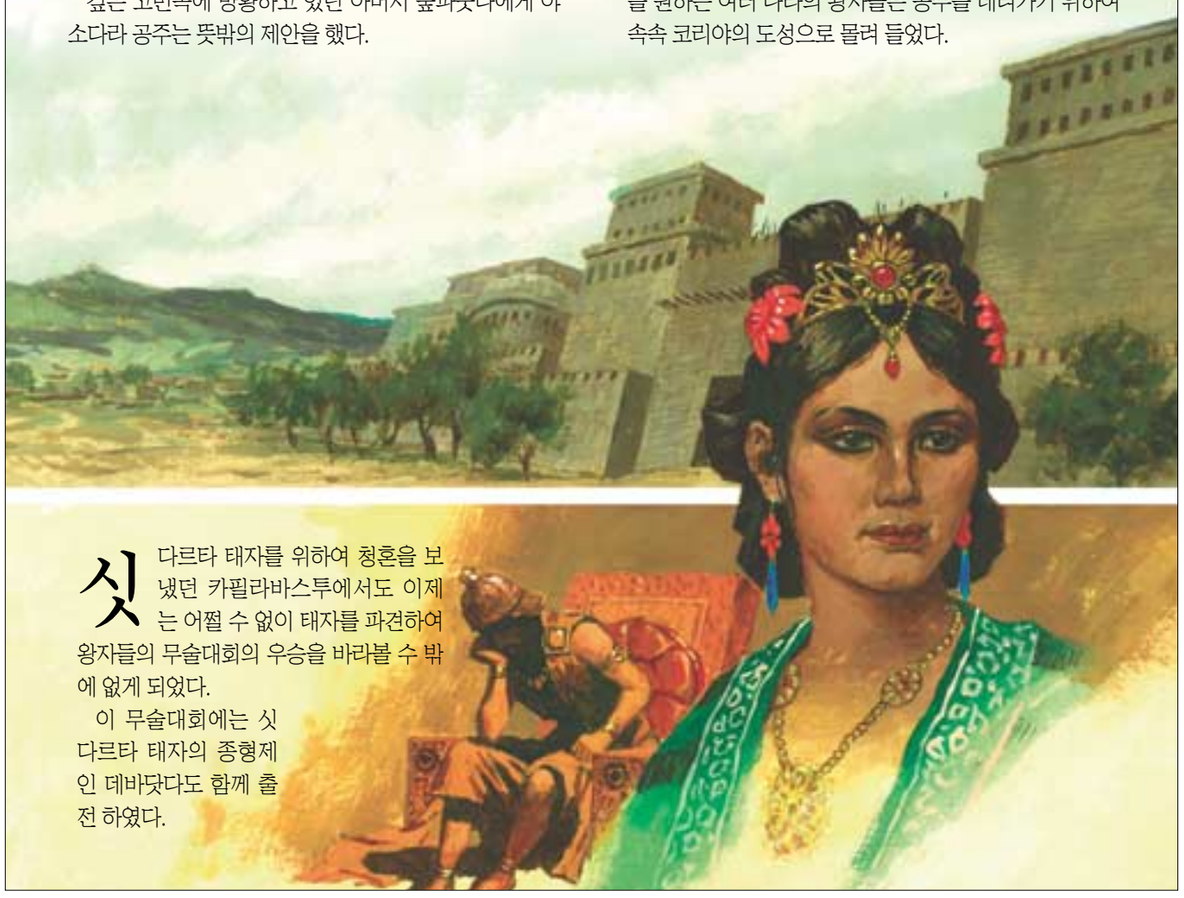
깊은 고민속에 방황하고 있던 아버지 숲파붓다에게 야소다라 공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아버님, 우리 코리야는 소국으로서 어느 한나라의 비위를 건드려도 그나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혼사문제를 아버님 혼자서 결정하시면, 뜻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모욕을 당했다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겠지요. 그러니 모두가 공평하게 신랑감 후보들을 한자리에 불러 무술대회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제가 시집을 간다면 뜻을 이루지 못한 나라도 그 책임을 아버님께 물을 수 없고 무술대회에 출전했던 제 나라의 왕자를 탓할 수 밖에 없겠지요."

다른 방법이 없던 숲파붓다 라자는 영특한 야소다라 공주의 제안대로 따르기로 하고 각 나라에 통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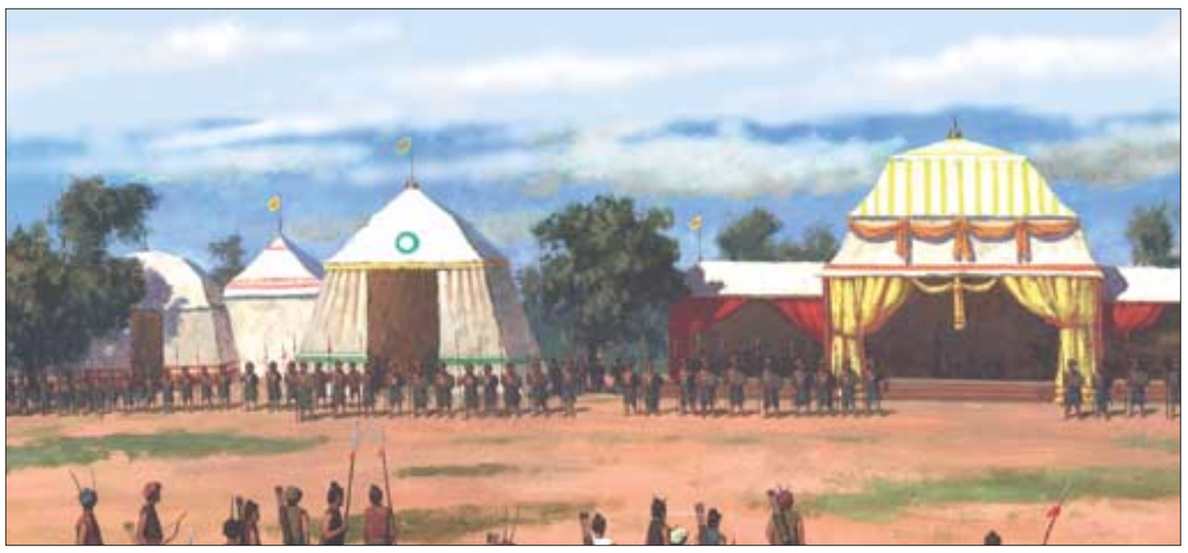
사실 불전에 보이는 이 대목은 인도의 설화속에 널리 알려져 있는 '스바야바라'라는 것으로 사위고르기 대회의 하나인 것이다.

드디어 무술대회를 여는 날이 다가오자 야소다라 공주를 원하는 여러 나라의 왕자들은 공주를 데려가기 위하여 속속 코리야의 도성으로 몰려 들었다.



싯다르타 태자를 위하여 청혼을 보냈던 카필라바스투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태자를 파견하여 왕자들의 무술대회의 우승을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무술대회에는 싯다르타 태자의 종형제인 데바닷다도 함께 출전 하였다.



대부분의 왕자들은 힘과 힘을 겨루는 이런 시합을 지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드라 계급이나 하는 경기로서, 적어도 왕자인 크샤트리아들로서는 천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연습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그동안 엄격한 체력단련을 통하여 제왕이 될 꿈에 젖어 있었으므로 이 힘든 시합을 어렵지 않게 치르면서 첫날의 우승자가 될 수 있었다.

두번째 날은 활쏘기 시합이었다. 활쏘기는 귀족적인 무술로서 대부분 궁중에서 수련을 해온 왕자들은 서로가 자신의 우승을 장담하였다. "오늘이야 말로 나의 진짜 실력을 과시하리라"

모든 왕자들은 자신감에 차 의기양양하게 대회에 나섰다. 그런데 첫 관문을 모두가 쉽게 통과하자 과녁이 차츰 어렵게 변하더니 마침내 500보의 먼거리에서 큰 북을 무려 일곱 개나 뚫어 보라 하였다. 대부분의 왕자들이 한 두 개씩을 뚫으며 과녁을 명중시켰지만, 오로지 싯다르타 태자만이 일곱 개의 북을 모조리 관통시켰을 뿐 아니라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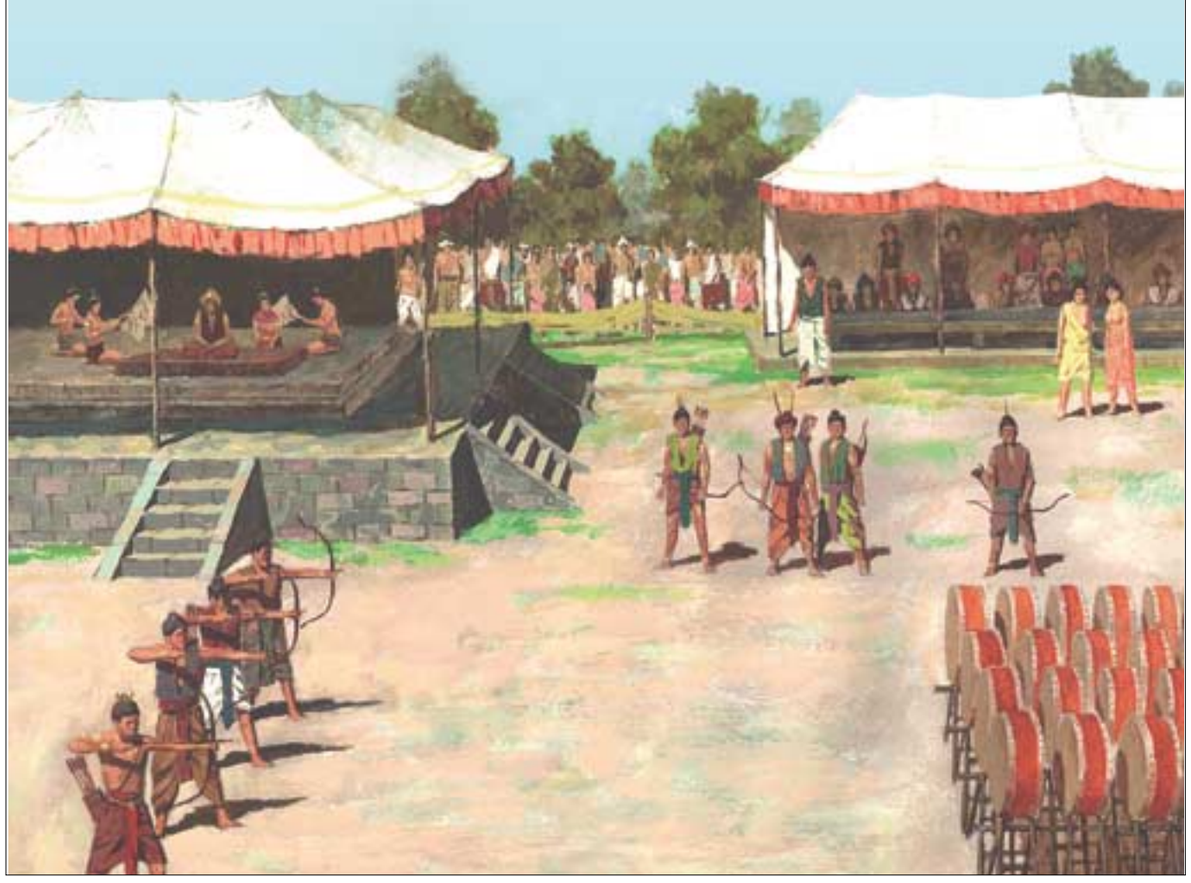
이리하여 둘째날의 무술대회도 싯다르타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막강한 국력을 앞세워 소국 코리야를 쉽게 굴복시키려 했던 여러 나라들은 야소다라 공주의 지혜에 걸려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이미 왕자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시합에서 꼭 우승을 하여 제나라의 체면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드디어 시합의 날이 다가왔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는 중앙에 높이 앉아 젊고 혈기에 넘치는 왕자들의 귀중한 전리품으로 그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본 왕자들은 기필코 우승하여 저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왕자들의 무술 시합은 첫날부터 힘겨루기로 시작하며 그 열기를 뿜기 시작하였다. 더운 나라인 인도 특유의 이 시합은 오늘날의 레슬링 시합과 비슷한 것인데, 서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항복을 받아 그 승자가 결정되는 형식이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존게총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말과 생각으로 알려 하기 이전에 자기 발현하는 공부를 일념으로 해야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는 마음은 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산도 마음인데 산이라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 몇 마디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각기 법어진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가끔 논다면 거기에 끄달려서 움짝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걸 하나로 뭉치면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한마음이 되면,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파서 관하게 되면 둘이 아닌 까닭에 분야를 많은 대로 요소 요소를 진행해 나가면서 모두를 하나로 들여줄 수 있는,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모든 중생들도 다 리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한마디의 말도 법이 되고, 한 가지의 행도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 그 중생들이 내가 마음 내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배우고 나가는 데 흡수해서, 팔자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의식으로 돌려지니까 바로 화해서 보신으로서 응신으로서 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능히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마지막에 내가 천백억화신의 대표로서 성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실체를 말로 알게 나 생각으로 알려고 하기 이전에 자기 근본을 발현하는 공부를 일념으로 하시고, 내 마음이 흔한이 그렇게 되고 제법이 되고 과거 자기와 상봉을 해서 자동적으로 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경을 보는 문제에 대해

문 스님께서는 "글자를 본다면 경전이 나를 보는 거고 글자 아닌 진실된 마음의 원리를 그 안에서 깨닫는다면 내가 진짜 경을 보는 거다. 내가 경을 봐야지 경이 나를 보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법화경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법화를 글리느냐? 법화가 너를 글리느냐?" 이런 화두 비슷한 질문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경전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보되 진실을 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보면서도 걸리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나는 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보면 노냥 그 내용만 달달랑 외우려고 들고 다닙니다. 그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허망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상식적인 면에서 이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폭으로만 너무 밝히고 자기의 내면을 무시하면은 머리만 밝아졌지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만 한다는 사람한테는 "경을 보지 마라, 너의 내면을 알고 그걸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아예 책을 안 보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았으면 봐라." 이러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을 보는 놈은 누구고, 경을 안 보고 싶은 놈은 어떤 놈인가. 보기 싫은 것도 그놈이 그러는 거고, 보고 싶은 것도 그놈이 그러는 거고, 앉아 있는 놈도 그놈이요, 누워 있는 놈도 그놈이요, 서있는 놈도 그놈인데 어떤 놈이 그 일체를 다 하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바로 접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저라는 놈이 전부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놓고 그냥 함이 없이 해나가도록 해." 이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일체를 다 거기다 놓고 하라고 하지만 이것도 말입니다. 일체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거를 믿어 스스로 놓을 것도 없고 안 놓을 것도 없이 그냥 놔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는 책을 보지 마라, 보라는 소리를 굳이 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필요한 거지 경에 따라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면이 다 그래요. 마음이든지 경이든지. 그래서 균등하게 잡아라. 균등하게 양면을 다 잡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균등을 잡는다. 안 잡는다도 없이 그냥 푹 아예 죽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오니까, 예를 들어 산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앞고 보니까 산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보니깐 거기서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경을 안 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스스로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그러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 봐야 그게 또 정면으로 들어가지 보기 싫을 때 아무리 봐야 그 뜻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안하게, 상황에 따라서 책을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안 보고 싶을 때는 보지 않고. 될 해도 편안할 수 있게끔 마음이 조용히 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로 삼합이 회전이 되면서 편안하고 잔잔하게, 항상 샘물이 들고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염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 속에 부처님의 법문이 있듯이 염불도 타이를 믿게끔 해 놓은 염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타이를 불렀고 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옳은 하는 것이 무루법 속에서 참 성품대로 사는 것이며, 온전하게 놓고 있다면 어떤 경계에도 화내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람이 없어도 안되고 구름이 없어도 안됩니다. 그러니깐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듯이, 이렇게 한창 색색가지가 참나참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낮에는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가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때로는 이런 게 닥치고 때로는 저런 게 닥치고, 때로는 이 소리를 들고 때로는 저 소리를 듣고, 이걸 만나면 저걸 만나면서 바뀌어지듯이 전부 순간순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참나를 발견하는 문제도 성을 내든 성을 안 내든, 환희심이 나든 환희심이 안 나든 무조건 거기에 딱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거기서뭐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다시 거기 넣고, 잡혔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주 슬기롭게 했다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안 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모든 걸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감사하다.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화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뒤돌아 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에서 공부방법

문 저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한시간 반 정도 차 안에서 나름대로 내면을 관하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로 붐비고 소란스럽지만 그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공부방법인지요? 그리고 하루 일과시간 중에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자기 내면을 관하는데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간절하게 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용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난다면 거기를 조용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시끄러운 차 안이라 해도 깊이 관하는 마음이 되면 그 차 안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오분 십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내면을 깊이 관했다면 그건 열시간을 앉아있었던 것보다도 의미가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닐 때나 또 아니면 쉬는 시간 틈틈이 관하는 생활을 해나가세요. 물론 처음에는 조용할 때가 산만치 않고 좋겠죠. 자기 주장심을 잡을 때까지는 관하는 공부를 그렇게 해 봐야 합니다. 그게 다 잡히면은 시장을 나가든 차 안이든 테레비를 보든 항상 주장자가 잡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즉 말하자면 소 고삐를 쥐지 않고 소가 제대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 고삐를 쥐고 단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나 시간을 나누지 말고 매 순간 자기를 지켜보고 관해야

항상 소 고삐를 마부가 쥐고 갔지만 이제는 소가 커서 소 고삐를 놔도 소가 그냥 제 갈 길을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진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념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자주 합니다마는, 이날까지 내가 망했든 흥했든 일체를 내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내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자기의 마음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알고 했을 때하고 모르고 했을 때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심주라는 자기 자체가 바로 화두가 되고, 그 화두는 항상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데에 근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각자 본인들이 생활도 하고, 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생각하고, 또 뭘 또 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만나는 대로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돼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것도 자기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게 된 동기, 누가 말을 하게 했느냐? 그겁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깐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배울 때는 본래면목 실상이라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누가 하게 했느냐 하면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마는 그 말소리가 나는 거, 자동적으로 움죽거려지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자기 본래 나오기 이전의 그 자기 원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하여금 생각을 내고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들뿐이겠습니까마는 그 참 말씀에 의해서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다면,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아마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음이 있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을 하면서 자유자재 할 겁니다.

화내지 않아야 하는지?

문 스님의 가르침 덕택에 분별심과 집착을 놓고 갈 수 있는 법을 이젠 마음으로 체득하며 갈 수 있을 만큼 마음 속에 부동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화가 올라오는 것을 놀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법으로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며 놓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믿게 되면 스스로서 놓을 것도 없고 안 놓을 것도 없이 그냥 놔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는 책을 보지 마라, 보라는 소리를 굳이 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필요한 거지 경에 따라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면이 다 그래요. 마음이든지 경이든지. 그래서 균등하게 잡아라. 균등하게 양면을 다 잡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균등을 잡는다. 안 잡는다도 없이 그냥 푹 아예 죽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오니까, 예를 들어 산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앞고 보니까 산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보니깐 거기서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나로 봐서는 경을 안 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스스로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그러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 봐야 그게 또 정면으로 들어가지 보기 싫을 때 아무리 봐야 그 뜻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편안하게, 상황에 따라서 책을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안 보고 싶을 때는 보지 않고. 될 해도 편안할 수 있게끔 마음이 조용히 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로 삼합이 회전이 되면서 편안하고 잔잔하게, 항상 샘물이 들고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염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 속에 부처님의 법문이 있듯이 염불도 타이를 믿게끔 해 놓은 염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타이를 불렀고 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옳은 하는 것이 무루법 속에서 참 성품대로 사는 것이며, 온전하게 놓고 있다면 어떤 경계에도 화내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람이 없어도 안되고 구름이 없어도 안됩니다. 그러니깐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살듯이, 이렇게 한창 색색가지가 참나참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낮에는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에너지가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때로는 이런 게 닥치고 때로는 저런 게 닥치고, 때로는 이 소리를 들고 때로는 저 소리를 듣고, 이걸 만나면 저걸 만나면서 바뀌어지듯이 전부 순간순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참나를 발견하는 문제도 성을 내든 성을 안 내든, 환희심이 나든 환희심이 안 나든 무조건 거기에 딱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거기서뭐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다시 거기 넣고, 잡혔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주 슬기롭게 했다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안 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모든 걸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감사하다.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화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뒤돌아 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 30면으로 계속

염화미소의 진의

문 염화미소(拈花微笑)에 대한 공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취산에 백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대범천왕이 꽃가지 하나를 부처님께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 꽃가지를 번쩍 들어서 대중에게 보일 뿐 입언반구의 말 한마디가 없으셨고, 이때 마하 가섭이 그 이치를 알고 빙긋이 웃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든 진의가 무엇입니까?

답 백만 대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그건 꽃 한송이로 표현이 됩니다. 백이라는 숫자도 없고 만이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괄된 하나에서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 핑상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한꺼번에 든 그 꽃 한 송이는 그냥 꽃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꽃을 들기 이전, 전체 포괄된 하나의 꽃을 드는 순간 벌써 꽃은 들기 이전에 그것이 평상심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심에 전체가 들은 그 하나를 내보일 때, 벌써 가섭존자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를 웃음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과 가섭 존자의 두 마음만 같이 흔합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혼합입니다.

부처님께서 꽃 하나 든 것은 일체 유생무생, 하늘과 땅을 한데 포함한 한 개의 꽃을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꽃 이파리는 각각입니다. 조개적 있습니다. 조개적 있는 그 자체가, 한 대의 꽃송이는 붉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대에 평상심에 의해서 전부, 골고루 꽃 이파리는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꽃 몽우리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비유해 볼 때 그것은 일상생활의 전체를 포함한 뜻입니다. 거기에는 법도 있고, 거기에는 자비로서의 나툼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꽃 이파리만을 이파리라고 정의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한데 합해서 나툼이라는 뜻을, 즉 말하자면 그건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로 하는 열반이 아닌, 규정을 지어서 아주 다양하게 같이 돌아가면서, 즉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육각으로 사람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럼도 잘 그리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도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내기 이전 그것이 똑같은가 하면 그 각각의 이파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개의 꽃 이파리가 있지만 모두 한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한 대에 붙어 있죠. 그러니 그걸로 표현할 때는 가섭존자도 누구도 다같이 한 꽃에 있는 이파리라는 표시를 그대로, 붙법승 삼보와 삼세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데 합친다면 핑상심이며 바로 보시와 법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든 거를 핑상심이 있으면은 보시가 갖고 보시가 있으면 자비가 갖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포함해서 몰락 한데 합쳐진 겨죠. 그래서 그것은 표현을 하자면 한 개의 금 열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에 가섭존자는 열매가 된 것이지요. 부처님과 더불어 따로 열매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 없이 해놓으신 그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나 그 뜻을 모르고서는 더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말을, 말 없이 꽃 한송이를 들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싸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 없이 들었건만 그 도리를 모른다면 말 한다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수박은 자기 안에 씨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씨 하나가, 차원은 여차 해놓고 씨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씨라고 부르는 거는 똑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만 가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씨라는 그 자체가…. 다 먹으로 그게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발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 "모든 형제들이여! 이 옹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바에는 푹 한 포기 없는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으로 애기한 겁니다. 공의 도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스님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왕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바에는, 잡초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밟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냐 그 말이냐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공 도리를 말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야!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저 아래 삼거리에 내려가면은 탑구리, 말도 많건마는 말이야" 천차만별로 갈갈이, 삼거리에 내려가면 말과 탑구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천차만별의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씨라고 부르는 건 하나밖엔 없다 이겁니다. 씨라고 부르는 소리는, 그래서 탑구지와 같은 많으나 그 재씩은 하나다 이겁니다.

여름이 따로 있고 가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폴 한 포기 있는 게 따로 있고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는 역시 선지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하셨다는 거, 덫을 많이 놓고 낚시 밥을 많이 던져 놓으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낚시 밥을 던져 놓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선종 도리는 아마 끊기고 들어갔을는지도 모르죠.

관해도 뜻 떠오르지 않아…

문 스님 법문 중에 "생초는 물에다가 통을 눅라."고 하는 뜻이 근본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런 습성이나 자기 습을 나오는 대로 놓는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될 때도 있구요. 또 굉장과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되는데 관해 봐도 그 뜻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의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여러분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틀들은 습에 의해서 그 마음을 떼 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어떠한 거든지 무조건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 도리를 다 알고 보면 과거도 없기 때문에 놔 버리면 없어질 거를 놔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하게 되면 벌써 같이 틔게 되고 자기가 반듯하게 되고 초조하지 않고 깨기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더라도 거기다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이러고 놓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놔야 또 뒤가 있죠. 그냥 무조건 저 물 내버리듯이 버리고 만다면 뒤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반듯하게 되고 초조하지 않고 깨기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더라도 거기다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이러고 놓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놔야 또 뒤가 있죠. 그냥 무조건 저 물 내버리듯이 버리고 만다면 뒤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하



불교 이래서 좋다

김사엽

한양대 기계공학과 3학년

통일순례단서 '참나' 확인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다. 하지만 내가 불법(佛法)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교에 와서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곳이 한양대 불교학생회였다.

본격적으로 내가 불법(佛法)을 접한 것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 서울지부 정보통신부장직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대불련에서 많은 법사님들을 뵙고 여러 강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불교의 진가를 경험했다.

"풍문이나 전설이나 소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에도 이끌리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고 보고 파악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한 깨우침이 되었다. 기복적이고 자신의 평안만을 찾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불교가 이토록 합리적이고 실천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와 달리 모든 것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었다.

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들이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불교계가 쏟고 있는 힘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대학 2학년 여름 방학 때의 대불련 '통일 순례단' 속에서 그런 고민이 다소 해결되었다. 결국 가치 있는 삶이란 고민을 넘어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다.

비록 불교와의 인연이 다소 가볍게 시작되긴 하였지만 나는 불자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어디서든 불교신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처님, 그리고 함께 수행 정진하는 도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2003 '세계 물의 해'

환경부 물절약 체크 15가지

2003년 세계 물의 해를 맞아 환경부는 물 절약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발족시켰다. 여기에서 권하는 물 절약 체크 포인트 15가지를 알아본다.

▲양치할 때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물은 컵에 받아 사용한다 ▲세수할 때 세면대와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사용한다 ▲목욕할 때는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샤워기를 사용한다 ▲샤워는 3분 이내로 한다 ▲비누칠할 때 샤워기를 잠근다 ▲머리에 비누칠을 할 때 샤워기를 잠근다 ▲빨래는 2번 할 것을 모아서 한다 ▲빨래할 때 물 수위를 적당히 조절한다 ▲빨래할 때 세제를 줄인다 ▲옷소매 등은 애벌빨래를 한다 ▲빨래 헹굼 횟수를 1회 줄인다 ▲빨래를 마지막으로 헹군 물은 베란다 청소나 걸레 빨기에 쓴다 ▲설거지하거나 과일을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쓴다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는 휴지로 닦은 후 설거지를 한다 ▲물을 마실 때는 컵에 먹을 만큼만 따라 먹는다. 홈페이지(Ilovewater.or.kr)에 접속하면 매일 자기가 얼마나 물 절약을 실천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입학 준비 '끝'

종립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맞이 분주

명성여고 입학을 일주일 앞 둔 강지혜 학생. 지혜는 18일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해 고등학교를 다니며 참여하고 싶은 교내 동아리를 고르고 있다. 선배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동아리 여행은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씩 꼼꼼히 챙긴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게시판 글을 통해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지혜는 선배 언니가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시켜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방문, 고등학교 교과목 강의를 미리 받으며 개학을 준비한다. 또 학교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동기들에게는 메일을 보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중이고 몇 명하고는 이미 전화 통화까지 했다.

예전 같으면 입학식을 치르고 반 배정과 담임 선생님 소개를 받고 반 친구를 사귀다 보면 어느새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버린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 고등학생 지혜는 학교 사정을 훤히 알게 됐다. 입학 준비 끝.

사이버 강의로 학교에 대한 모든것 알려줘
진로·불교상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클릭'

지혜 같은 예비 고등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홈페이지를 열고 둔 불교계 종립학교는 모두 16곳이다. 서울 명성여고 홈페이지는 학교와 선생님 소개, 학사 일정 안내, 동문회 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사이버강의실을 설치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이버 상담실도 두어 진로상담과 불교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내용은 비밀상담까지 해준다.

청담중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난해 실시된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전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와 답을 모두 볼 수 있다. 학내 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경주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2004년 대입 진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실려 있다. 이들 정보만 참고해도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진학정보, 내신성적 산출방법, 각 대학의 브로셔, 대학 정보박람회 등 정보가 가득하다.

보문고등학교 홈페이지의 특징은 '선생님 강좌', '선생님 칼럼', '선생님 게시판' 등이 운영돼 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선후배 메시지'는 고등학교 선배들의 대학생활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진선여고의 폼페이지에는 학교현황, 학생활동, 학교생활, 선생님 강좌 등의 메뉴가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계 종립학교 홈페이지

심인고등학교 www.simin.hs.kr
심인중학교 www.simin.ms.kr
청담고등학교 www.chungdam.hs.kr
청담중학교 www.chungdam.ms.kr
경주고등학교 kyungju.cschool.net
경주중학교 gyeongju.ms.kr
능인중고등학교 www.neungin.hs.kr
명성여고등학교 www.msong.hs.kr
명성여중학교 www.myungsung.ms.kr
보문고등학교 bomoon.cschool.net
보문중학교 www.bomun.ms.kr
은석초등학교 www.eunseok.seoul.kr
진선여고등학교 www.jinsun.hs.kr
광동고등학교 www.kwangdong.hs.kr
광동중학교 www.kwangdong.ms.kr
광동여자고등학교 home.dreamx.net/kdghs



파라미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온라인 통해 신뢰 확보, 오프라인 연계
봉사 활성 위해 '문화재 애호단' 구성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 이하 청소년협회)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실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청소년협회는 18일 신년사업 발표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를 받아 청소년들의 신앙, 이성, 진학 문제 등을 풀어보는 청소년 상담실을 올 하반기부터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협회는 상담전문가 모집과 담당직원 배치를 올 상반기까지 끝낼 방침이다. 전화 및 인터넷 등 온라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과의 신뢰관계가 확보되면 상담실 면접 상담과 집단상담도 실시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청소년협회는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애호단' 등 봉사단을 하반기까지 구성한다. 문화재 전문가와 문화재 보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이들의 봉사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재 애호단'이 구성되면 청소년협회는 주요사찰이나 불교 문화 유적 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나선다.

이외에도 청소년협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국제캠프를 7월에 열고 외국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의 참가도 유도할 생각이다. 한국인 불자 청소년들과 외국인 청소년들의 함께 의견을 나누는 국제캠프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동학원, 신임교원 대상 연수 실시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20~23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25명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행정, 직무 및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연수를 실시했다. 신임교원들은 20, 21일 교직관과 교무업무, 교무 행정 등에 대한 연수를 받았고 21일 오후부터는 광동학원 교법사단의 지도로 조석 예불, 108배, 참선, 불교 교양, 발우공양, 다도 등에 대해 배웠다.

46년 운허 스님이 설립한 광동학원은 현재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광동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산하시설로 보유하고 있다.

양정수련관, 프로그램 수강자 모집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3, 4월 사회교양프로그램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댄스 음악강좌, 어학 정보강좌, 건강 생활체육강좌, 청소년 어린이강좌 등이다. 댄스 음악강좌에서는 힙합 · 재즈 댄스, 현대무용, 클래식 기타, 가야금, 장구 등을 배울 수 있고, 어학 정보강좌에서는 중국어와 영어, 인터넷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운다. 헬스 · 탁구 ·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건강 생활체육강좌와 동화구연 · 만화교실 · 레고 닥터 교실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어린이 강좌도 청소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051)868-0750

명작 비디오 파일

공각기동대

시로우 마사무네의 만화를 원작으로 1995년에 제작된 82분짜리 애니메이션. 오시이 마모루가 감독을 맡았다. 부제는 <Ghost in the Shell>.

주요 등장인물은 공각기동대의

네트워크 시대
생명 정체성 다뤄

대장 쿠사나기와 그의 파트너 바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생명체(?) '인형사' 등이다. 쿠사나기는 '프로젝트 2501'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면서 사이버 상에서 진화해 스스로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인형사'를 추적한다.

이 과정속에서 그는 기계화하는 인간과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는 기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사이버 생명체인 인형사가 쿠사나기에게 던지는 질문인 "내가 네트워크인가? 네트워크가 나 인가?"는 자못 불교적이고 존재론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사대(四大)에는 주재자(主宰者)가 없는 터이니까 몸에도 자아가 없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나'란 누구인가? 강유신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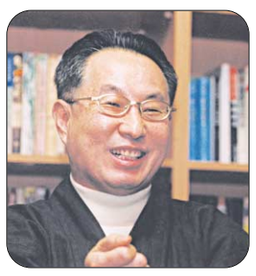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명품 정보 마당

항상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정보

생명의 돌 희담석

장시간 앉아 생활하시는 스님, 불자님, 수험생, 고생 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색상 : 카키색, 살구색

생체활성 메카니즘 희담석 방석이란?

㈜자원넷에서 시판하는 희담석제품이 요즘 시중의 큰 화제다. 희담석은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옛부터 치료용으로 써온 돌인데, 원적외선등 생체에 유익한 파장이 매우 강력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 한 무역업자가 국내에 들여온 이 돌의 가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기 치료전문가인 김재현씨. 김씨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초현상에 관한 취재를 받기도 한 이 방면의 전문가이다. "평소 병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이세상 어딘가에는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던중 희담석을 만났고 깜짝 놀랐지요" 이후 ㈜자원넷에서 희담석으로 만든 보료,방석,찜질팩,다기등의 제품을 개발 출시하였고 많은 체험사례가 쏠을 이었다. 스님은 물론 불자, 수험생,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치질등 **지병호전과 활력증진, 집중력증가, 성적향상** 등 여러 효능을 경험했다고 한다. ㈜자원넷 사장은 자신도 놀란 한 사례를 회고한다." 한 수험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반에서 늘 30등 정도였던 딸이 희담방석을 쓴 후 1달만에 10등을 했다는데 저도 놀랍더라고요.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밤 12시를 못넘기던 애가 새벽 3~4시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우연이라고만 할수는 없겠지요." 특히 휴대가 가능한 희담방석은 오랫동안 좌선과 경서 공부를 하는 스님들에게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한의원에서 치료용 침대로 사용될 만큼 희담석의 효능은 높이 알려져 있다. 희담석 방석 특별 보시가는 198,000원이다.

희담석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
02-3476-2335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平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악귀와 잡귀들이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신비와 영험의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사용하는 사람이함부로넘거나막 사용하면 그염주는 영험이다 떠나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금강염주사 문의(02)723-0909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7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10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존경하는 스님께 최고의 보시는 바루입니다

세계최고급 名品

흑단무늬목바루

베트남 국민영웅 공예가 NGUYEN BACH KHOI 작품



세계적名品 흑단 무늬목 바루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나무에서 氣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현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 무늬목이다. 名品만을 고집하는 금강염주사에서 베트남의 국민영웅 공예가 연위엔 박코이(65세)작품으로 200set가 제작되어 인연과 연분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불자님을 기다린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는 나무로 부처님께서도 사용하신것으로 전래된다.

흑단무늬목 바루는 氣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음식을 담아 놓아도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단무늬목은 일곱번을 삶아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바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삶은 다음 정조 작업을 한 후 바루에 일곱번의 옻칠을 해야 만이 흑단무늬목 바루가 탄생된다.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인연의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흑단무늬목 바루문의(02)722-0880

※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흑단목 108염주를 불자님들께 보시할 흑단목 108염주를 사찰에 계신 스님께주문예약 받습니다.

화제의 염주

極樂往 금강극락염주

故人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靈驗



故人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선물

원효대사때부터 전래되는 녹색의 금강석 금강극락염주를 염주전문회사인 금강염주사에서 북한으로부터 원석을 반입하여 가공 조립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금강극락염주는 신비한 영험으로 故人께서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영가를 안정시키고 잡귀와 악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극락왕생하게 하는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희귀한 염주다.

일반광석은 1.000℃에서 모두 녹아 버리지만 금강극락염주는 2.000℃에서도 녹지 않고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남아있어 더욱 신비를 주고 있는 염주다. 금강극락염주의 사용법은 故人의 염습이 끝난 후 입관시 故人의 관속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같이 화장을 하고 화장이 끝난 후 금강극락염주알을 골라내어 분골과 함께 유골함에 넣으면 결로로 인한 분골의 부패도 영원히 없애주는 신비한 염주다.

하관시에는 금강극락염주와 함께 하관하고 봉분하면 된다. 금강극락염주의 출시로 슬픔과 애통에 젖어있는 유족에게 큰 위안이 될것이며 故人께 극락왕생을 비는 마지막 효도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금강극락염주는 생존에 사용하다 극락왕생길에 가면 더욱 좋다. 구입문의는 사찰, 스님 또는 유명장례식장과 전화로 신청하면된다.

가격은 245.000원입니다.

문의 및 상담전화 (02)722-0880

※사찰구내매점, 스님, 전국장례식장,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중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나라안정기원 및 제5세 종정 상봉당 큰스님 취임대법회

초 청 말 씀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큰스님, 종도님, 불자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부처님전에 합장 발원합니다.

초청의 말씀은 금번 저희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서는 나라안정기원 및 제5세 종정 상봉당 큰스님 취임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성대하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나라안정기원 및 제5세 종정 상봉당 큰스님 취임대법회
◆ 일 시 : 2003년 2월 27일(음력 1월 27일) 오후 2시
◆ 장 소 : 성남시 시청사내 시민회관 대회의장
(만찬 및 축하공연 4시 구내연회장)
◆ 주 최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주 관 : 제5대 종정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 후 원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www.CBC108.TV 연합불교방송
◆ 문 의 : **총무원 033)671-7751~3 / 서울사무소 02)831-3886**

대 회 장 의륜 서주범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실무의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봉행위원장 대현 전희도